

함께여서 두렵지 않은 우리

그래, 우리 함께



함께여서 두렵지 않은 우리
그래, 우리 함께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2020년도 '우리' 학생회-

2020년도 제 16회 한국어문학과 천년대목 학술제

목차

제 1 부/여는 글

교수님 인사말

학생회 인사말

제 2 부/운문

산문

제 3 부/하랑

제 4 부/닫는 글

제 1 부

<여는 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등대가 희망이다.
우리가 희망을 선택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노먼 커즌스-

나는 힘과 자신감을 찾아 항상 바깥으로 눈을 돌렸지만,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온다. 자신감은 항상 그 곳에 있다.

-안나 프로이트-

〈교수님 인사말〉

백진우 교수님

매년 여름이면 우리 학생들이 글을 모으기 시작하여, 늦가을에 한 권의 문집으로 완성을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매년 문집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 무척 장하고 대견스럽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 많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글을 통해 여러분의 즐거움, 슬픔, 기쁨, 괴로움, 고민, 행복, 소망 등을 느낄 수 있어서 읽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글을 쓰는 일은 누구에게나 무척 어렵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나조차도 알기 어려운데, 다른 이가 공감하고 이해하게끔 쓰는 일은 훨씬 더 어렵겠지요. 그래서 ‘쉽게 쓰여진 글’은 거짓말이라 생각해요. 또 그래서 긴 시간, 고민하고, 공을 들여, 글로 풀어낸 여러분의 결과물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모으는 일은 무척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의미 있는 것을 모은다면 그 의미는 더 커지겠지요. 모으는 일을 한 해 한 해 지속해나간다면 그 의미는 다시 몇 배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내년 늦가을에도 여러분의 글, 그리고 여러분 후배들의 글을 문집을 통해 여전하게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용욱 교수님

올 한 해, 참 어수선하게 시작돼 어수선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지러워도 시간은 어김없이 제 갈 길을 가고 있네요. 캠퍼스는 노란 은행잎과 빨간 단풍으로 형형색색 완연한 가을 정취를 물들였는데 시간 위에 우리만 ‘팬데믹’ 이다 ‘뉴노멀’ 이다 호들갑스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실시간 강의, 온라인 상담, 언택트 커뮤니케이션 등 형식은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형식과 무관하게 강의의 본질은, 상호 소통의 본질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교수는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하고, 학생은 달라진 강의 환경에서도 열심히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권의 문집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진리관 앞 <천년대목>은 천년을 가라고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풍파에도 꺾끗하게, 세파에도 의연하게 그 자리를 지켜달라는 우리들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올 일 년 그 자리에 맑고 밝은 모습으로 있어 줘. 참, 고맙습니다.

김승중 교수님

천년대목과 함께 한 시간

천잠 캠퍼스를 벗어나 지내온 세월이 만 28년이 되어 간다. 최기우, 문신 등이 신입생이 들어온 해에 나도 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현 한국어문학과)로 부임해 왔다. 200여 권의 저서를 출간하신 것으로 저명한 전규태 교수님을 비롯하여 우민섭, 전일환, 임철호 교수님을 선배로 모시고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에서 1993년부터 강의해 왔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전주대학교의 위상은 그리 높지 않았다. 이동교를 건너면 드문드문 농가만 눈에 띄었고 전주대학교는 허허벌판에 우뚝 솟아있는 형국이었다. 교육부의 평가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학교 차원에서 선정되는 사업도 거의 없었다.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의 위기가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전주대학교는 이유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전주대학교는 새롭게 변신하고 도약하였다. 어설프게 대비하던 대학 평가도 준비 팀을 따로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였고, 교육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응모하였다. 2000년대 초에 선정된 ‘교육과정 우수 대학 지원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선정은 전주대학교의 운명을 바꾸었다. 전자는 전주대학교의 교육과정을 국내에서 가장 특색 있고 효율성 있는 교육과정으로 만들었고, 후자를 통해서도 무려 600억이 넘는 지원금이 전주대학교에 유입되었다. 때마침 전라북도 도청이 인근에 자리 잡으면서 신시가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나는 이들 사업에 평가 준비위원, 사업제안서 집필위원, 부서 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힘을 보탰다. 2010년대 들어 전주대학교는 더 많은 사업에 선정되었고, 도서관과 기숙사가 신축되었으며 각 건물이 새로워지면서 전주대학교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도 높아졌다. 오늘날 입학 자원의 감소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대학의 위기가 다시 찾아오고 있긴 하지만 전주대학교가 그간 쌓아온 잠재력과 전통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물러날 때가 찾아온다. 나 역시 이제 2021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퇴임하게 된다. 수많은 일이 있었고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 보람도 있었고 후회되는 일은 더욱 많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만남과 이별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새삼 전주대학교에서의 함께 시간을 보낸 선후배 교수님들과 졸업생 및 재학생들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고 싶다. 이들이 없었으면 나의 전주대학교 생활도 존재하지 않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 행사를 치른다고 한다.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한국어문학과와 천년대목 행사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의 행사에도 좋은 시와 산문들이 학과 문집을 빛내고 있고, 이제는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이 된 현장실습 과목에 우수한 콘텐츠들이 대거 출품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노력과 학과의 전통이 한데 어우러졌기에 가능한 것들이다. 앞으로도 한국어문학과는 전통을 중시하면서 모험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리하여 천년대목처럼 늘 푸르게 빛나는 학과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숙 교수님

2020년에도 가을이 익어간다.
온 인류가 코로나 전염병에 놀라
일상을 멈추고 숨죽이고 있는 동안에
거리의 나무들은 아무 일 없었던 듯
단풍을 출렁대며 계절이 오고 가고 있음을 알린다.
문득 심호흡을 해본다.
그대로일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새삼 위로가 된다.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천년대목제를 한다는 연락이다.
또 하나의 위로가 늘었다.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천년 대목들의 목소리, 몸짓들이
궁금하다.
나무에 굶은 옹이가 맺혀지는 축제이기를
기대한다.

박현진 교수님

지금이 가장 예쁠 때

“늦으셨네요. 10월 말에는 오셨어야 해요.” 인스타를 보고 찾아간 핑크 물리 명소에 들어서는데 주인아저씨가 아쉬워하며 말씀하셨다. 핑크색 풀이 자줏빛으로 변해 가장 예쁠 때를 지났다고 하신 말씀이었다. 가장 예쁠 때,

가장 예쁠 때란 정해져 있는 것일까. 채도가 조금 낮아진 갈대가 인물을 부각시키기도 하고 핫할 때를 지난 시기라 한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때론 함께 간 사람으로 갈대 색깔 같은 건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 객관적으로 가장 예쁠 때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이다. 모두 그때, 그 순간의 의미가 있고, 사실 의미는 만들어 나가는 것일지 모른다. 삶이 내미는 손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스물네 살이 아직 스물넷인지 헐, 스물넷인지는 내 보기에 달렸다.

우리는 학교를 다닌 이후 교실에서 보낸 시간이 가장 짧았던 한 해를 살았다. 고3 때와 올해는 완벽하게 대비되고 군을 제대하고 돌아온 친구들에게도 낯선 사회였을 것이다. 1교시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고 또 잘 수 있어서, 유튜브를 무한대로 볼 수 있어서, 가족과 저녁 먹는 날이 많아져서 나는 좋았을까, 답답했을까.

어떤 모양의 어떤 생각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다. 다만 배면에 있는 의미를 찾기 바란다. 그래서 뻔해 보이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만 자신만의 독특한 문양으로 기록되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

이원의 교수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작년 시청시간 통계에 따르면 10대가 주당 41시간40분, 20대가 31시간 22분이며 30,40대 경우 18시간, 14시간 그리고 50대 이상의 경우 다시 증가하여 주당 20시간 이상입니다. 저도 이런 흐름에 예외가 아니어서 기존의 TV는 치워버리고 PC나 모바일로 유튜브를 주로 보는데 어제는 그 동안 미뤄왔던 몇몇 콘텐츠들을 몰아보느라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국 여성 리쯔치가 만드는 푸드멘터리입니다. 푸드멘터리란 음식다큐멘터리를 뜻하는 합성어입니다. 제가 유독 리쯔치의 음식 콘텐츠에 매료되어 밤을 새 이유는 리쯔치가 푸드멘터리의 모차르트이기 때문입니다. 모차르트는 세기적 천재이기 때문에 별 노력 없이도 천상의 음악을 쉽게 작곡하여 살리에르를 절망하게 하였지만 리쯔치는 가히 상상하기 힘든 노력의 결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푸드멘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20대 초반, 도시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사천 성의 한 시골 고향으로 돌아와 조부모님들과 먹던 옛 음식의 재현하고자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음식재료들을 혼자 힘으로 씨 뿌리고 재배하고 수확하는 아주 고된 노동을 거쳐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이 전 과정을 수만 번의 셀프 카메라 세팅과 소품 배치, 조명, 편집 등을 거쳐 일찍이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방식의 음식 콘텐츠로 완성시킵니다. 저도 처음 그녀의 콘텐츠를 보고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정말로 혼자 그 모든 것을 했다고? 대단히 경이로웠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현재 1330만의 유튜브 구독자를 기록 중이며 그녀가 올리는 콘텐츠는 쉽게 1000만 클릭을 넘어갑니다.

리쯔치의 푸드멘터리는 한 인간의 열정이 제대로 발현될 때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콘텐츠 제작에 문외한이었던 그녀지만 수만 번의 카메라 세팅을 하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점차 모차르트의 천재적 재능에 필적할 자기터득을 한 것입니다. 리쯔치의 연출어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또한 그녀의 음식 만들기는 연출어법과 시너지효과를 내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촬영을 많아 하다 보면 화면을 구성하는 내용물들을 어떻게 위치시켜야하는지 부족한 것은 어떻게 채워야하는지 어떻게 색상을 강조하고 빛은 어디서 비쳐야 사람 마음

을 움직이는지 등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하디혼한 중국의 시골음식이 보기만 해도 황홀한, 세계 어느 셰프의 음식보다 매력적인 것으로 재탄생합니다.

올해 신입생들과 면담을 생각해보니 유독 시, 소설, 드라마 등 창작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글쓰기야 말로 다작을 통한 자기터득의 과정입니다. 모 시나리오 강사는 기존의 명작 대본을 몇 번이고 그대로 필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제가 아는 로맨스 소설작가는 하루에 일정분량의 원고를 쓰도록 자기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려 입원 중 링거를 뽑고도 글을 썼다고 합니다. 또 그 아픈 사랑니를 뽑고도 썼다고 했습니다. 리썬치의 또 다른 예입니다. 해마다 만들어지는 우리 한국어문학과 문집은 대단히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생에게는 창작의 첫 출발점이면서 글쓰기 열정의 시발점으로 또 선배학생 들에겐 글쓰기의 기본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문집의 발행을 축하하며 다음질문으로 인사말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리썬치의 열정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학생회 인사말〉

<집행부>

학회장 이대혁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2020년도 ‘우리’ 학생회 학회장 이대혁입니다.

지난겨울 찬 바람이 불던 날 2020년도 학생회의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렇게 보니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연초 3월 개강과 모꼬지(M.T.)를 준비하며 신입생 여러분들을 기다리던 때 외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했었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퍼져나갔으며, 우리들의 삶 또한 급격히 변해갔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집 밖을 나갈 수 없었으며, 사람 간 거리 두기에 따라 모임과 행사는 물론 강의마저도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전통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임과 행사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상황에 맞춰 택배 이벤트, 인스타그램 SNS 신설, 비대면 이벤트를 통해 학우 여러분께 다가가고자 했던 ‘우리’의 진심이 작게나마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다행히도 천년 대목 학술제 시기에 발간하는 문집은 전통을 이어 2020년도에 발간됩니다. 이 문집에 담긴 내용을 통해 지금의 2020년도 또한 한 페이지 역사와 추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집에 소중한 작품을 실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년간 학과에 따뜻한 애정을 가진 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도 주체는 되지 못하지만, 학과의 구성원으로 천년대목과 같은 한국어문학과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생을 잇는-선배와 후배를 잇는-학생과 스승을 잇는’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동행해준 다연, 은서, 지환, 창호, 뒤엔, 희주, 봄, 혜원, 민정, 카이, 민서, 세은, 경진, 예은, 주현, 수연, 혜림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부학회장 이다연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한국어문학과 ‘우리’ 학생회 부학회장 이다연입니다. 이번 한 해는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나요? 저에게 2020년은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돛단배 위에서의 생활처럼 막막하고, 답답하고, 외롭던 해였습니다. 생활 영역이 매우 좁아졌고, 이에 활동도 급격히 줄었으며 제약이 많아 무기력해졌습니다. 여러분의 2020년은 저와 다른 조금은 더 행복한 한 해였길 바랍니다.

사실 학우분들께 참 많이 죄송했습니다. 더 좋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누군가에겐 중요한 시간이었을 텐데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나서 1학년 학생들을 마주하니 못했던 학교생활을 즐기는 모습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마웠습니다. 비록 학교에 직접 나온 시간은 짧지만, 이번 1년이 여러분에게만큼은 아쉬움보다 내년을 더 힘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한국어문학과에는 올해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 모든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학과에는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올해에는 그것을 느낄 수 있던 기회가 많이 적었던 것 같아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꼭! 대면 수업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준비하던 행사가 하나둘 취소되면서, 무력감도 느끼고 길도 헤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격려해주시고, 믿어주셔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조교 선생님이신 소연 선생님!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처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늘 감사했고, 내년에는 더 자주 얼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회 친구들. 먼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족한 저를 채워주었던 학회장 대혁이, 졸업하더라도 뭐든 잘할 거라 믿어. 네가 그 자리에 있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생회 친구들이 다 잘 따라와 준 거라고 생각해.

1년 동안 수고 많았고, 네가 있어서 다행이었어. 고마웠어! 그리고 총무 은서, 은서가 총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랑 대혁이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1년 남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네. 앞으로 하려던 일 다 잘될 거라 믿어. 은서는 무엇이든 그걸 바라보는 태도가 진지해서 멋있다고 생각했어. 총무 일도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웠어.

다음으로는 기획부 친구들, 지환이, 봄이, 민서. 많이 고민했을 텐데 학생회가 되어준다고 해서 고마웠어. 비록 함께 일한 날이 많진 않지만, 즐거웠어. 그래서 더 아쉬워. 정말 1년을 채워줬다면 훨씬 즐거웠을 거라고 생각해.

다음은 홍보부 친구들, 희주, 주현이, 수연이. 희주는 부장으로서 너무 수고 많았어. 주현이와 수연이도 처음이어서 잘 모르고, 학교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서 더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았어. 사실 희주랑 만날 때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 1학년 친구들 반응이나 잘 지내는지. 다행히 앞에서도 잘 이끌고 뒤에서도 잘 받쳐주는 것 같아서 기뻐. 1년 동안 참 많이 고마웠어.

문화복지부 친구들, 창호, 예은이, 경진이. 창호도 부장으로서 수고 많았어. 예은이 경진이도 무엇이랴도 해보고 싶어서 학생회에 들어왔을 텐데 그럴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미안해. 아쉬운 게 많은 한 해지만 항상 고마웠어.

교류부 뒤편 언니, 카이, 혜원이. 유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번엔 생겼는데 결국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워. 그래도 함께한다고 해서 기뻐고, 끝까지 함께해줘서 고마웠어.

학년 대표 민정이, 세은이. 늘 주말이더라도, 공지를 전달해줘서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어. 답이 돌아오지 않는 연락을 하면서 마음이 마냥 좋진 않았을 텐데, 너무 고생 많았고 내년에도 잘 지내자. 1학년 대표 혜림이, 상황 탓에 함께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늦게 들어와서 어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을 텐데 충분히 잘 해줘서 고마워.

말했던 모두 앞으로의 날들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프지 말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길 바랄게.

그리고 우리 정연이. 1년 동안 얼굴 본 게 손에 꼽네. 근데 정말 정연이는 오랜만에 보더라도 어제 본 것처럼 편한 동생이야. 그래서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이제 학교생활 1년 남았는데 남은 1년 잘 보내서 서로 원하는 일 꼭 이루자. 항상 못난 언니 신경 써주고, 챙겨줘서 고맙고, 사랑해. 빨리 이 상황이 끝나고 얼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보고 싶어.

. . ´-“(>_<)´-“ . .

총무 한은서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우리’ 학생회 총무 18학번 한은서입니다. 애
기치 못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여러분과 좀 더 마주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쉬운 나날입니다. 이번 학생회는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웃
는 모습을 기대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음에 죄송하다고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더 좋은 걸 더 많이 하고 싶었지만 계속 미루어지는 등교에
저희 또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방역을 위한 노력 덕에 늦
게나마 선택적 대면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과 교수님들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학생들’
생각만 하시는 교수님들 덕분에 그나마 올 해 학교 생활이 더욱 풍성했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여러분, 대학교 캠퍼스에 대해 많은 기대하고 왔으리라 생각하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1년 동안 또 힘들게 공부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
학년부터 다시 이어질 여러분의 대학 생활은 올해를 떠올리기가 무섭게 즐
거울 것이라고 감히 장담해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학년 여러분, 이제 학교 1년 다니고 전공 배울까 하는데 이런 국면을 맞
아 많이 힘들었지요, 그래도 곳곳이 학교 다니고 할 일도 잘 해줘서 고맙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학년 여러분, 고학년의 첫발을 제대로 디디지도 못했는데 벌써 4학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사태가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각자 나름대
로 의미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전히 묵묵하게 자리 지켜주시
는 우리 동기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4학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걸음이 쉼쉴하지 않았다고 자신합니
다. 4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학과를 위해, 그리고 각자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은 필히 꽃길일 것입니다. 그 꽃이 언제 보일지
모르더라도 계속해서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 한 해 또한 여러분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말 못할 피해들을 가져왔지만 그렇다고 2020년이 그냥저
냥 흘러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기를
바라며 짧은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부>

기획부장 정지환

안녕하세요. 2020년도 ‘우리’ 학생회에서 기획부장을 맡은 15학번 정지환입니다. 하고싶은 일들을 다 하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벌써 우리 학과의 가장 큰 행사이자 어찌 보면 마지막 행사인 학술제의 인사말을 쓰게 되니 이상하네요. 지난 1년동안 학회장 부학회장이 고생해준 덕분에 큰 탈 없이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먼저 기획부 친구들에게.

우선 봄이, 한참 바쁠 시기일 텐데 우리 믿고 함께 일 하겠다고 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 그래도 바쁜 티 내지 않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재밌게 말 해준 덕분에 기획부 일 하는데 짜증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항상 이야기가 어디로 새는 일 없게 중심을 잡아주는,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줘서 대단한 친구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 학교 생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하고 싶은 일 모두 잘 됐으면 좋겠고, 무사히 졸업했으면 좋겠다. 항상 안보이는 곳에서도 응원할 게.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불편할 법도 한데 그런 내색없이 장난 많이 쳐준 민서. 항상 특유의 목소리로 부장님이라고 말 하는게 이름 불리는 것보다 익숙해졌는데 그걸 못 듣는다고 생각하니 좀 아쉽네. 일 할 때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때 깜짝 놀라곤 했어. 역시 젊은 게 좋아 그지? 이제 너도 내년에 3학년이 되니까 좀 더 욕심내서 하고싶은 거 하면서 학교 다녔으면 좋겠다. 바쁘게 생활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속에서 너가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잘 지냈으면 해.

둘 다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내 마지막 학년이 좀 더 의미 있는 생활이 된 것 같아. 이런 말을 낮간지러워서 잘 못하는 편인데 내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끝나기 전에 회식 한 번 하자!

한국어문학과 사람들에게.

제가 1학년 OT에 갔을 때, 이숙교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우리들의 지도교수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각자 이 과에 오게 된 이유, 이 학교를 다니며 배우고 싶은 것, 너가 하고싶은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 때 책을 읽는 것이 좋아서 이 학과를 오게 되었고, 내가 하고싶은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며 그 답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숙교수님이 한 3가지의 질문이 제 대학 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찾을 수 있었

습니다. 여러분도 남은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기까지 있어서 이끌어주는 이정표와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연금술사>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네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저도, 여러분도 하고싶은 것을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부차장 윤 봄

안녕하세요. 2020 ‘우리’ 학생회, 기획부 차장 윤 봄입니다.

벌써 한 해가 가고 손끝이 시린 계절이 왔습니다. 저의 마지막 학생회 활동도 이렇게 끝나가네요. 학우님들을 위해 행사를 준비하고 과방을 열심히 꾸미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행사를 진행해야 학우님들이 좋아할까?’ 매일 고민했던 학기 초였습니다. 학우님들을 위한 열정을 표출할 수 없었던 ‘우리’, 선배님과 직접 만나고 교류할 수 없었던 새내기 친구들. 모두 아쉬운 해였던 것 같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활기찬 교정과 그 속에서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막내 기획부차장 민서! 네가 벌써 3학년이라니 나한테는 아직도 새내기야..! (네 기준) 늙은이들이랑 어색함 없이 장난도 치고 열심히 일 해줘서 너무 고맙고 기특해~ 내년엔 더 멋진 선배가 되자구~

기획부장 정지환! 아이디어 형설수설 폭탄으로 내도 알아서 딱딱 문서로 잘 정리해서 전달해주는 것 보고 우리 진짜 쿵짝이 잘 맞는다 생각했다! 툭툭 말 던지고 선배취급 안 해줘서 서운했을 거 다 알아~ 다 친해서 그런 거 알지? 한 번 기획부는 영원한 기획부! 종강하고 회식하자! 그리고 LT에 진심인 우리 학생회 모두 내년은 나쁜 일이 없는 한 해 보냅시다. 해피해피 국문과~
ㄱ(ˊ) ㄴ (ˊ) ㄷ (ˊ) ㄹ (ˊ) ㅁ (ˊ) ㅂ (ˊ) ㅅ (ˊ) ㅇ (ˊ) ㅈ (ˊ) ㅊ (ˊ) ㅋ (ˊ) ㆁ (ˊ) ㄷ (ˊ) ㄹ (ˊ) ㅁ (ˊ) ㅂ (ˊ) ㅅ (ˊ) ㅇ (ˊ) ㅈ (ˊ) ㅊ (ˊ) ㅋ (ˊ) ㆁ (ˊ)

기획부원 송민서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회 기획부원 19학번 송민서 입니다. 올 해는 코로

나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다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이번에 처음으로 화상 수업도 해보고, 화상 회의도 해보고 개강 총회도 온라인으로 준비하면서 제법 여러가지 경험들을 새롭게 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뜻 깊은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로 다들 힘들시고 지치실텐데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셔서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는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활동을 하면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뵈어요!

<홍보부>

홍보부장 조희주

안녕하세요, 20학년도 한국어문학과 ‘우리’ 학생회 홍보부장을 맡은 19학번 조희주입니다. 이 인사와 함께 홍보부장 일을 시작한 게 엿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라는 뜻밖의 변수와 함께 시작한 2020. 여러분의 2020년도는 어떤 한 해였나요?

저에게 2020년도는 계획한 일들도 많이 무산되고, 신입생 학우분들과 재학생 학우분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였기도 했지만, 이런 아쉬운 상황을 통해서 얻은 경험으로 부정적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헤쳐나갈 수 있는 통찰력과 판단력을 얻은 것 같아 좋았습니다.

설렘과 동시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한 홍보부장 직책을 항상 격려와 칭찬으로 함께 해준 학회장님과 부학회장님, 코로나로 인해 부원 뽑는 일도 미뤄져 부원들이 없이 혼자 끙끙거리며 일 처리를 하고 있을 때 옆에서 항상 많은 도움을 준 총무님, 기획부장님, 문화·복지부장님, 교류부장님 그리고 기획부원님들, 교류부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1년을 마무리하는 아직까지도 홍보부장 일을 잘 해내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많이 서툴고, 부족한 부장을 믿고 따라준 홍보부원들, 수연이와 주현이에게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1학년 친구들이 낯선 학교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쁠까봐 혼자서 일 처리 했던 적도 있었는

데, 그때마다 먼저 나서서 도움이 필요하면 뭐든지 말하라는 부원들 덕분에 많이 든든했고,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생회를 하게 되었는데, 2년간 학생회 활동을 하며 새로운 인연들을 많이 만들어나가 좋았고, 좋은 선배들 밑에서 부족한 점도 많이 채우고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활동을 하며 얻은 책임감, 협동등 많은 경험과 추억을 안고 남은 학과 생활도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조금 더 성숙한 태도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것만 같아 좋은 경험과 추억과 함께한 후회 없는 학생회 활동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학과 생활과 학생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과 조교님께도 감사 인사드리며, 다가오는 2021년에는 더욱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한국어문학과 학생회도... 특히 홍보부장님도... 파이팅...!

홍보부원 표수연

안녕하세요. 한국어문학과 ‘우리’ 학생회의 홍보부 부원 20학번 표수연입니다. 이번 한 해는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불청객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는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개강 첫 날 설레는 마음으로 옷장에서 새 옷을 꺼내는 대신 캠에 보이는 잠옷을 가리기 위해 겹옷을 대충 걸치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옆에 앉은 동기에게 첫 인사를 건네는 대신 그저 메신저 프로필로 동기들의 이름과 얼굴을 익혀야 했습니다. 그래도 뒤늦게라도 늦가을의 시작에 액정 너머로만 보던 얼굴들을 만나러 학교에 나갈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학생회 활동을 포함한 학과 행사, 학교 행사에 많이 참여하지 못한 점이 무척이나 아쉽지만, 열게 지나온 시간보다 한국어문학과에 발을 담그고 있을 시간이 더욱 많기에 앞으로의 시간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문학과 동기들, 선배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의 소중한 글자들과 ‘우리’ 학생회의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모여 이렇게 빛나는 문집이 되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어루만지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부원 진주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문학과 학생회 홍보부원 20학번 진주현입니다.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했던 새내기의 설렘으로 시작했던 한 해를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쉬움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었습니다.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늦게 시작한 터라 이 한 해가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거 같습니다.

학생회로 활동한 짧은 시간이 더욱 아쉽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알려주고 도움을 주신 학생회 선배님들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좋은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이 계신 과에 잘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꺼워진 겉옷에 건강 조심하시고 안온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

<문화·복지부>

문화·복지부장 박창호

안녕하세요! 한국어문학과 학생 여러분 작년엔 이어 올해에도 문화·복지부 부장으로 인사드리는 17학번 박창호입니다. (☺´ ˘´☺)

올해는 정말이지 너무 시간이 빠르게 흐른 것 같아요.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내다 보니까 벌써 종강이 가까워지네요. 저는 제가 아직도 4학년인 게 믿기지 않는데 어느새 졸업을 준비하고 있다니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커요. (T_T)

제일 아쉬운 마음이 큰 건 20학번 신입생 친구들일 텐데 이제 시작이니까 올해 못 즐겼던 대학 생활은 내년에 2배로 즐겨야겠네요.

사실 이번 연도는 학생회가 활동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인사말도 뭐라고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올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깐 남은 학기 더욱더 즐겁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한국어문학과 학생회 친구들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세요.

(●' ˘ '●)

2020년 11월 문화·복지부 부장 박창호 씀

.문화·복지부원 양예은

안녕하세요. 2020년 한국어문학과 학생회 문화부원 양예은입니다. 벚꽃과 함께하는 캠퍼스를 꿈꾸고 입학했지만 여기저기 떨어진 은행을 피하며 첫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학생회 면접을 본 게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코로나에게 빼앗긴 시간과 경험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도 강의실에서 첫 대면 수업을 듣고 동기들과 떼거리로 몰려가 학식을 먹고 다니 대학생이 된 기분이 듭니다. 1학년이라는 이유로 어리숙하게 굴 수 있는 시간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잊지 못할 경험과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많은 조언과 도움을 준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내년은 모두에게 더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복지부원 마경진

안녕하세요. 한국어문학과 학우님들, 교수님들. 저는 문화 복지부 부원 20학번 마경진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따뜻한 봄에 학교를 처음 왔었는데 어느새 쌀쌀해진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시작하게 된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흐르고 지금은 학술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과 선배님들, 동기들과 많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학생회 활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다양했던 학과 행사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학과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인 저로서도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남은 학술제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 노력하고 이번 학기에는 학우 여러분들과 많은 것을 함께 하지 못했지만 하루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던 대학생활을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모두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류부>

교류부장 팜티뒤엔

안녕하세요! 20년도 한국어문학과 ‘우리’ 학생회의 교류부장을 맡은 17

학번 팜티뒤엔입니다. 나는 베트남 유학생인데 그나저나 전주대학교 입학한 게 거의 4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동안 재미있고, 즐거운 날들과 기억들이 많아서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아직은 서툰고 부족한 저를 앞서 이끌어주신 한국친구들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우리 학과 유학생 친구들과 한국친구들은 재미있게 연결하기위해 ‘우리’ 학생회 교류부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학우 분들을 못 만나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럼 후회 없이 1년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 성숙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교류부원 짬반카이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한국어문학과 짬반카이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 한국어문학과 학생회에서 교류부원 담당자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류부원 윤혜원

안녕하세요. 교류부원을 맡은 18학번 윤혜원입니다.

임기가 시작될때만 해도 유학생들과 자주 만날 수 있을줄 알았는데 결국 1년동안 얼굴 한번 못보고 마무리 하는게 정말 아쉬워요.

교류부원으로서 유학생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해요

하루빨리 캠퍼스에서 마스크를 벗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1년동안 학생회 여러분도 고생 많았고,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년 대표>

1학년 대표 최혜림

안녕하세요. 20학번 1과대 최혜림입니다.

입학하여 대면으로 동기들과 교수님을 만나 뵈는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려니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과대라는 직책이 많이 부담스러운 자리인 줄 알고 있음에도 해보고자 하는 저의 도전을 친구들이 믿고 맡겨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대 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과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회에 들어오면서 학생회 친구들이 학우 분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도 과대 역할을 잘 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제가 해야 할 일을 잘 마무리하고, 친구들과 조금이라도 재밌는 추억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종강까지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대표 박세은

안녕하세요 2학년 학년대표 박세은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나서서 임원하는 것을 좋아했고 뭔가에 참여하는 것 역시 좋아했던 저는 이번 2020년 2학년 학년대표에 임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첫 임원활동을 해보는지라 올 초에 매우 설렘있고 떨렸던 감정이 컸던 거 같습니다

허나 들떠있던 감정은 뒤로, 코로나19가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학우분들과 함께 얼굴을 보며 소통하지 못함과

봄에 진리관 앞에서의 벚꽃 구경

여름에 워터밤 축제

가을에 학우분들과의 현장실습을 하지 못함에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도 나중에는 우리 그 때 그래도 새로운 경험도 했었지 하며 학우분들과 웃으며 회상하는 시간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올 해는 과 학우분들 선배님들 후배님들을 직접 뵈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지만

이번 천년대목 학술제를 통해 다 같이 볼 수 있음을 생각하니 너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

3학년 대표 고민정

안녕하세요! 2020년도 3학년 대표를 맡은 고민정입니다. 1년을 함께하고 있을 ‘우리’를 그렸지만, 코로나라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아쉬움과 동시에 우리는 이 시국을 잘 이겨낼 거라는 말을 전해 봅니다. 마스크로 벗어나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제2부

<운문>

이대혁

<작품 순서>

『잔 물 곁』

『가장 쉬운 일』

『길』

잔 물 결

사람들의 기다림 속에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 들어온다

강렬히 마음에 닿아
하얀 보석으로 반짝거리네

거대한 파도의 잔상에 그저
뒤따라 가는 잔물결

언제나 닿는 곳에서
당신께로 흘러가네

가장 쉬운 일

어제와 오늘의 경계가
허물어 갈 때면

저는 벚꽃을 피워내겠습니다

꽃을 틔우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 피워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잠시라도 좋으니
내일이 되지 못한 오늘에
시선을 머물러 주신다면

비를 내려 회색빛 세상을
분홍의 빛으로 덮어내겠습니다

다시 벚꽃을 피워내겠습니다
가장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길

매일 걷는 이 길위에
나의 시선을 내려둡니다.

웁푼 패인 아스팔트
이 빠진 벽돌
벗겨진 페인트가

오늘따라 왜 눈에
들어오는지요

친구들과 뛰어 놀았고
학원 가는 길이었고
연인과 함께 걸은 길

매일 같은 길이라 여기며
무심코 지나치던 길이

나와 함께 걸어갑니다

하정연

<작품 순서>

『시련』

『인생의 빛』

『소중함』

시련

강한 비바람과 돌풍을 견딘 꽃과 나무가
가장 강하다고 하였다

네 인생에 지금 부는 강한 비바람과 돌풍도
언젠간 지나갈,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존재다

어디서 그런 글을 보았다
인생은 사계절과 같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

그 비바람과 돌풍을 잘 견뎌낸다면
너는 그 누구보다 강한 존재가 되어있을 거다

그러니 지금은 네 인생에 강한 비바람과 돌풍이 불어도
계절이 바뀌듯, 시간이 흐르듯 언젠간 지나가겠지 생각하며
마음에 깊게 담아두지 말고 견뎌낸다면

그 어떤 시련이 다시 너에게 찾아와도
그 시련은 너에게 강한 비바람과 돌풍이 아니라
선선하게 부는 바람일 거다

인생의 빛

낮의 하늘에서는 해가 가장 쨍쨍하고
달과 별은 빛나지 않는다

밤 하늘에서는 달과 별이 가장 빛나고
해는 쨍쨍하지 않는다

낮에는 해가 쨍쨍하고 밤에는 달과 별이 빛나는
각각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이 있는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빛날 때가 있으면 빛나지 않는 때도 있다
빛나지 않는다고 멈추지 않고
빛나기 위해 빛을 향해 걸어간다면
언젠간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그러니 언젠가 반드시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될 것이다
눈이 부시게

소중함

소중하다는 것은
언젠가 무너지는 그런 감정
금세 익숙해져서
소중한지 모르게 되는
그런 감정

그러다가 꼭
잃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감정

왜 소중한 감정은 익숙해지는 걸까
아니, 애초에 모든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익숙해지는 걸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나 보다
영원했으면 하는 마음은 욕심인 걸까
헛된 희망인 걸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모든 것들은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애초에 불가능한 바람인 걸까

처음 느낀 감정 그대로
평생을 갖고 살 수 있다면
난 무엇을 선택할까

윤희원

<작품 순서>

『그 공간』

『변덕쟁이』

『22살 청춘』

그 공간

힘들 때마다
올려다본다
저 높은 곳
내가 갈 수 없는
검은색 공간

생각이 많아지면
올려다본다
저 반짝이는 곳
내가 가고 싶은
노란색 공간

기분이 좋아지면
올려다본다
저 밝게 빛나는 곳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밤하늘 공간

변덕쟁이

내 친구는 하루에
수십 번 수천 번
오락가락해요

기분이 좋을 때는 새하얗다가
기분이 우울해지면
시커멓게 변해요

나랑 잘 놀다가도
화가 나면 나도 위험해져요

날씨가 추워지면
하늘에서 하얀 선물을 내려주기도 하고
날씨가 습하면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내 친구 이름은 구름이에요.

22살 청춘

흐른다
나도 모르게
하나
둘
셀 수 없이
눈물이

흐른다
나도 모르게
하나
둘
셀 수 없이
시간이

흐른다
나도 모르게
하나
둘
끊임없이
나이가

어느덧 22살의 끝자락
남은 시간은
후회 없이 보내자

고민정

<작품 순서>

『첫 여행:겨울 바다』

『바람 향기』

『가을에게 부리는 투정』

첫 여행:겨울 바다

나의 첫 여행.

그때의 설레임은 스무살이 넘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지나온 계절 앞에서 다시 그때 그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
혹시 그 감정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서
그게 바보 같은 짓인지 알면서도 그냥 바보가 되기로 했다.

그 순간을 기다리는 그곳에서 수많은 추억들이 날 지나쳤다.
겨울 동해 바다의 찬 모습, 나와 떠난 설레는 첫 여행.
추운 날씨 탓에 짱짱 얼어붙은 나의 손과 볼.
어둡게 몰려오는 파도를 피하려는 너의 뒤통수.
단단히 화가 난 바람에 못 이기고 쓰게 된 빵 모자.

나는 계절이 56번이나 바뀌고 나서야 깨달았다.
첫 번째 여행은 지나온 나의 계절 안에서 녹았다.

바람 향기

이틀째 비가 쏟아진다.

스며드는 바람이 코끝을 스치길래
일부러 모른 척 창문을 열고서 단잠에 들었다.
조금 상큼하다.

꿈속에 있는 나에게 인사를 하고 싶은 건지
힘차게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새벽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허겁지겁 닫았다.

이미 내 옆으로 들어온 비의 모습이 선명하여
일찍 좀 단을 걸 후회해보지만
바람이 향기로웠으니 뭐.
하마터면 빠질 뻔한 생각을 이불 삼아 덮고
난 다시 잠에 빠지려 노력한다.

가을에게 부리는 투정

여름

내내 자신의 짝을 찾던 매미는 멀리 떠나고
구슬픈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하는 계절이 곁에 있다.
살갗에 살짝 찬듯한 공기가 스쳐,
여름 내 등한시하던 이불을 끌어당겨본다.

온갖

알 수 없는 투정으로 내가 가득 차더라도
이불은 너는 나를 온전히 나로 이해해 준다.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괜찮다고, 나에게 모두 털어도 좋다고.

한은서

<작품 순서>

『이른 월광』

『초라한 마음을 고이 접어』

『마루에 걸터앉은』

『그새』

『대가』

『잔회(殘懷)』

이른 월광

서너 시에 뜨는 달 같이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우물쭈물 발만 동동 구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애절하고 예쁘기만 하여라.

푸른 하늘에 때 이르게
피어난 작은 달이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더욱 그 형태를 선명히 드러내소만
그대만 이를 모르는구려.

그대와 똑같은 저것이
어쩌면 당신보다 연하다는 것을
세상천지보다 모르는구려.

어여쁜 발걸음을 재촉해
달을 좇아 종종 가시오.
그가 당신을 더욱 시샘하는 밤이
오늘이렸다.

초라한 마음을 고이 접어

그렇게 여리지만 억센 마음 가다듬으면
모른 체라도 할 줄 아셨습니까.
가득한 척하는 안타까운 마음 꼭꼭 접어두면
모르겠거니 하셨습니까.

모른 체 할 수 없지만 모른 체 하렵니다.

당신 앞에 두고 간 내 마음이 아리어
그 짧지도 길지도 않은 마음이 잘리어
그를 위해서라도 모른 체 하렵니다.
그러니 당신도 어여 아픈 눈살을 거두어 가십시오.

마음을 두고 갈 때의 따스함만은 간직하렵니다.
당신도 그 작은 기억 마음 한켠에 넣어 두고
따뜻한 터의 미소가 그리울 때면
펼쳐 놓아 그 속에서나마 여린 얼굴 드러내십시오.

영원한 그릇은 깨지지 않지요.
파편이 제 자리를 찾아 더 이상의 무엇도 없을 때까지
그 때까지는 당신의 한 구석에서 켜켜이 먼지가 쌓이도록 하십시오.
기침이 나더라도 먼지가 둘러싼 향은 당신을 어루만질 터이니.

마루에 걸터앉은

애리다, 애려.

속삭이듯 한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 바라보는 내 얼굴이 우스웠는지
엷은 미소로 운을 띄우던 그림자.

아그, 오늘은 안 나가려는겨?
새삼스럽게...
폭폭시럽기도 할거이. 일이 그란디두
호백씨만 까든 꼴잉게.

말문이 막혔는지 목이 막혔는지
알 턱은 없었다.

작게 오물쑈물 놀리던 입은 어디로 가매
앉아있는 자리에는 조용한 그림자만이.
홀연히 애린 가슴만이.

그새

창밖으로 슬며시 고개를 내민
너의 입바람이
하얗게 두드린다.

도드라진 창틀 위로
요망하게도
내려앉는다.

시큰함과 욕신거림
그 사이로
짐작이나 하려나.

새벽녘과 같이
외따로이
저미일 새, 그저
알다가도 모르는 듯
교활한 걸음을 걸어라.

대가

생각의 깊이는
그 깊이만큼의 상처를 새기고

마음의 크기는
그 크기만큼의 명을 들이며

행동의 밝기는
그 명도만큼 눈을 멀게 한다.

잔회(殘懷)

아비를 잃고 구슬피 우는 저 아이는
여전히 서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는다.
저 아이의 생기 잃은 얼굴이
골목길 한산한 저녁 아래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혼(魂)과 같음이라.
그 섬뜩하고 애처로운 아름다움은
폐가에 가도, 법당에 가도 알 수 없다.
어찌 우느냐.
아비가 남기고 떠난 편지에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지라
그리움에 하염없이 곡읍(哭泣) 하나이다.
그 연유(緣由)가 무엇이나.
딸을 홀로 남겨두는 아비의 슬픔이 하늘보다 높으리오까마는
그 서러움과 죄스러움은 가히 하늘을 면전에 두더이다.
본디 아비와 부녀의 연을 끊어내려 하였사온데,
거둘 수 없는 사랑이 끝끝내 붙잡더이다.
허나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설검(舌劍)과 냉안(冷眼)으로 흥만을
새겼나이다.
너는 거둘 수 없는 사랑이 너를 붙잡는다고 하였다.
아비는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이라, 너와 그 마음을 품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니 참회와 슬픔은 아비 주고, 너는 희(喜)와 애(愛)만 가득하여라.
내 딸아,

김소망

〈작품 순서〉

『그대가 보내는 비』

『너울』

『당신이 흘리고 간 것』

『무산(霧散)』

『불면(不眠)』

그대가 보내는 비

덜그럭거리던 플라스틱 처마는
장대비와 바람을 견디지 못한 어느 날,
인사도 없이 정 없게 덜쩍 떠나버렸습니다

나무들만 남은 지붕 언저리는 처마 아닌 처마였기에
마음 아닌 내 마음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드센 비는 없어진 처마 덕에 창문 바로 앞
시멘트 바닥을 파먹을 듯 속도를 올려 제 몸을 던졌고
처마 없는 내 마음에도 폭우가 세차게 박혔습니다

홍조를 어루만지고 스쳐 지나가는 짧은 바람에도
곧잘 당신과 마주하던 나였으며

유난히 아련한 초승달의 배를 찌르고 지난 전선에도
곧잘 당신을 떠올리던 나였습니다

하나 당신이 전한 마음은 너무도 소중한기에
시간이 많어도 걸렸지만, 나는 이제
당신이 보내는 비에 마음이 젖어도 아랑곳 안 합니다

너울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은 곧장 누구 하나
집어삼킬 것처럼 쉽 없이 너울진다고 생각했고
댁의 아버지 어머니의 일생도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도 울렁거린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나는 그 너울을 동반하며
당신들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셨고
나를 이 너울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싶어 하셨고
너울이 내 입가에서 넘실거릴 때면
어머니는 겁에 질려 중심을 잃으셨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을 두고
찬연하게 너울진다고 표현했는데,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 인생의 너울이 찬연할 뿐이지
아버지 어머니가 그 너울에 진 것은 아니라고.

당신이 흘리고 간 것

나는 당신이 떠날 적

흘리고 간 별 한 점 주워

배를 풍족하게 하고

맘도 온하게 덥히고

말끔히 세안도 하고

발이 차 잠이 안 올 때면

발에도 끼웠다가

당신이 헤집어준 꿈에

걸어 놓았습니다

당신은,
돌아오지 않으려나 봅니다

무산(霧散)

텅텅하지만 꼬순 팔 송편 하나 집어 먹으니
고픈지도 모르고 있던 배가 구르릉- 하고
설운 울음을 터뜨린다 두 개 더 집어 먹다,
욕심이 생겨 하나 더 먹을까 갈망하고
그런 욕심에 질려 다 게워내 버릴까 고민을 한다

그리고 지난 밤엔 한 가정의 걸음을 책임지던
두 발 또는 다리근육 따위의 것이
끌려간 것인지 도망간 것인지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몇 년 만에 여섯 눈이 나눈
헤벌쭙한 약속도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다

여기서는 하루아침에 그렇지 않을 것 같던
많은 것이 저 멀리 본디의 집으로 돌아가고는 한다

불면(不眠)

몇 초마다 한 번씩 맥아리 없이
픽, 픽 꺼지는 욕실의 순간온수기

가스도 많고 건전지의 문제도 아닌데
무엇이 고픈지 그렇게 골골 앓는다

배는 부르는데 마음이 허전한 내 새벽도
그렇게 맥없이 쓰러져가는데

그러다 난데없이 촛불이 내 밤을 밝히고
그럼 난 결말 없는, 거꾸로 달리는 차에 올라탄다

손톱은 머리를 깎여 키가 줄어들고
검은 머리칼은 희게 물이 들며
마음은 날날이 파헤쳐져 발가벗겨진다

한참을 그러다 껌뻑, 껌뻑 촛불의 명이 다해가고
그럼 난 타고 있는 차의 시동을 끈다

남은 내리막길을 마저 굴러가다,
소란스러운 공기 속에서 그제야
하루를 끝내는 여행을 떠날 채비를 마친다

조희주

<작품 순서>

『어둠』

『안녕을 고하다』

『파도』

어둠

나는 이 어둠 속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풍기는 향으로
오늘은 누구와 만났는지 알 수 있고

당신의 걸음걸이로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서
다정함을 느낄 수 있고,

당신의 손짓 하나로
나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있지만

당신의 표정을,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것이

이 어둠보다 더 두렵습니다.

안녕을 고하다

고장 나버린 벽시계
차마 넘어가지 못한 그 날의 달력

수북이 쌓여있는 약봉지
옷장 깊숙이 꼬깃꼬깃 모아둔 돈뭉치

아직도 이불 안 남아있는 당신의 온기
그 속에 코를 박고 누우면
아직도 느낄 수 있는 당신의 잔향

검은 액자 앞 놓여있는
쓸쓸한 국화꽃 한 송이

파도

섬집아기 속 아이를 재워주던
파도의 자장가 그 이면 속에는

아이가 그 달콤한 자장가 속에서 잠이 들지 않길,
아이가 그 파도의 두 얼굴에 속지 않길,
목이 찢어져라 아이의 이름을 울부짖는
그 어미의 목소리가 숨겨져 있었으리라.

박연순

『그리움』

그리움

곱게 물든 단풍잎을
그대의 가슴에
뿌려주고 싶습니다.

저녁노을이 떨어지는
거리를 그대와 함께
거닐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뒹구는
거리를 당신과 함께
구르고 싶습니다.

가을은
한 장의 울림을 남기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도연

<작품 순서>

『마법』

『믿음』

『습관』

마법

항상 좋은 날만 있을리는 없다
분명히 나쁜일도 있고
좋은 날도 있다

하지만 나쁜날이 꼭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쁜 날의 어느 순간도 분명히 웃었으며
가슴을 울릴만한
아니, 적어도 미소를 지을만한 순간은 있었을 것이다

살다보면 분명히 나쁜일이 있다
그렇지만 나쁘다고 생각했던 순간도
미소를 지었던 순간도 있고,
좋았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고,
조금이나마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기쁜 일을 찾아 헤메라는 게 아니다
당신의 하루가
꼭 나쁜일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그마한
마법의 주문

믿음

자신이 없을 때
용기가 안날 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거짓을 고하게 된다

꼭 자신감에 차있어야 할까
꼭 용기가 있어야 할까
꼭 확신이 있어야 할까

인생에 있어서 진실만이 필요할까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다양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래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자신만을 믿으면 되는 게 아닐까

이말에서도 자신도, 용기도, 확신도 없지만
그냥 그럴 것이라는
믿음

습관

하늘을 올려다본다.
올려다 볼때마다 달라져있는 하늘.
하늘은 신비한 느낌을 준다.

어느때는 붉으스름 했다가
어느때는 올려다볼 수도 없을 만큼 눈부셨다가
어느때는 푸르렀다가
어느때는 캄캄한 어둠 속이었다가

하늘은 참 신비한 느낌을 준다
그 속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것은
미약하게 떠있는 작은 별빛이 떠있는 날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는 건 언제부터였을까
어느 SNS에서 본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은
맑은 사람이라고 하여서 그걸 의식한 것일까
혹은 이제는 몸에 밴걸까

이제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
익숙해져버린 맑은 하늘
하늘을 올려다보는 습관

김현진

<작품 순서>

『무채색』

『잃어버린』

『저녁노을』

무채색

무채색

색상이나 채도는 없고
명도의 차이만을 가지는 색

나의 원색의 개성을 잃은 채
무채색의 사람들을 쫓다가
이미 나 자체가 되어버렸다

다시 나의 색을 찾으려 노력해도
이미 익숙해진 터라
다시 무채색으로 되돌아오고 만다

나를 지우고 남들을 따라가려다
정작 색을 지우고
빛을 잃은 나의 색

잃어버린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남은 시간을 뒷사람을 위해
양보하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준
학생의 가방을
자신의 다리위에
올리라고 말해주는 것

도시락을 못가져온 친구에게
같이 먹을까
말한마디 건내는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정’ 한글자겠지만
그 한글자 안에는
많은 것이 뒤섞여있을 것이다

저녁노을

노을이 예쁘게 지는
저녁이면
꽤 많은 것들이 떠오른다

먼저 간 아내를 생각하며
투박한 손으로
아내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쓰다듬는
할아버지의 손길

어렵게 얻은 딸의
첫 뒤집기를 축하하는
초보 부부의 웃음소리

놀이공원에서 집에 갈 때
주차장까지 마중나오는
놀이공원의 테마곡과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분위기

모두 떠올리는 건 다르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소중한 기억일테니까

최혜림

<작품 순서>

『행복』

『꿈』

『우리 언니』

『과정』

행복

누군가를 위해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누군가 나로 인해
행복을 느낀다면
그 사람을 위해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 행복을 주고 싶다

나한테는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큰 행복이니까

꿈

욕심 많던 나의 10대
하나 얻고 또 하나 얻어가려
아등바등 살아왔던 시절
돌아보면 힘들었을 그 시절
그래야만 많은 행복을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는
힘들게 쥐어짜서 만든 행복이 아닌
적당히 포기해가며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행복만을 누리며 살기를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만 담기에도
흘러가는 시간은 짧다는 것을 느끼며 살기를 꿈꾸게 되었다

우리 언니

첫째라는 이유만으로
장녀의 부담감을 안게 되고

언니라는 이유만으로
동생들 대신해서 꾸중을 듣고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안의 경제적 고민을 나누게 되었다

힘들지만 항상 가족 앞에선
밝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 언니

동생들이 까불고 장난을 쳐도
같이 맞장구쳐주는 우리 언니

고민이 있을 때나 심심할 때
튼튼한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언니

어려서나 지금이나
고맙고 소중한 우리 언니

과정

모르는 사람을 만나
함께 한다는 것은 어렵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
맞춰 나간다는 것은 어렵다

끝나지 않는 2인 3각처럼
한 발 한 발 같이 나아간다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친구 그리고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모르는 사람을 만나
함께 지내며 알아가고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
맞춰 나가며 공통점을 찾게 되고

끝나지 않는 2인 3각처럼
서로의 버팀목과 의지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친구 그리고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박예슬

<작품 순서>

『시월삼십일일』

『거대한 착한 사다리 기둥』

『두 아이』

시월삼십일일

나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거리를 걷는다. 항상 바닥을 보고 걷는다. 어느 날 문득 시선을 바닥에서 하늘로 올렸다. 우연히 마주한 아침 하늘은 한 마디로, 상쾌하였다. 그 후 내가 걸어가는 이 거리 위에 선 나무들을 슬쩍 바라보았다. 푸릇푸릇하던 나뭇잎이 이제는 붉게 물들었다. 불긋한 나무, 푸릇한 나무, 불긋푸릇한 나무가 모두 존재하였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었다. 계절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시기였다. 어느새 그런 시기가 된 것이다. 자연은 정말 꾸준하다. 나에게 자연의 꾸준함을 이길 재간은 없다. 대신에 매일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여기저기 떠다니는 구름을 눈으로 좇는 상상을 해 본다. 그리하면 언젠가 나도 구름이 되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거대한 착한 사다리 기둥

도심 속의 기다란 거리 내 작은 숲이 바스락거렸다
그 안에서 한 발짝 두 발짝 걸어 나오는 작은 새 한 마리
하지만 숲을 빠져나온 작은 새를 반기는 건 그 조그만 것을 위협하는
거대한 기둥들
아기 새는 그런 줄도 모르고 쫓쫓 바닥을 노크하고 다녔다
아기 새는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이때 한 기둥이 새에게 다가와 사다리가 되어 주었다
작은 새를 품에 안아 안식처로 올려다 준 사다리 기둥은 흡족한 듯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다시 하나의 기둥으로 돌아갔다

두 아이

어느 길 위에서 외로운 두 아이가 만났다
밤길이 어두워서 서로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불을 밝히자 두 아이는 서로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한 아이는 다른 아이를 보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기뻐하였다
다른 아이는 그 아이를 보고 불품없게 생겼다고 느꼈다 속으로 생각할
 뿐이었다
오늘 밤 두 아이는 각자의 생각을 담아 서로의 손을 붙잡고 캄캄한 길을
 함께 걸어 나갈 것이다

조민서

<작품 순서>

『기다려』

『빗방울』

『죽어있다』

기다려

기다리고 기다렸다
끊임 없이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너무 지쳐 작은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결국 등위로
날개가 돌아날 때
비로소 세상에 외칠 수 있었다

멤멤

빗방울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떨어 진다 친구 들도 다 함께
떨어 진다 까마 득히 높은 곳
에서 땅을 향해

떨

어

진

다

빗

 빗 빗
 방 방
방 방
 울 울
 울 울 울

죽어있다

몸은 움직이지만
죽어있다

숨을 쉴 수 있어도
죽어있다

열심히 노래를 불러봐도
죽어있다

입속에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도
죽어있다

침대에 누워 잠에 들 때도
죽어있다

오직 너의 생각을 할 때만 살아 있음을 느낀다
오늘도 난 살기 위해서 발 악 한 다

이현경

<작품 순서>

『불면증』

『새드엔딩』

『꿈에서』

불면증

모두 잠들어 조용한
어두한 밤

나는 아득히 홀로 남아
밤을 새운다.

무엇이 맘에 걸려
잠을 못 이루나

무엇이 후회되
잠을 못 이루나

감당하기 힘든 생각들이
끝없이 떠오르는 새벽

나는 여전히 홀로 남아
어두한 밤을 새운다.

새드엔딩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뭐하나 특별한 일 없는 내 인생
몰려오는 우울감에 내 영혼마저 잠식당했다.

여전히 무기력하고
어둠에 잠식된 내 인생
좌절감과 우울감에 감겨 한없이 가라앉는다.

내 인생 흔하고 단순한 영화의 새드엔딩만은 아니길

꿈에서

너를 꿈꾸고 싶다.
꿈에서 너와 황혼에서 새벽까지 함께 하며
무한한 황홀을 느끼고 싶다.

한평생 너를 꿈꾸고 싶다.
빛보다 빠른 내 마음은 너를 한평생 사랑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더는 두려운 것도 없다.

너의 꿈에서
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싶다.

임소원

<작품 순서>

『잠』

『선풍기』

『포장』

잠

그대 생각에 잠은 오지 않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가

그대 잘 있나 싶어
밤하늘 올려다본다

그중 가장 빛나는 별
그대겠거니 하고

내 마음속 별 하나 꺼내
그 옆에 붙이고 나니
겨우 늦잠에 든다

선풍기

한 계절을 좋아해줘요

시간을 정해놓고 날 만나도 좋아요

날 불러두고 잠에 들어요
그 곁을 늘 지킬게요

타오르는 불을 끌 수는 없지만
잔잔하고 길게 흐를래요

내가 쓸모 없어지면
검은 천으로 감싸버려도 좋아요

그러다 다시 해가 길어지는 계절이 돌아오면
여느 때처럼 날 애타게 찾아줘요

그리곤 다시 웃는 얼굴을 보여줘요

포장

널 맞이하기 위해
어여쁘게 감싸고 감쌌다

더 이상 내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나를 지우고 덮었다

애써 한 포장이 헛되지 않게
이제는 네가 날 떠나지 않게

부디 웃는 얼굴로 나를 바라봐주길

그리하여 네가 날 사랑해주길

송혜경

<작품 순서>

『시선』

『밤』

『비』

시선

길을 건너다 느껴지는 시선
길을 건너다가 멈출 때 느껴지는 시선

아무런 걱정 없이 놀다가 느껴지는 시선
아무런 걱정이 없어도 느껴지는 시선

꿈나라로 가기 전에 느껴지는 시선
꿈나라로 들어가려 할 때 느껴지는 시선

가만히 있다가 느껴지는 시선
가만히 있지 않아도 느껴지는 시선

이제는 모든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네가 보고 듣고 싶은 시선에만 신경 쓰길 바라

밤

밤은 나를 위한 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누구의 시선도 어두워서 안 보이는
밤은 나를 위한 날

밤은 생각의 날
밤하늘에 별과 달과 로켓이 나타나서
무한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밤은 나를 위한 날

밤은 무서운 날
아무것도 안 보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다가
어두워서 누가 날 해칠 수 있는 날

밤은 밤을 위한 날
밤은 나를 위한 날
밤은 누군가를 위한 날

비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 소리는 빗소리

빗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면
생각에 잠겨
감정이 피어나서
나의 기분을 나타내는
비 내리는 소리

비가 와서
내 감정이 피어오르고
나는 슬픔에 잠기고

비가 그치면
내 감정도 잠기고
나는 감정이 어떤지도 모르고

비는 가만히 보면
내 감정을 조정하는
리모컨

표수연

<작품 순서>

『J에게』

『반달』

『향수』

J에게

안녕, 내가 사랑했던 사람

당신은 늘 하늘을 반짝이는 눈빛으로 보았었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반짝임은
무언의 동경이었나,
혹은
그 반대였나.

세상을 등지고
깃털 없는 날개로 훨훨 날아가는
당신의 빛나는 뒷모습을
나는 차마 바라볼 수조차 없었던 거야.

겨울 저녁하늘은
애석하게도 잿빛 먹구름만 잔잔히 흐르네.
차라리 무상감을 씻어줄
몇 분의 소낙비라도 쏟아지면 좋겠는데.

무슨 말이든 몇 번이고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데
내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의 귀까지 전할 틈도 안 주고
공기 속으로 흩어져 버려서
애꿎은 뿌연 입김만 손으로 휘휘 저어.
당신이 있는 공간에
나의 문장이 자연스레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지금 하늘에서는 줍쌀눈이 내려.
그러니 흠뻑 젖은 내 얼굴을 보고 슬퍼하지 마.
눈이 많이 와서 우산을 써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더라.

있지, 우리말이야.

봄,
4월,
당신의 생일,
벚꽃나무 아래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때,
아마 하늘에서 벚꽃 잎이 무수히 쏟아질 거야.
당신이 만약 내 눈가에서 일렁이는 눈물 따위를 보면
아, 아래는 아직 추워서 좁쌀눈이 녹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해줘.
나는 정신없이 내리는 벚꽃눈 속에서도
내가 사랑해 마지않았던,
당신의 눈을 보고 먼저 인사할게.

안녕, 내가 사랑했던 사람

반달

해가 뜬다
커튼 사이로 아침의 기분 나쁜 햇살이
이불 속으로 스물스물 기어들어온다

여름의 맨발로 아침으로부터 도망쳐
아무도 없는
고요함이 기다리고 있는 새벽으로 다가간다
그제야 하늘에는
해가 아닌 반달이 뜬다

반달을 감싼 새벽의 하늘이
푸른빛으로 물든다
푸른빛은 반달마저 삼켜버린다

너는 반달
인디고 블루의 반달
D

향수

가지런히 놓여있는 7개의 향수병들을 어루만지다
작은 유리병 하나를 손에 쥔다
늘 그렇듯 고르게 되는 것은 장미향이다

나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붉은 장미향의 입자를
내 몸 구석구석 바른다

피가 흐른다
장미의 푸른 가시가 나를 감싼다
그러나 닦지 않은 채
밖으로 나선다

시선이 느껴진다
인간들의 거뭇한 시선이 느껴진다
어떤 인간은 나를 앞질러 가다
굳이 뒤를 돌아 나를 한 번 더 훑어보기도 한다

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은
인간을 위협하게 만든다

주경국

<작품 순서>

『고요』

『밤하늘』

『골목길』

고요

고요할수록
더 밝아지는 것들

고요할수록
비로소 보이는 것들

아무도 모르는 그 고요함속에
아름다움은 가슴의 깊은 뜨거움과 만나는 구나

복잡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
이 고요함이 얼마나 중요 한가

가끔은 고요함 속에서 나를 만나
내 마음을 천천히 돌아보자

지금 당장 가슴에 와 닿지 않아도
훗날 지금 경험에 감사할 것을 믿으며

밤하늘

지친 하루를 보내는 삶 속에서
밤하늘을 우러러 본 날이 언제인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가고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서
밤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니

저렇게 많은 별과 달 하나가
나를 쳐다보는 구나
아름다워 눈을 떼지 못 하네

살며시 눈을 감고
밤하늘의 냄새와 차가운 바람을 느끼며
지친 마음을 위로 하네

오늘따라 밤하늘이 더 밝아 보이는 것은
우울한 내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오늘도 나는 해가 뜰 무렵부터
은은한 마음으로
밤하늘을 기다리네

골목길

오늘도 이 길을 걷는 구나
그 길은 골목길
가로등 하나 없는 그 골목길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왜 아직도 제자리걸음 인가

이 골목길 혼자 걸을 때면
나도 모르는
수많은 생각이 나 네

그 생각들은
한편의 소나기처럼 빠르게 스쳐지나 가고
내 마음을 젖게 하는 구나

어둡고 캄캄한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나 더 이상 멈추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나는
내가 갈 길이와 나아 갈 것만 바라보며
한발 두발 걸어 볼게

김나연

<작품 순서>

『큐브』

『버스』

『그리운 밤』

큐브

한 면이 아홉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정육면체
맞추기 어려운 큐브

한 면은 맞추기 쉽지만
여섯 면을 다 맞추긴 어렵다

나에게 큐브는 인생 같다
맞춰보려 애를 써도 자꾸만 어긋나고
맞출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한 면이 아홉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정육면체
여전히 맞추기 어려운 큐브

버스

아침 일찍 일어나 만원 버스에
지친 몸을 싣는다

자리가 없어 서서 가는 게 다반사
이리저리 열심히도 굴러가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잡으려 애를 쓴다

한 정거장씩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내리고
가뭇에 콩이 나듯 자리가 난다

hilhilhilhil 빈 자리를 찾아 앉아
음악을 들으며 쪽잠을 청한다

다음날, 그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나는 만원 버스에 몸을 싣는다

그러다 문득 낯짜를 보면
누군가 시간을 바꿔치기라도 한 듯
벌써 일주일이나 지나있다

그리운 밤

난 너를 만나러 가
너와 같이 갔던 그 카페
너는 커피 향으로 남아 있네

난 너를 만나러 가
너와 함께 봤던 그 영화
주인공은 없고 너만 남아 있네

오늘 밤은 너에게 잠겨
잠 못 이루는 밤

깊이가 보이는 얇아
한없이 가라앉는 밤

오미성

<작품 순서>
『언제나 연두』
『우리』
『달팽이』

언제나 연두

어린 연두빛은
내 가슴을 설레게 하고

진한 연두빛은
내 가슴을 뜨겁게 한다

그러다 연두빛의 희미해지면
슬며시 바람되어
가지 사이사이로
내 맘 사이사이로
빈 공간을 채워주네

그러다 바람마저 사라지면
살며시 다가와
폭폭 하이얀 소리내며
빈 가슴 채워주네

연두빛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았다

언제나 내 맘 속에 살고 있다

우리

우리에게는 선이 있다
보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나에게는 선이 있다
그 선을 넘지 않을 때
비로소
미움 받지 않을 수 있다

너에게도 선이 있다
그 선을 넘을 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을까...

달팽이

풀잎 위에
작은 정체

느릿느릿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저 멀리 큰 바위가 있어도
저 앞에 구덩이가 있어도

가보지 않으면 모를 것이다
그 바위를 넘을 수 있을지
그 구덩이를 피해 갈 수 있을지

묵묵히 지나가는 달팽이처럼
가보자 걱정 말고

양예은

<작품 순서>

『선인장』

『부유』

『불꽃』

선인장

옆집의 느티나무는 소원을 이루어준대
예쁘고 소중한 마음이 모인 나무는 참으로 위풍당당하구나

앞집의 벚꽃 나무는 꽃비를 내려준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모인 나무는 참으로 사랑스럽구나

선인장은 뾰족한 가시를 갖고 있대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나무는 참으로 불쌍하구나

가시 속에 숨어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
나는 외롭지 않을 텐데

부유

마리모는 기분이 좋으면 둥둥 뜬다는데
내 친구 마리모는 항상 우울한가 보다

나쁜 말을 들은 양파는 썩는다던데
우울도 전염이 되나 보다

넌 가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앞에서 한 작별인사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

텅 빈 어항을 들고 돌아온 집에는
여전히 몸 하나 편히 누울 자리가 없다

다음날에야 알았지만
마리모는 민물에서만 살 수 있다더라
마리모는 그날 둥둥 떠올랐을까?

불꽃

나는 항상 붉은 것을 사랑했다
하늘을 붉게 물들인 노을
환하게 타오르는 불꽃 같은 마음

세월이 붉은색을 덮어버린대도
본래의 색을 잃고 무너진대도
그렇게 환하게 타올랐다 꺼지는 것을 사랑했다

아마 나는 그리하지 못했기에
남은 생에도 붉은 것을 사랑하려나 보다

〈산문〉

정지환

『각자의 행복』

각자의 행복

제법 따뜻한 날씨였다. 기나긴 장마가 끝이 난 후 찾아온 가을은 생각보다 추웠다. 9월이 채 시작되기 전부터 바람이 차갑게 불며 가을의 시작을 알렸다. 9월내 그렇게 춥던 날씨가 추석 연휴기간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바람은 멈췄고, 흔히 말하는 옷 입기 좋은 가을 날씨가 되었다. 날씨도 많이 풀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 나는 추석 연휴기간을 핑계로 친구들과 술약속을 잡았다.

참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나와 재혁이는 달에 한 번 본가에 내려가면 많이 가는 것이었고, 동훈이의 경우에는 ROTC로 군 장교 생활을 하고 있어 전역을 하려면 1년가량 남은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작년 연휴기간 같은 경우엔 휴가마저 나오질 못 했으니 거의 2년만의 만남이었다. 다들 기대를 했다는 듯이 약속시간을 밥 먹듯이 어기던 애들이 약속 시간이 되기도 전에 다 모였고 우리는 그렇게 술집에 들어갔다. 한동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알바하는 곳 사장님 이야기, 동아리에서 사고 친 이야기, 중대장이 실망한 이야기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소주를 마셨고, 이야기의 양이 많다는 걸 증명해주듯 빈 소주병은 옆에 한 병, 두 병 계속 줄을 세워 나갔다.

“니들은 지금 행복하냐?”

누구는 안주를 먹고, 누구는 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등 술자리의 끝을 향해 갈 때 즈음 갑자기 던져진 질문이었다. 모두들 하던 짓을 멈추고 질문을 한 재혁이를 바라보았다. 재혁이는 이 질문의 의도를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듯 쳐다보는 눈빛들을 보고 소주잔의 소주를 비우더니 작은 탄식과 함께 말을 이어 나갔다.

“그냥 요새 뭘 해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너희들은 그런 생각 한 적 없냐?”

이 말을 하는 재혁이의 얼굴을 보니 앞선 말을 대변하는 듯 어느새 많이 어두워진 낮빛이었다. 한동안 이어진 침묵. 그 침묵이 어색했던 내가 소주를 따르며 말을 했다.

“야 무슨 어울리지도 않게. 그냥 술이나 마시자.”

“좀 오반가?”

이내 머쓱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마무리 짓고 술을 마시는 재혁이었다. 애써 술을 넘기는 재혁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행복이란 게 뭘 데?”

안주를 먹으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훈이가 말했다. 모두들 동시에 그를 쳐다봤다. 그는 소주병에 남은 소주를 자신의 잔에 따르고 마시며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시작했다.

“술도 마셨겠다. 우리가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냐? 안 그래?”

“그래 이야기하는 건 오케이. 근데 행복하냐 물어봤는데 갑자기 행복이 뭐냐니?”

아까 화제를 돌리려던 나도 소주 2병을 더 시키며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을 받았다.

“저 새끼가 우리 보고 행복하냐고 물어보잖아. 그 전에 행복이란 게 뭔지 알아야할 거 아냐? 그래서 너가 말하는 행복이 뭔데?”

“...”

채혁이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는지 들고 있는 빈 소주잔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말도 안하고 TV를 보고 있던 우정이가 말을 했다.

“행복이 뭐 별거야? 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이 뭐냐고 묻던 동훈은 뺨 터졌는지 큰 소리로 웃으며 말을 했다.

“누가 술꾼 아니랄까봐 술 마시고 있다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 봐라 ㅋㅋ”

“아니 술이 아니라 니들이랑 노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우정이는 이 말을 하고는 이내 부끄러웠는지 머리를 긁적이며 소주잔을 비우더니 다시 말을 시작했다. 말을 시작한 우정이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한층 진지해진 얼굴이었다.

“우리가 1~2년 만난 사이도 아니고 자그마치 15년이다, 15년.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보다 니들이 더 편해. 거짓말 좀 보태서 눈빛만 봐도 뭘 하고 싶은지, 뭘 말하려는지 다 보이잖아 서로.”

“그러긴 해. 이젠 좀 징글징글하다.”

서로 말을 주고받는 동훈과 우정.

“예전엔 맨날 보니까 사실 잘 못 느꼈는데 지금 와서는 항상 생각해. ‘아 이놈들이랑 있을 때 내가 즐겁구나, 편하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넌 그게 행복이다? 우리랑 만나서 노는 거?”

“아니, 내가 말하는 행복은 내가 편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거지. 그걸 하게 해주는 게 니들이고... 뭐 따지고 보면 니들이 내 행복이라고 해도 맞겠네.”
우정이는 말을 다 끝마치고 다시 부끄러워졌는지 소주를 따른 후 한 번에 털어 넘겼다.

“그래서 난 말했다? 니들도 말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 행복 아닐까?”

잠간의 침묵 후 우정이를 뒤 이어서 내가 말을 했다. 내 친구들은 재혁이를 쳐다보던, 이해가지 않다는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다들 진지해진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도 니들이랑 노는 게 행복은 맞아. 근데 나는 우정이랑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네.

“나는 편하고 즐거워서, 너는 좋아하는 걸 해서?”

되묻는 우정. 나는 소주를 마신 후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그지. 난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해. 책을 읽는 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팀 경기를 보면서 속 터져 하는 것도 결국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 범주 안에 니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노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지.”

나는 비어 있는 잔들에 소주를 마저 따르며 물어봤다.

“이젠 양동훈 니가 말해야지. 설마 넘어가려는 건 아니지?”

동훈이는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는 듯이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 하기 시작했다.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는데 설마 그러겠냐? 나는 내가 뭔가를 할 때? 그때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 같아.”

“예를 들면?”

언제나 되묻는 건 우정이의 몫이었다. 그렇게 우정이와 동훈이는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나와 재혁이는 그 둘을 번갈아 보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냥 뭐 끊임없이 움직이고, 공부를 하던 운동을 하던 결국 내가 움직여야 가능 한 것들이잖아?”

“그건 맞지. 그래서 그거 자체가 행복이다?”

“정답.”

“그래서 넌 지금 행복해?”

“뭐 오늘로 한정하면 엄청 행복하지. 휴가도 나왔겠다, 니들 만나서 술도 마셔, 마시기 전에 공부도 했고, 운동도 했고, 데이트까지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 같은데? 이정도면 행복하지.”

“뭔가 재수없다 너?”

“내가 부러운 건 아니고?”

“군인을? 그래서 전역 언제 하는데?”

“어허... 무심코 던진 팩트가 폭력이 된다는 말 몰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던 우정리와 동훈리의 대화는 동훈리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이 났고,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두웠던 재혁리의 낮빛도 많이 밝아진 참이었다.

“그래서 재혁리 넌? 뭘 일 있냐?”

한참동안 분을 삭히던 동훈리가 재혁리를 보더니 물어봤다. 술잔을 들며 말을 시작하는 재혁리.

“이제 마지막 학기이고 곧 졸업도 하는데 해야 할 건 많지, 그에 비해서 해논 건 아무것도 없지. 이래저래 답답하지. 그러다 보니 짜증도 나고 한숨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런 거지 뭐...”

재혁리는 그 말을 한 뒤 한참동안을 소주잔에 담겨있는 소주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근데 니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상 ‘내가 행복해하는 것이 뭐일까?’에 대한 생각은 해 본적이 없네. 그냥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답답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 같어.”

“잘 생각해봐. 너가 뭘 해야 행복한지. 안 그러면 정신병 걸려서 입원한다?”

“그래 지금 너가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행복한 적이 있는데 그걸 못 본 걸 수도 있지.”

“이런 기회 흔히 오는 거 아니다. 지금 넘어가면 15년 뒤에나 다시 말해야 할 수 있어.”

저마다 재혁리를 위로하며 한마디씩 하는 친구들. 그 마음을 안다는 듯 재혁리는 웃으며 소주를 비우고 말을 했다.

“내 행복... 행복이라...”

가만히 빈 소주잔을 바라보며 마땅한 답을 찾는 재혁리는 이내 답을 찾았는지 고개를 들고 우리들을 바라보며 말을 했다.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역시 사람은 먹고 살아야지.”

“아까 다 죽어가던 목소리로 힘들어 한 새끼 맞냐?”

“아니면 저 새끼 벌써 정신 나갔을 수도 있어. 정신병원 연락해봐.”

나와 동훈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했다. 우정리 역시 어이가 없다는 듯 크게 웃으면서 나와 동훈리를 보고 말했다.

“이 새끼 이거 맨날 인스타 스토리에 먹는 거 올리더니 지가 제일 행복하면서 저 지랄 한 거네?”

재혁이는 우정이의 말을 듣고 잠깐 생각을 하더니 우정이를 따라서 웃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ㅋㅋㅋㅋ 요즘 인스타 스토리에 음식 올리는 맛에 사네 나?”

그 말을 들은 나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재혁이가 많이 괜찮아 진 것 같아서 그걸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한동안 실없는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다가 내가 도중에 시킨 소주 두 병이 다 떨어졌을 때 술집을 나왔다.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헤어지기 싫었던 우리는 말없이 동네를 걷고 또 걷기 시작했다. 한 십분 정도 지났을 때 우정이가 흡연구역에 앉아 담배를 물고 한 모금 깊게 뿜어내더니 말했다.

“그래도 오늘 하루 행복했다 그지?”

“난 인정. 행복했지”

“나도 술 마시기 전부터 행복한 상태였으니까?”

그렇게 말하며 우리는 동시에 재혁이를 쳐다봤다. 재혁이는 환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보여줬다.

핸드폰 화면에는 인스타그램 어플이 켜져 있었고, 재혁이가 작성 한 듯한 스토리가 재생되었다.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네.”

박소윤

『누가 그의 걸음을 지배했을까』

누가 그의 걸음을 지배했을까

글감을 제공해 주신 김승우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대학 신입생 중 특이한 놈 하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과방에 죽치고 앉아 기다려도 모습을 보이지 않기에 궁금증에 못 이겨 그가 수업 중이라는 강의실을 찾았다. 때마침 수업이 끝나 신입생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했고 나는 그 수많은 학생들 중 내가 찾던 친구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지루했던 수업을 벗어나 우르르 몰려 나가는 그 팀에서 홀로 책을 뚫어져라 보며 느릿하게 걷는 선비 한 명. 아, 저 친구구나 바로 알 수 있었다. 말을 걸어볼까 했지만 이름도 모르는 신입생에게 굳이 말을 걸어 질 나쁜 선배 소리를 들을 이유도 없기에 가만히 지켜보았다. 한 보 한 보 답답하지만 진전은 있는 느린 걸음과 책에서 시선을 떼지는 않지만 떨구지 않는 당당한 고개, 한 손은 책을 들었지만 다른 한 손은 뒷짐은 진 모습이 교수님보다 더 교수님 같았다.

“뭐해?”

친구의 부름에 잠시 눈을 떴고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그를 찾았을 때, 보통은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어야 정상이지만 아직도 복도 끝자락에 느릿한 그의 모습이 보였다. 독특한 신입생이 맞나보다.

독특한 신입생의 소문은 당연 빠르게 퍼져나갔다. 간혹 안 좋은 이야기도 들려왔다. 선배가 불려도 뒤도 안돌아보고 가던 길을 간다던가, 수업에 늦어도 느린 걸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여유 있게 걷는 다는 뒷담들. 그에 대한 소문이 한 달 정도 돌았을 즈음 그이 별명이 생겼다. ‘거닐리우스’. 느린 걸음이 특징이고 창밖이나 책을 들여다보는 모습 외에는 보여주지 않는 그에게 붙여진 철학자스러운 이름. 약간의 놀림도 섞였겠지만 어느 정도 대단하다는 의미의 별명인 듯 했다. 그도 자신의 별명을 아는지 모르는지 읽던 책들이 교재나 소설책에서 철학 에세이로 바뀌기 시작했다.

거닐리우스는 두 달이 넘게 걷기만 했다. 그가 조금 빨리 걸거나 뛰거나, 책이나 창을 보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느린 걸음의 그는 점점 사람들 속에서 익숙해지며 소문의 빠다귀 자리를 내려 놓는듯 했다.

그의 이야기가 다시 들리지 않게 되고 내 눈에도 더 이상 그가 독특하게 느껴지지 않을 즈음 거닐리우스의 소문이 다시 들려왔다. 횡단보도 신호가 꺼져가려던 찰나에도 느릿하게 건다가 결국 기다리던 자동차가 경적을 울렸는데, 하필 교수님의 차라 그 다음 수업 때 혼이 났다. 하지만 그는 꿈쩍 않고 교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자리에 들어가 앉았더라 하는 이야기였다. 여전히 그러고 사는 구나 싶었다. 그렇게 그는 다시 소문의 수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모두가 다시 거닐리우스에 집중하였고, 그가 빠르게 걷거나 뛰는 모습을 포착하는 게 유행이 되었다. 화장실에 급해 보이거나 수업에 늦을 때, 밥을 먹으러 갈 때 등등 빼놓지 않고 사람들은 거닐리우스를 관찰했다. 그는 입학부터 지금까지 늘 같은 속도의 걸음과 같은 각도의 시선을 유지하였고 여전히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 대회가 열려 단과대 재학생들이 모두 운동장에 모여 있을 때였다. 거닐리우스는 역시나 체육대회에는 관심이 없었는지 책과 하늘을 번갈아가며 바라볼 뿐이었다. 약간 먹구름 진 하늘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 궁금증이 커져만 가던 그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짐을 챙겨 건물로 바빠 뛰어 들어갈 때, 나역시 친구들을 따라 뛰어가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거닐리우스가 책을 우산삼아 뛰고 있었다.

아, 드디어 봤다. 라는 생각과 함께 다른 학생들도 그를 목격했는지 건물로 도착한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거닐리우스가 마침내 뛰더라, 그렇게 컨셉을 잡아 놓고 비는 피하더라, 친구라곤 책과 하늘뿐인 것 같더니 하늘은 비를 퍼붓고 책은 우산이 되더라 등등 거닐리우스도 결국 똘다!라는 소문이 고작 몇 분 사이에 학과 학생 모두에 퍼지게 되었다. 그는 어디 있을까. 그는 건물 앞에서 책을 우산삼아 머리를 가린 채 다른 학생들을 뚫히 바라보며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소문을 즐겼던 걸까 아니면 우리가 그에게 부담을 준 걸까. 애초에 거닐리우스의 이름은 뭐였을까. 그렇게 우리는 그를 잊어갔다.

이다연

『여행』

여행

멍하니 테이블 위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담긴 커피잔을 내려다봤다. 유리잔에 맺힌 물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시선을 돌리니 앞쪽에 무엇인가 열심히 적고 있는 남자가 보였다. 귀에 꽂힌 이어폰에서는 모르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생소한 것들이었다. 나는 어제 막 출소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그녀가 도착했다. 나는 귀에 꽂힌 이어폰을 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웃는 얼굴로 다가와 나를 껴안았다. 안긴 나도 웃었다. 웬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그녀는 금세 나와 떨어지고선 앞자리에 앉아 한참이나 종알종알 혼자 말했다. 조금 시끄러웠는지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시선을 이쪽으로 옮겼다. 하지만 이내 다시 무언가를 열심히 적기 시작했다.

내 앞에 앉은 그녀는 종이를 한 장 보여주었다. 그 종이에선 지도 같은 것이 그려져 있고 아래쪽에 표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여주며 자신이 그린 지도와 짝 여행 일정표라고 했다. 반짝이는 눈동자가 나를 향하며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 종이와 그녀를 번갈아 본 뒤 웃었을 뿐. 이에 그녀는 만족한다는 듯이 덩달아 씩 웃었다. 아마 긍정의 뜻으로 해석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녀는 다시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통장이었다. 그녀는 웃으며 통장을 펼쳤다. 그리고선 가장 아래쪽 숫자를 가리키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참 사랑스러웠다, 예나 지금이나. 나는 그녀를 보며 오늘 처음으로 말했다.

“고마워.”

그녀는 씩스럽다는 듯이 웃으며 앞에 놓인 커피잔에 담긴 빨대를 쳐다보곤 시계방향으로 돌렸다.

“뭘, 나는 보관해준 것 말곤 한 게 없는걸. 이자도 알아서 쌓인 거고. 원래부터 네 돈이었으니까 날 쫓더라도 이걸 네 돈이야. 다시 돌려줘도 안 돌려받을 걸 아니까, 이 돈으로 같이 여행이라도 가려는 거고.”

사실 이 통장의 돈은 내가 교도소에 가기 전 모아왔던 돈을 그녀에게 준 거였다. 어차피 징역을 선고받은 그 당시 내게 이 돈은 쓸모없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출소해서도 이 돈이 쓸모없는 것은 똑같지만 앞에 앉은 그녀가 이 돈 덕분에 웃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얘기를 다한 듯 통장을 다시 가방 속으로 넣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로

했다. 어느새 앞 테이블의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놓여 있던 잔도 안의 음료가 사라져 무엇이 담겨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다음날, 그녀와 나는 어제 만났던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났는데 그녀는 들어 오기 전 문 앞에 자전거 두 대를 세워두며 들어왔다. 그러더니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가리켰다. 나는 웃음을 흘리며 엄지를 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내가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이를 듣자마자 시무룩해졌지만 금세 다시 웃으며 자신을 믿으라고 했다. 그것을 말하며 그녀가 짓는 표정을 본다면 아마 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자신 넘치는 표정이었다.

딸랑하고 카페 문에 달린 종이가 울렸다. 절로 시선이 간 그곳엔 어제 그 남자가 있었다. 주문하는 입 모양을 보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았다. 내 것과 같은 음료였다. 내가 남자를 한참동안 쳐다보고 있자 내 앞의 그녀도 그를 쳐다보았다. 이것을 느끼고 그녀를 보자 그녀도 다시 나를 보았다. 그러더니 씩 웃으며 말했다.

“호감 있어?”

호감? 내 주제에 무슨. 그 말이 우스워 웃음이 나왔다. 그에 그녀는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왼손으로 미리 시켜둔 커피잔을 잡고 속에 담긴 빨대를 오른손으로 돌리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불안해져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손쓸 새도 없이 그녀는 이미 그에게 가고 있었다. 체념한 채 자리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와 몇 번 오가는 대화를 하더니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돌아온 그녀는 갈 때와 다르게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러더니 내게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철벽남이야.”

나는 웃었다. 그런 그녀가 사랑스러웠고, 무언가 안심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를 바라봤을 땐, 그는 이미 자리를 뜨고 없었다. 그녀는 혹시 자기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닐까 곤란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에 나는 아닐 거라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선 정면에 보이는 벽시계를 보며 말했다.

“저번이랑 나간 시간이 같아. 이 시간에 무슨 약속이 있는 게 아닐까?” 이에 그녀의 표정이 다시 묘해졌다.

“되게 관심이 많네? 나 만나고서 말 제일 길게 한 거 알아?”

이래도 발뺌할 거냐는 듯한 눈빛을 보내는 그녀를 보며 나는 멋쩍게 웃었다. 그러고선 고개를 저어 보였다. 이에 그녀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화제를 돌렸다.

“자전거 타는 법부터 배우러 나가자.”

나는 다행이라는 듯 끄덕임을 보이며 그녀와 함께 일어났다. 앞에 놓인 음료는 3분의 2 이상이 남아있었지만, 우리에게겐 개의치 않은 일이었다. 나는 내 모든 짐이 담긴 가방을 메며 가만히 서 있는 그녀를 바라봤다.

“이거 테이크 아웃해가자.”

나에게만 이었나 보다. 나는 실소가 나오는 것을 참지 못해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그녀는 나를 보며 왜 웃냐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나는 손사래를 치며 먼저 카페를 빠져나왔다. 카페를 나오니 들어올 때 들리는 종소리가 열 때 한 번 닫힐 때 한 번 울렸고, 문 앞에서 나를 반기는 것은 새것인 듯한 자전거 두 대였다. 뒤따라 나온 그녀는 나를 한 번 보더니 말했다.

“새것 같겠지만 중고야. 가자.”

내 마음을 읽는 그녀는 익숙했기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곤 자전거 한 대를 잡았다. 그녀는 나를 한 번 보더니 말했다.

“모든 것은 실전이야! 자 나를 따라와!”

먼저 빠르게 출발하는 그녀를 보며 나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나 처음이라고! 너만 믿으라며!’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지만 이미 가버린 그녀에게 닿을 리 없을 것 같아 우선 그녀를 따라 해 보기로 했다. 그녀처럼 자전거 안장에 앉자 받은 성공한 느낌이었다. 여기서 이제 발만 떼면 된다. -우당탕. 생각과 동시에 발을 떼자 당연히 넘어졌다. 나는 아픔의 신음을 내며 천천히 다시 일어났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이미 수없이 겪어와서 알고 있다.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럴 때 나아가는 방법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스스로 될 때까지 해보는 것, 다치는 것 따윈 두렵지 않았다. 이미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진 마음은 상처하나 나지 않을 것이다. 몸은 좀 아프겠지만. 괜찮다. 다시 잡은 자전거 핸들은 생각보다 멋대로 움직여서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나는 나아가기로 했다. 다리를 하나만 뻗 채로 페달은 밟았다. 아주 조금이지만 앞으로 나갔다. 그다음은 생각보다 쉬웠다. 이번엔 두 발로 페달을 밟았다. 요리조리 핸들이 조절 안 돼 아슬아슬하게 넘어지려 했지만 넘어지진 않았다. 세 번 만에 성공이었다. 그 생각과 동시에 앞으로 고꾸라졌지만,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지 아픔보단 다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다시 타 앞으로 조금 달리니 그녀가 길가에 멈춰 나를 보고 있었다.

“왜 이리 늦었어! 기다렸는데. 흠,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왔네.”

그녀는 나를 보고 말하며 엄지를 세워 보였다. 나는 웃으며 말하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녀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자, 이제 진짜야. 지금 바로 떠날 거야.”

나는 조금 병병한 표정을 지었다.

“응, 오늘 떠날 거야. 이거 타고.”

그녀는 자전거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어이없다는 것을 숨기지 못한 채 말했다.

“나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는걸?”

“원래 모든 일은 준비 없이 일어나는 법이잖아?”

그녀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었다.

“그래, 가자.”

내 말에 그녀는 자신만 따라오라며 먼저 출발했다. 그녀의 자전거가 더 멀어지기 전에 나도 따라 출발했다.

그녀를 따라 4시간쯤 달렸을까, 슬슬 한계가 오던 중이었다. 중간중간 오르막길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한 번도 쉰 적은 없었다. 그녀는 쉬는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힘들어도 계속 달렸다. 나는 그녀에게 투정 부릴 자격이 없었기에 묵묵히 힘들어도 그녀를 따라 달렸다. 모든 짐을 다 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드디어 그녀가 멈췄다. 그녀 또한 땀 범벅이었다. 출발할 때는 낮이어서 밝았는데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었다. 겨우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드니 가라앉는 태양이 보랏빛 하늘을 만들고 있었고, 온통 갈대로 가득한 갈대밭을 신비롭게 보이게 했다. 그녀는 그 앞에 서서 흐르는 땀을 닦고 머리를 높게 다시 묶었다. 나는 그 모든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언제 힘들었냐는 듯 머릿속엔 ‘아름답다.’라는 생각만이 가득 찼다. 이런 풍경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그녀는 냇 나간 나를 보며 말했다.

“여름 끝, 가을의 시작 전 풍경이야.”

나는 알아듣지 못해 그녀를 그저 바라만 보았다.

“고생 끝, 새로운 출발 전이란 말이지. 네 선택에 의해 우리의 미래는 결정될 거야. 모든 준비는 끝났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잘 거야.”

그녀는 그런 나를 위해 다시 말해주었다. 하지만 마지막 말은 나를 당황하게 하기 충분했다. 여기서 잔다고? 여기 갈대밭에 없는 이곳에서?

“내가 다 생각이 있지!”

대답 없이 그녀를 보고만 있는 나를 보며 그녀는 씩 웃고는 말했다. 그리고

선 먼저 앞장 서서 자전거를 끌며 어딘가로 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믿으니 앞장서는 그녀를 따라 자전거를 끌었다. 그녀를 따라 도착한 곳은 갈대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놀랍게도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오두막 가까이 가더니 주머니에서 찰랑-소리를 내며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그것을 보고 ‘준비 없이 가는 여행이라더니, 준비가 안 된 건 나뿐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 손짓하며 먼저 들어간 그녀를 따라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게다가 당장 누가 살아도 될 만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다. 이러니 그녀가 내게 준비 없이 떠나자고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내게 먼저 씻고 나오라고 했다. 내가 출소하면 가장 먹고 싶다고 했던 김치찌개를 해주겠다면서 말이다. 나는 웃으며 알겠다 말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웠다. 내가 알던 그녀의 요리 솜씨는 정말 엉망이어서 맛도 맛있지만 그녀가 다칠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내 맘을 안 듣니 걱정하지 말라며 나를 욕실로 떠밀었다. 문이 닫히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없던 사이 그녀의 실력이 늘었길 빌며 샤워를 했다.

씻고 나오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엉망이 된 부엌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치울 거라며 내게 멧쩍은 웃음을 짓고는 나를 끌어 자리에 앉혔다. 그래도 음식 모양새는 그럴듯했다. 냄새도 괜찮았다. 내 앞에 앉아 기대하며 나를 보는 그녀의 시선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지만 우선 입안으로 음식을 육여넣었다.

“음, 음.”

좀 숨겨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표정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도저히 먹기엔 너무 짭다. 내 표정을 보던 그녀의 표정 또한 일그러졌다.

“그 정도야...?”

그녀는 말하며 서둘러 음식을 입에 넣었다. 그러더니 1초도 지나지 않아 싱크대로 가 음식을 뱉고 입을 헹궜다.

“왜 이렇게 짜지? 아, 설탕이랑 소금을 헛갈렸나?”

그렇게 말하는 그녀를 나는 원망스럽단 듯이 쳐다보며 입안의 내용물은 억지로 삼켰다. 그리고 앞에 놓인 물 한 잔을 모두 마셨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녀는 미안하단 듯 웃으며 다시 하겠다고 했다. 그에 나는 단호히 말했다.

“안돼, 내가 할게. 어서 씻고 와.”

내 말에 그녀는 울상이 되어 욕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그녀가

들어가자 바로 작업을 시작했다. 아니, 요리를 시작했다. 김치찌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홀로 날 키우신 아버지께서 가장 잘하는 요리이기도 했다. 어차피 그 맛은 이제 맛볼 수 없으니 아쉬운 대로 내 손맛을 내야 했다.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기도 했다. 그럼지만 볼 수 없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니까. 또 다신 맛볼 수 없는 그 맛을 욕심내게 하니까. 하지만 그녀가 알 리 만무했다. 이런 애긴 한 적이 없으니까. 그녀는 그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찌개다.’ 라는 것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찌개가 이제 조금만 더 끓으면 되겠다 싶을 때쯤 그녀가 욕실에서 나왔다. 밥은 다행히 그녀가 한 밥이 그래도 잘 되어 그것을 먹으면 됐고, 반찬은 급하게 있는 재료로 계란말이와 콩나물무침을 했다. 그녀는 식탁에 앉으며 우울한 듯 말했다.

“미안해, 내가 해준 음식 맛있게 먹게 해주고 싶었는데…”

시무룩해진 그녀를 달래고자 나는 웃어 보였다. 내 웃음에 그녀도 조금 미소를 띠었다. 그러고선 심호흡하더니 말했다.

“먹어볼까나?”

다행히 내 음식이 입에 맞았는지 아니면 배가 고팠던 탓인지 그녀도 나도 음식을 모두 비우고, 3개의 방 중 가장 큰 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왜 안 물어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중 그녀가 말했다.

“뭘?”

내가 말했다.

“그냥 이것저것 다?”

그녀는 두루뭉술하게 말했지만 사실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에 대해서나 이 여행에 대해서나 심지어 지금 누워있는 이곳에 대해서조차 난 물어보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그녀 쪽을 바라보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이 창문 사이로 흘러들어 온 달빛에 반짝였다. 그녀에게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있었다.

“그냥.”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다. 그것을 알게 된 순간 내 선택지는 하나로 좁혀져 버린다. 내가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다. 그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에 이 여행을 온 것일 거다. 내 마지막 말을 끝으로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다만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가 천장이 아닌 나를 향했다. 그렇게 그 빛은 나를 한참이나 비추다가 어두워졌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자리에 그녀는 없었다. 순간 불안해져 서둘러 방문을

여니 카페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보였다. 머릿속이 물음표들로 가득 차던 중 반가운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였다. 그녀는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은 듯 아주 자연스러웠다.

“일어났어? 아침은 샌드위치야.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 뭐 하고 있어? 이리 와서 앉아.”

그 남자 또한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나를 바라봤다.

“아, 이분 아침 산책하러 나갔는데 자기도 여기 여행 왔다고 하더라고. 우연히 만난 건데 얘기하다 보니 좋은 분 같아서 아침 같이 먹자고 같이 왔어.”

내가 앉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자 그녀가 깨달았단 듯이 손뺌을 치며 말했다. 나는 ‘우연히 만났는데 아침도 같이 먹을 정도의 사이가 됐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이틀 연속 카페에서 본 사내를 여행 온 곳에서 우연히 만나는 게 이상하지 않나? 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재촉하는 그녀 때문에 얼떨결에 식탁에 와 자리에 앉았다. 샌드위치를 먹는 내내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할 말이라도?”

이에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언짢은 표정으로 그가 말했다.

“당신 뭐야? 스토커야?”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인상이 찌푸려진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말을 그렇게 해.”

이에 당황한 듯 그녀가 들린 사례를 겨우 진정시키며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했다. 자신이 아는 그녀는 사교성이 좋은 편이었지만 자신이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 만큼 배려 없는 이가 아니었다. 게다가 저 남자.... 이상할 만큼 소름 끼쳤다. 잘은 모르겠지만 가까이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교도소에 있으면서 감이 많이 늘었는데, 감이 저 남자는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다 모르겠고, 그냥 나가주시죠? 제 친구는 허락했을지도 몰라도 저는 낮가림이 좀 심한 편이라 지금 매우 불편하거든요,”

나의 날 선 말에도 남자는 앞에 놓인 한 입 베어 문 샌드위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한테 관심 있던 것 아니었어요?”

“네?”

“나는 여기 휴가를 보내러 왔는데 숲속으로 들어오다 보니 나가는 길을 잃

어버려서 곤란하던 참이었어요. 그때 저분이 저를 도와줬고요. 우연이 겹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거죠?”

남자의 첫 말은 기가 찼고, 남자의 두 번째 말은 말문이 막혔다. 이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그를 무시한 채 화장실로 향했다.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귀를 닫았다. 나는 대충 씻은 후 바깥으로 나갔다. 몇 발자국 건다가 문득 홀로 두고 온 그녀가 신경 쓰여 뒤돌아봤을 때, 울창한 나무들 사이 홀로 외딴 오두막이 외롭게 존재했다.

“너는 얼마나 이곳에 혼자 있었니. 우리가 떠나면 너는 다시 혼자가 되어 사람들을 기다리겠지.”

어둡고 추울 때도 혼자일 오두막을 보니 괜히 마음이 안 좋았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닐 거야.”

“혼잣말 잘하시네.”

흠칫- 놀랐다. 어느새 오두막을 나온 남자가 내 곁에 서 말했다. 기척도 못 느꼈는데….

“따라와요. 엄청난 걸 보여줄게요.”

“싫다면요?”

“그래요? 유감이네요.”

혼자 휘적휘적 가버리는 남자에 괜한 호기심이 생겨 나는 홀리듯 그쪽으로 향했다.

그를 따라가니 어제의 그 갈대밭이 보였다. 바람이 강하게 불자 대충 묶은 머리가 풀려 휘날렸다. 갈대들도 바람 따라 흔들렸다. 남자랑 눈이 마주치고 아주 오묘한 기분이 바람을 따라온 건지 마음을 흔들었다.

“풍경이 너무 예쁘죠? 봐요, 내가 엄청난 거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네요. 아주 잠깐, 풍경 덕분인지 몰라도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맞다. 풍경과 그 풍경을 뒤로하고 나를 보는 남자의 웃는 모습이 그녀를 닮아서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버렸다. ‘그래, 어차피 짧은 여행인데 의심하고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시간도 아까우니 신경 쓰지 말자.’ 라고 생각했다.

“나 나쁜 사람 맞는데.”

생각 취소할까. 싶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남자는 그 말을 끝으로 저 혼자 어디론가 가버렸다. 나는 혼자 남아 조금 더 이 풍경을 만끽하기로 했다.

오후가 돼도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와 함께 이곳을 구경하기로

했다. 자전거를 타고 우리는 달렸다. 달리며 둘러봐도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참 수상한 사람.’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경 쓰여?”

그녀가 물었다.

“너는?”

아직도 그녀의 행동이 이해 가지 않았다. 그렇기에 말했다. 그러자 그녀가 멈췄다. 멈춰 선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에 나도 그녀를 바라본 채 기다렸다.

“그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응 저번에 카페에서 봤잖아.”

“아니, 예전에 말이야.”

“예전?”

“응 너 그렇게 되기 전.”

한참 뒤 그녀가 꺼낸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그랬지? 그때 그날 너 말고 거기에 분명 누군가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너희 집에 가던 길 분명 누가 너희 집에서 나오는 것을 봤고. 그 남자, 닮았어. 그때 봤던 사람이랑. 느낌이 비슷해.”

순식간에 내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 나를 본 그녀의 표정 또한 굳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 웃으며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만나 싫을 정도로.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그해 역대 최고의 무더위라고 뉴스에서 떠들어대던 날이었다. 그날 나는 다른 때와 다름없이 집 앞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포장해서 집에 가고 있었다. 다리가 불편해 혼자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가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절로 걸음이 빨라졌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니 이걸 보고 행복해할 것이 떠올라 전혀 힘들지 않았다. 집 앞에 다다랐을 즈음 문득 불안감이 엄습했다. 집 주변 가로등도 다 꺼져있었고, 어두운 것을 싫어하는 아버지인데 바깥에서 보이는 빌라 2층, 아버지 방의 불도 꺼져있었다.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혹여 움직이다 큰일이라도 났을까 싶어 다리는 이미 뛰고 있었다. 서둘러 올라가 문을 벌컥 열자, 나를 반기는 것은 어둠이었다.

“아버지, 아버지!”

전기가 나간 것인지 현관 불도 들어오지 않았다. 불안함에 집안 곳곳을 헤집어 다니며 아버지를 찾았지만, 너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 서둘러 휴

대폰의 플래시를 켜지만, 그 빛이 비치는 곳의 장면은 나를 경악하게 하기 충분했다. 피 칠갑을 한 아버지, 그리고 누군가의 발. 덜덜 떨리는 손에서 툭하고 포장해온 떡볶이가 떨어졌다. 포장된 떡볶이의 비닐이 터져 새어 나온 떡볶이가 발에 닿았지만 뜨거운 것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나는 겁에 질려있었다. 내가 빛을 위로 비쳐 그 사람을 보려고 하자 그 사람은 달려 나를 밀치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고, 놀란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불이 들어왔다. 방 전체가 밝아지자 이곳이 내 방임을 깨달았고, 아버지가 죽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 옆에 그를 난도질한 도구로 보이는 칼이 떨어져 있었고, 나는 그 칼에 엉겨 붙은 피에 기겁하며 아버지를 붙들고 오열했다.

“까아아아악!”

뒤에서 비명이 들렸고, 돌아보니 그녀였다.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녀가 집으로 들어와 정황을 물었고, 뉘이 나간 나와 대화가 되지 않을 듯싶어 경찰을 불렀다. 그렇게 부녀 둘이 살던 따뜻했던 집은 한순간에 범죄 현장이 되었다.

경찰은 처음엔 그녀와 나의 진술, 즉 목격자의 진술에 의지해 범인을 찾으려 했으나 수사가 길어지고 도저히 범인이 잡히지 않자 나와 그녀를 공범으로 몰아갔다. 어려운 가정환경에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나 뭐라나. 그러면서 보험 회사에서도 보험금을 주려 하지 않았다. 이에 나는 기가 찼지만 나와 그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힘썼다. 하지만 그들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렇게 판단이 들자 이 일에 그녀를 개입시켜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백했다. 하지 않은 일을 꾸며 내 입으로 말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지만, 억울했지만 그때는 이것이 최선이였다. 그렇게 나는 존속살해죄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11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내게 남자가 진범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려는데 순간 중심을 잡을 수 없어 넘어졌다. 멍하니 넘어져 있는 나를 그녀가 부축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쓰러져있는 자전거를 뒤로한 채 오두막으로 걸어갔다. 가는 동안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굳은 표정을 한 채로.

오두막에 도착하니 온통 어둠뿐인 곳에 오두막만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분명 나올 때 불을 다 끄고 나왔을 테니 지금 저 안에 남자가 있다는 추측이 가능했다. 나는 오두막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때 그녀가 내 손목을 붙잡아 돌려세웠다.

“침착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맞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더 침착해야지. 우리는 계획대로 여행을 즐겨야지. 그래야 그도 우릴 의심하지 않지 않겠어?”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영롱하게 빛났다.

“알겠어, 진정했어. 그만 들어가자.”

이번엔 내가 반대로 그녀의 손목을 잡고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녀는 내가 진정했다고 판단했는지 말없이 나를 따라왔다.

“왔어요? 너무 늦게 와서 기다리느라 목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는 무언갈 하던 중이었는지 부엌에 서서 우리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뭐 하는 거죠?”

내가 말했다. 내 어조가 조금 날카로웠는지 그가 돌아서 우리를 바라봤다.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아침에 내가 얻어먹었으니까 저녁은 내가 대접하고 싶어서 부엌 좀 빌려 썼습니다. 기분 나빴다면 사과하죠.”

그는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그러더니 하나씩 식탁에 옮기며 식탁 위를 채워나갔다.

“앉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와서 밥 먹어요, 나 요리 꽤 잘하거든요. 기대해도 좋아요.”

식탁에 앉아 우리를 바라보며 남자가 말했다. 그때 그녀가 먼저 식탁에 가 앉았다. 그녀를 따라 나도 옆에 앉았다.

“어머, 이걸 혼자 다 한 거예요? 맛있겠다. 잘 먹을게요.”

그녀는 녀살 좋게 웃으며 남자에게 말했다. 남자는 웃으며 맛있게 먹으라 말했지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여전히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다.

“혹시 지금 하는 일이 있나요?”

생각 끝에 내가 뱉은 말이었다. 그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너무 없었기에 질문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온통 날 선 말들뿐이라 평범한 질문은 저것 하나 뿐이었다.

“그건 갑자기 왜 묻죠?”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럼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죠?”

“내가 먼저 물어본 것 같은데?”

“유치하군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죠?”

남자는 끝내 자신의 직업을 말하지 않았다. 저녁을 다 먹고 나갈 때까지도. 다른 모든 정보에 대한 질문도 미꾸라지처럼 답을 회피하는 덕분에 내 기분

은 최악을 향했다. 그가 나가고 우리는 통한 듯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따라 나갔다. 그는 어두운 숲속을 마치 밝은 길을 걷는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걸어갔다. 마치 이 길을 아는 사람 같았다. 길을 잃었다는 말은 거짓이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숲속은 조용하지 않았다. 시종일관 곤충과 새가 울어대는 통에 우리의 소리가 묻힐 정도였다. 그랬기에 들키지 않고 그를 따라갈 수 있었다.

그의 뒤를 밟아 도착한 곳은 작은 텐트였다. 그는 그곳에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한참 있다가 다시 나와 어디론가 향했다. 그녀와 나는 눈을 마주치고 서로 각자의 길을 출발했다. 나는 그의 텐트로, 그녀는 그를 따라갔다. 그의 텐트에는 불을 켤 수 있는 도구가 하나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휴대폰 후레시를 켜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가 돌아오려 하면 그녀에게 연락이 올 터이니 그때 불을 켜고 달아나면 그만이었다. 그의 텐트에는 별것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던 즈음 발에 뭔가가 밟혔다. 순간 따가워 아야-하고 그 정체를 알기 위해 발밑을 봤다. 그곳에는 그때 카페에서 그가 열심히 적고 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수첩이 있었다. 감이 이 수첩이 모든 것을 설명해줄 것이라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 그녀에게 문자가 왔다.

‘그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 10분 뒤면 도착할 거야.’

별써? 그녀의 문자에 나는 초조해졌다. 서둘러 수첩을 열었다. 앞의 몇 장은 찢겨 없었다. 나는 첫 장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찰각- 찰각- 조용한 텐트 안에서 카메라 셔터음만이 들렸다. 다 찍은 나는 서둘러 그 텐트를 나와 숲속에 숨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였다. 그는 텐트 안으로 들어갔고, 뒤따라온 그녀가 내게 합류했다. 우리는 우리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오두막에 돌아와 우리는 정보를 공유했다. 그녀가 그를 따라갔을 때 그는 갈대밭으로 가 갈대밭을 15분 정도 바라보더니 혼잣말을 하고 다시 텐트로 돌아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별 소득이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뭐라고 했는데?”

“음 잘 안 들렸는데, ‘예쁘네.’ 라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잘 보이지도 않는 갈대밭이 예쁘다니 알다가도 모를 감성이야. 오늘은 달도 안 보여서 어둠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순간 그녀의 말에서 뭔가가 걸렸다.

“그렇지? 어둠 때문에 안 보일 텐데 숲길도 뽁뽁 빠르게 걸어갔고, 텐트에선 불도 안 켜고, 어둠 속의 갈대밭이 예쁘다고 했던 말이지? 마치 10년 전 그 어둠 속에서 정확히 목표물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던 것처럼.”

그녀의 표정에 경악스러움이 묻어났다.

“세상에 나 소름 돋아. 그 텐트 안에는 뭐 없었어?”

나는 그녀에게 텐트에서 사진을 찍어왔다고 하며 그녀 옆으로 앉았다. 그리고 하나씩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진>

2007년 06월 18일

오늘 드디어 당신이 사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당신은 고작 다리를 다쳤지만, 당신이 운전하던 차에 탄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당신의 거처를 알아냈습니다. 당신에겐 딸이 있더군요. 저와 나이는 비슷해 보였습니다. 제가 당신을 죽인다면 그녀도 제게 복수하려 할까요. 그런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것이 내겐 최대 불행입니다. 7월 22일 나는 당신을 죽이러 갈 겁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다. 이에 그녀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다리를 다치기 전 아버지는 택시 운전기사였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나고 아버지는 일을 그만뒀다. 그때 당시 뒷좌석의 손님이 사망하였지만, 그 사고는 아버지의 탓이 아니었기에 나는 아버지의 치료에만 신경 썼었다.

<두 번째 사진>

2007년 06월 26일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은 제 부모의 장례식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병 때문에 밝은 곳에선 잘 보지 못하니 당신의 집 주차장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올라오는 것이 화가 났는지 당신은 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내게 와 화를 내더군요. 사실 그때 충동적으로 당신을 죽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했으니 지켜야지요. 나는 화를 내고 딸에게 돌아가는 당신에게 물었습니다.

“고작 다리만 다치셨네요, 제 부모와 달리. 좋으시겠습니까.”

당신은 당황한 듯 제게 다시 돌아오더니 말하더군요.

“자네, 자네가 여기 어떻게.”

“졸음운전 하신 것 다 압니다. 제가 그때 저희 부모님과 통화 중이었거든요. 당신에게 다섯 번이 넘게 졸음운전에 대한 주의를 줬는데도 당신은 사고를 냈어. 그래놓고 뭐? 사고사? 당신은 반드시 내 손으로 찢어 죽일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난 집으로 갔습니다. 아까 당신 표정 여전히 생생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역겨운 표정이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블랙박스도 없었으니. 하지만 내가 압니다. 오직 나만 아는 것이 문제지만, 그렇기에 당신을 꼭 내가 죽일 겁니다.

졸음운전이라니. 아버지가 졸음운전이라니. 전혀 몰랐다. 글을 보던 그녀도 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나는 서둘러 사진을 넘겼다.

<세 번째 사진>

2007년 7월 21일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일 겁니다. 내 눈은 어둠에 아주 익숙하니까 나는 새벽이 되면 작업을 하러 갈 겁니다. 내일 하루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될 겁니다. 어둠만으로 가득 찬 마지막으로 되겠죠.

그리고 저의 마지막이기도 할 겁니다. 나도 당신도 아마 천국엔 가지 못할 거지만 억울한 것이 있다면 그곳에서 따지기로 하죠.

부모님은 분명 천국에 가셨을 거야. 만날 수 없을 테지. 오늘 밤 꿈에라도 나타나 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기려는 손이 덜덜 떨리다 못해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주우려는데 그 앞에 발이 보였다. 그때랑 똑같았다.

“둘이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남자였다.

“제 텐트에 도둑이 들었나 봐요. 이거 원 무서워서 잘 수가 있어야죠. 저 오늘 여기서 채워줄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오늘 저도 제 친구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미안해요.”

내가 손뿐 아니라 몸까지 덜덜 떨자 그녀가 말했다.

“아니야 채워 드려. 괜찮아요. 화장실 옆에 방 하나 있는 거 알죠? 그곳에서 자면 돼요.”

나는 차마 그를 바라보지 못하고 말했다. 이에 그는 고맙다고, 잘 자라고 말하고 화장실 옆의 방으로 향했다.

“오늘 하자.”

그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오늘? 그래, 네가 하고 싶다면 그러자.”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봤지만 이내 순응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다. 여행의 끝을 맞이할 준비를.

준비는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됐기에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이뤄졌다.

이미 그녀가 모든 것을 준비해놨기에 순조롭게 진행됐다. 역시 준비가 안 된 것은 나뿐이었나 보다. 준비를 마치고 우리는 정해진 시간이 되길 기다렸다. 나는 기다리며 마저 그의 수첩을 찍은 사진을 보기 시작했다.

<네 번째 사진>

2007년 7월 22일

당신을 죽이러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없는 시각, 가로등의 불이 나가고 정전이 되었지요. 네겐 아주 익숙한 어둠이라 당신의 집에 들어가 당신을 마주하는 일은 제겐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태도는 내게 아주 불쾌감을 주더군요.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그 상황에서 아주 침착한 당신이 난 더 증오스러웠습니다. 당신은 늘 있던 당신 방이 아닌 다른 방에 있더군요.

“나를 증오하는 마음 다 이해합니다. 나는 그쪽한테 죽어 마땅한 존재겠지. 아 이 사진 속 아이가 제 딸입니다. 아주 예쁘죠?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딸아이가 곧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 나를 죽이는 장소가 이 집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마음이 여린 아이라 상처를 많이 받을 겁 커-”

나는 당신의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역겨웠거든요. 훌륭한 우리 부모를 죽인 살인자 주제에 훌륭한 부모인 척하는 당신이 너무 역겨웠거든요. 한 번 터진 분노는 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는 당신을 찌르고, 찌르고, 찢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살갗이 너덜너덜해질 때 즈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놀라 당신에게 떨어져 섰고, 현관을 보니 당신 딸이 돌아왔음을 알았습니다. 이성을 잃어 시간이 지난 줄 모르고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목격자를 만든 채로 달아났습니다. 마지막 봤던 당신 딸의 표정을 나는 잊지 못합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당신 말을 들을 걸 후회했습니다.

나는 울었다. 그 사건 후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런 나를 보던 그녀는 내게서 휴대폰을 달라고 했다. 이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가 자고 있을 방의 문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증오와 연민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다섯 번째 사진>

2018년 8월 16일

11년 전 나를 잡지 못한 경찰은 그녀를 범인으로 오인했었는데, 오늘은 아

무 죄 없이 징역살이한 그녀가 출소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 수첩을 다시 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그녀를 다시 봤습니다. 그녀는 11년 전과 달리 눈에 생기가 없고, 고생을 많이 한 얼굴이더군요. 내게 그녀는 죄책감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라도 그녀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내게 복수할 기회를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나는 서둘러 다음 사진으로 넘겼다.

<여섯 번째 사진>

2018년 8월 17일

그녀가 여행을 가나 봅니다. 그녀의 친구가 갑자기 말을 걸어 당황했습니다.

“제 친구가 그쪽이 맘에 드나 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녀의 친구는 시무룩해져 그녀에게 가더니 뭔가 말하더군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여린 그녀이기에 그 후로 웃지 않으면 어쩌지 했는데 다행히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여행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기회를 얻기 더 쉬울 테니까요.

더는 사진이 넘어가지 않았다. 마지막 장이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계획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왜 그래? 이제 곧 시작이야.”

그녀가 그의 방으로 다가가는 내게 불안한 듯 말했다.

“나는 복수하지 않아. 여행만 끝낼 거야.”

우리의 준비된 계획은 시작됐다. 마지막 점검을 위해 나는 그가 있는 방의 방문을 열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자는 것인지 자는 척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누워있었다.

“지금이라도 나가요. 내가 당신에게 복수하길 원한다면.”

나는 문을 열어둔 채 그녀에게 걸어가며 누워 있는 그를 향해 말했다.

“나가, 당신은 죽어선 안 돼.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 이게 내 복수야. 당신은 꼭 살아.”

그 말을 끝으로 그녀와 나는 끈에 각자의 몸을 의지했다. 온몸이 살기 위해 몸부림쳤고,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는 놀란 표정이었다. 그 순간 우리 주변

엔 불길이 샘솟았고, 우리는 그렇게 여행을 마쳤다.

타오르는 불길 속 남자는 멍하니 그들을 보며 서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여자가 자신을 향해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순간 ‘살아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때부터 그의 행동은 빨라졌다. 그는 불길을 헤집고 그녀들의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빠르게 찾았다. 쿵쿵쿵-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지만 찾아야 했다. 개어놓은 이불 옆에 그녀들의 모든 짐이 들었을 가방 두 개가 놓여있었다. 남자는 그것들을 집어 눈앞의 열린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겨우 빠져나갔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오두막 앞에 털썩 소리가 나게 주저앉았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그는 그녀들의 가방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김병훈

『정리해고』

정리해고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무덤덤한 표정을 하고서 그렇게 말했다. 평소에도 딱히 감정이 풍부
한 표정으로 말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덤덤하다고 할 순 없을지도
모른다. 일부러 평소보다 메마른 태도로 대하려는 게 무덤덤함이니까. 평상
시에도 그렇다면 그저 평소에 짓는 표정일 뿐이다. 그녀는 나를 평소처럼 대
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고 그 표정에 담긴 의미를 짐작하며 몇 초 쉬었다 답했
다.

“맞네요. 이미 한 번 믿지 않게 되면, 아무리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해도 못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고서 머금고 있던 숨을 조용히 내뿔으며 말을 잠시 쉬었다. 목소리나 표
정 또는 태도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긴 싫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몸가짐을 최대한 가다듬고 다시 말을
이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요.”

나와 그녀는 같은 장소에 마주 보며 서 있었다.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한 순
간 그녀는 평소처럼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려다가, 기대는 것까지는 그만두
었지만 손과 팔을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두어야 할지 몰라 조금 두리번거렸
다. 고민 끝에 그녀는 기대지 않고 팔짱을 끼고 섰다. 난 딱히 그게 어떠한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자세는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평소에도 그랬으니
까. 나는 손을 허벅지에 올리고 섰다. 주머니에 넣지는 않고 외려 손바닥으
로 덮는 느낌으로. 차렷 자세를 하고 서 있기에는 그녀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기도 했다.

오늘 그녀가 나를 부를 때면 왠지 이름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소리는 분
명 입에서 이와 잇몸 그리고 혀가 부딪혀 허공으로 나왔지만 내 귀에 제대
로 와닿지 않았다. 실체가 없는 느낌이었다. 나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
라, 그녀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그녀가 마음에서 없앤 내 이름
은 마치 지우개로 지우려다 말아버린 글씨 같았다. 존재는 느낄 수 있지만
알아볼 수 없는. 그렇게 들렸다. 나는 그렇다는 것을 느끼고서 조금 싫어졌
다. 내 마음속 그녀 이름 또한 그렇게 지우려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무서워요. 계기는 사

소하다고 해도 말이에요. 당신이 나와 이야기한 것 중 얼마나 하찮고 사소한 이야기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무의식중에 어디선가에서 내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무서워요.“

그녀는 말을 천천히 했다. 말 중간마다 숨을 섞어가며 내게 답했다. 나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는데 버릇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무덤덤하게 얘기하려 애쓰는 건지, 아니면 그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일이라고 결론을 지은 건지 짐작해보았다.

딱히 분명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다. 분명한 건 후자가 내게는 좀 더 슬플지도 모르겠다.

“알아요. 우울하고 기분 안 좋고 그러면 어디라도 말하고 싶은 거고. 그렇지만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

그녀가 말할 때마다 나는 생각하고 고민했다. 어떤 의미인 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대화를 듣고 있다는 반응만 해야 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꺼내도 될지. 후자라면 어떻게 말을 해야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나를 불안에 떨게 했던 미지의 것들을 그녀에게서 들을 수 있을지.

나는 결국 반응만을 내비쳤다.

“……이해했어요.“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다. 발끝을 세워서 바닥에서 까딱거린다고는 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금은 벽에 기대고 있었다. 집중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려면 편하게 느끼던 자세가 좋을 것 같긴 했다.

“불안하니까 그런 거 알아요. 연락이 잘 안 되었으니까, 그때. 그렇지만…… 당신이 제가 좋다곤 해도 제가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서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시선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바라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당당하게 바라보지도 않았다. 누군가를 혼낼 때 잘못된 여부를 묻는 과정은 그 사람을 계속 볼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뤄진다. 나는 점점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다. 이건 통보다. 그래서 그녀를 그저 무덤덤하게 바라보았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상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선의를 베풀지 말라고 했다. 부채감을 느낀다고 했다.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내게 주면 미안해진다고. 자기는 그 미안함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다.

말하지 않은 걸 실수한다면 그건 말하지 않은 사람 잘못이지만, 말했던 것을 실수한다면 그건 듣고도 잘못을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녀도 나

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속마음을 세 겹 정도 헝겊으로 감아 억누르고, 최대한 감춰가며 답했다.

“전에는 딱히 제가 당신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기쁘면 기뻐지. 근데 요 며칠간, 제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드러나 보인 걸 보면……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녀는 아까보다 조금 더 길게 말을 쉬었다. 표정을 가다듬으려는 것 같았다. 애써 무덤덤한 척하려는 걸지도 모른다. 전에 그녀가 말했었다. 당신이 싫으면 싫다고 했을 거라고. 하지만 모른다. 확실한 건 아니다. 나는 그녀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기억나면서 그녀도 이 통보를 하기까지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라고 나 혼자 생각하는 걸지도 모른다. 헤어지기 싫어한다고 믿는 걸지도 모른다. 그 누구도 모를 테다. 그녀가 직접 속마음을 말하기 전까지는. 당신을 무척 좋아한다고. 많은 걸 주고 싶고 아프다고 하면 챙겨주고 싶다고.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쁘다고. 내 속마음은 그렇지만, 만약 그녀는 그렇지 않다면. 이미 모든 것을 정리했고 내 예측대로 이것이 통보일 뿐이라면. 그녀가 준비했던 말들을 전하기 위해 아껴놓았던 정나미조차 고갈시키고 좋지 않게 끝날 것 같아서 두려웠다.

나는 그래서 속마음을 숨겼다. 헝겊을 더 둘러서 풀리지 않게끔 매듭까지 지었다. 나는 그녀가 이제부터 어떤 말을 하려고 할지 잘 안다. 정을 주고받고, 관계를 지속해가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에 있어 나는 그 누구보다 서투르다. 그녀도 그걸 알았고, 그 서투름이 귀여워 좋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전 서투른 정도가 아니었기에. 나도 그녀도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내 생각대로 말을 이었다.

“사람에 너무……매몰되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가만히 있어주지도 않아요.”

그 말을 듣고서 나는 일단 생각했다. 나는 당신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매듭은 내가 의도한 대로 단단히 묶여, 그 말을 하지 않게끔 막았다. 그리고서 생각은 다시 나아갔다. 그게 아니라 해도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런 거겠죠. 이 모든 건 결국 그렇기 때문 아닐까 하고서. 나는 언제 어디선가 너무 과한 선의는 악의로 다가갈 수도 있다는 글귀를 읽은 기억이 있다. 지금이 그런 경우 아닐까. 나는 그렇게 속으로 몇 번씩 그녀의 말을 생각하고 살펴보고서 결론을 내렸다. 결론 대부분은, 조용히 듣

는 것이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란 것도 아니고……그냥 평범해요. 그냥 저에 비해 오픈된 사람인 거고……그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힘든 관계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힘들어서 숨어들면, 당신은 또 불안해할 거고.”

전에 어디선가 이 말을 듣고 이 광경을 보았던 것 같다.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이상 있다는 건 사람과 깊게 교류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지도 모른다. 한 번 실수한 걸 두 번 실수할 정도로 고칠 수 없고 서투르다는 거니까. 나는 그녀의 말이 가진 뜻보다 익숙하다는 것이 더 슬펐다.

그녀는 마지막 말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내가 가져다주는 다정함에 대해 차가운 듯하면서도 기분이 내킬 때면 좋아해 주는 게 좋았다. 관계에 있어 상처를 입고 어딘가 두려워하며 서투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느꼈다. 그녀도 마찬가지로였기 때문에 처음으로 나눈 대화가 그런 이야기 아니었을까. 사람 대하는 게 무서워요. 저도요. 하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우습게도, 나와 그녀는 서로 끝이라는 걸 느끼고서는 놀랍도록 프로처럼 행동하고 있다. 겉으로는. 속은 어떨지 모른다. 그녀도 내 속이 어떨지를 살피고 있을까. 아니, 반대일 테다. 나는 나 자신에게 솟아있는 가시를 잊어버리고 다가가는 사람이고, 그녀는 가시를 세우고서 멀어지는 사람이다. 아마 이 이야기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지를 고민할 것이다. 애초에 시작부터 말았어야 했을 거라 생각할 것이다. 더욱더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을 무서워할 것이다.

나는 그녀와 곧 헤어지게 된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이후에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 더 큰 두려움과 죄책감이 들었다. 진심으로 후회되기 시작했다. 서투름에 대한 원망도 끓어올랐고. 가시가 없었다면 그 한 발자국 때문에 그녀를 찔러 상처 입히는 일도 없었을 테니까. 내가 서툴러서 그런 거니까.

사소한 계기였을 뿐일지도 모른다. 언젠가 무너질 관계라는 건 서로 느꼈고 확인했다. 나는 그렇게 겨우 마음을 동여맨 매듭을 고쳐 묶고, 겹쳐히 고개를 들었다.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잘 지내요.”

나는 답했다.

“당신도요.”

그녀는 참제비고깔이 한 아름 담긴 꽃병이 있는 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내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로.

뒷모습을 기억에 담으려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이미 닫힌 문에는 달린 풍경만 몇 번 울려 정적을 매몰할 뿐이었다.

송나운

『헤르츠』

헤르츠

나의 언어를 이해하는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대답이 돌아오지 않아도 쉬지 않고 외치는 것. 상상만 해도 두렵고, 외로운 일이다. 12~25헤르츠의 주파수를 통해 소통하는 일반적인 고래들과 달리, 52고래의 주파수는 52헤르츠였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 한 마리가 있다. 고래의 이름은 ‘윌튼’이다.

그는 어릴 적 인간에게 부모를 잃은 뒤부터 자신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부모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을 무렵, 가장 처음 마주친 건 불가사리 아줌마였다. 혼자 있는 어린 고래, 윌튼에게 불가사리 아줌마는 말을 건넸다. “애, 너 왜 혼자 있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엄마랑 아빠는 인간에게 잡혀갔어요.” 윌튼은 훌쩍이며 대답했지만, 불가사리 아줌마에겐 빼꼼거리는 윌튼의 입밖에 보이지 않았다. “저런, 어린 나이에 병어리라니……” 불가사리 아줌마는 꼴꼴, 하고 혀를 차곤 자리를 떴다. 윌튼은 가만히 있다가, 눈물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때, 윌튼의 눈에 작은 새우 가족이 띄었다. 새우 가족은 윌튼의 눈을 피해 돌덩이 뒤에서 숨죽인 채 떨고 있었다. 윌튼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새우 가족에게 말했다. “저기, 저는 당신네 가족들을 잡아먹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제 목소리가 들리는지만 말해 줄래요?” 작은 새우 가족에게 윌튼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기 만무했다. 겁에 질린 새우 가족은 그저 윌튼이 자신들을 저 커다란 입속에 넣지 않기만을 염원했다. 윌튼은 풀이 죽은 채로 인사를 했다. “아이참, 나는 당신들을 잡아먹지 않는데도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윌튼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이동하다가, 한 고래 무리를 마주쳤다.

윌튼은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한 고래들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난 윌튼이라고 해요. 저도 그 무리에 들어가도 될까요? 절대 피해 끼치지 않을게요.” 그러자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고래가 윌튼에게 다가왔다. 고래는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하는 거야. 알아듣게 말하라고!” 무서운 표정을 한 고래에게 윌튼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윌튼은 황급히 고래 무리에게서 도망쳤다. 윌튼은 정처없이 떠돌다가 자리에서 가만히 생각했다. ‘이렇게 평생을 혼잣말만 하다가 살아야 하는 걸까? 만약 세상에 내 말을 알아듣는 이가 아무도 없다면, 그땐 어떡하지?’ 문득 두려움에 휩싸인 윌튼은 52헤르츠의 주파수로 외쳤다. “거기 제 목소리 들리는 분 없으신가요?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간절한 윌튼의 바람이

무색해지게도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월튼은 또 울음을 팡 터트리고 말았다. 새우 가족이 그렇게나 무서워하던 커다란 고래는 어디 가고, 영락없이 부모 잃은 아이의 꼴을 하고 있었다. “흑흑,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다른 물고기들은 평생 듣지 못할 월튼의 울음소리가 바다에 울려 퍼졌다. 월튼은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제풀에 지쳐 부모님과 노래를 부르던 그때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월튼은 애써 언젠간 말이 통하는 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위안했다. 그리고는 힘차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렇게 월튼은 하루, 일주일, 그리고 일 년이 지날 때까지 바다를 여행했다. 당연히 일 년의 시간 동안 월튼의 말을 알아듣는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없었다. 하지만 월튼은 좌절하지 않았다. 월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으며 바다 어딘가에서 노래하고 있다.

윤혜인

『청첩장』

청첩장

늦은 저녁, 부쩍 짧아진 해 때문인지 잔뜩 움츠린 어깨의 여자는 버스에서 내렸다. 여자는 얼굴을 찌푸렸다. 습관처럼 뜯는 손가락에 박인 굳은살은 단단하게 굵아 아릿했다. 여자는 평소보다 느린 걸음으로 익숙한 길을 걷는다. 그해 봄, 그들을 축복하듯 핑크빛으로 물들었던 길은 생명을 잃은 듯 죽은 핏빛을 띄고 있었다. 그리움은 눈치가 없다.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이따금 찾아온다. 희석된 감정에 못난 추억은 미화된다. 젖은 낙엽을 밟으며 여자는 남자를 처음 만났던 계절을 떠올렸다.

여자는 도서관 사서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책에 둘러싸인 여유로운 직장생활을 꿈꿨던 여자는 만만찮은 현실에 부딪혔다. 반창고와 파스 가득한 서랍, 빼적거리는 손목. 책을 읽기는커녕 책의 위치만 외우는 신세였다. 추운 겨울이 오고, 세상이 칙칙해 보인다고 느낄 때쯤 여자는 남자를 만났다.

사서인만큼 여자는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자주 봤다. 책을 내미는 손. 큼직하고 가느다란 그의 손은 그 겨울의 눈처럼 하얗다. 그 손에 들린 책은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다. 자연스레 남자의 얼굴로 시선이 향했다. 새하얀 손보다는 그을린 얼굴. 이 추운 겨울에 어디서 그을렸을까, 이 책은 처음 읽는 걸까. 호기심이 생겼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만큼 넉살 좋은 성격은 아닌 탓에 어색한 눈인사로 그를 그냥 지나쳤다. 여자는 그날 밤,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던 자신을 탓했다. 그저 그가 올 반납일을 기다릴 뿐이었다.

다행히도 그는 예정된 날보다 훨씬 일찍 책을 가져왔다. 그의 멀끔한 얼굴에 여자는 반가웠다. 도서관의 침묵을 깨고는 “이 책 재밌게 읽으셨나봐요.” 불쑥 나온 말에 앓차, 싶었던 여자는 남자의 눈치를 살폈다. 다행히도 남자는 주위가 환해지는 미소와 함께 고개 끄덕이며 대답을 대신했다. 여자는 그 날 이후로 남자를 도서관에서 자주 볼 수 있었고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여자는 어느새 남자의 이름을 집에 가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남자의 책 취향은 한결같았고, 여자는 그 책들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자는 지겹다고 생각되었던 도서관 가는 일이 기다려졌다. 새하얀 세상 위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던 이른 아침, 도서관 앞에 서성이는 남자를 보았다. 아직 개방시간이 아닌데 온 남자에 이상하게 생각한 여자는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 머뭇거리던 남자는 여자에게 자기소개를 했다.

그와의 연애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남자는 글을 쓰는 작가였다. 여자를 관찰하며 쓴 소설을 여자에게 선물했다. 여자는 남자의 손 글씨로 빼곡하게 쓰

인 소설에서만큼은 주인공이었다. 여자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와 연애를 한 여섯 계절은 눈 깜박할 새에 지나가버렸다.

이별은 쉬웠다. 남들이 들으면 시시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가 연애할 적 자주 말하던 전애인. 그 사람의 존재를 알면 알수록 여자는 점점 불안해져갔다. 그들만의 견고한 믿음이 생기기도 전이었기에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와의 첫 만남부터 시작되었던 회상은 여자가 집에 도착하자 끝이 났다. 새하얀 원피스 옆으로 멘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다. 남자의 이름 석 자와 함께 적힌 다른 여자의 이름. 여자는 참았던 울음이 새어 나왔다.

진주현

『익명으로부터의 안식』

익명으로부터의 안식

이름 모를 화살들이 날아온다. 어디서 왔는지, 누가 시위를 잡아당겼는지 알 수 없는 이름 모를 화살들이 날아온다. 축이 날카로워 스치기만 해도 피가 철철 난다. 그런 화살들이 여러 곳에서 날아온다. 어디에서 어디로 날아오는지 알 수 없다. 살 방법은 일단 뛰는 것이다.

울창한 숲의 나무들 사이 사이로 맨발의 그는 긴박한 발걸음 옮긴다. 긴박한 그 발 옆에 화살촉이 날아와 땅에 박힌다. 어디서 날아오는 것인지 알고 싶지만, 뒤를 돌아볼 여력이 없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의 심장에 화살촉이 날아와 박힐 거 같다. 화살이 스치고 간 그의 오른쪽 팔뚝에선 이미 붉은 것이 흘러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 또한 막을 겨를이 없다.

동굴을 찾아야 했다. 작은 굴이라도 좋다. 일단 저 정체 모를 화살을 피할 작은 은신처가 필요했다. 살기 위해선 그래야 했다. 발에 가시가 박히더라도 일단 뛰어야 했다. 화살이 찢고 지나간 옷깃으로 찬 바람이 들어와 상처를 괴롭히더라도 일단 앞만 봐야 했다. 그의 간절함에 신이 응답이라도 한 듯 그는 작은 동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그 순간 신의 존재를 믿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신의 응답에 대답했다. 당신만을 위한 삶을 이제부터라도 살겠다고 말이다.

그 동굴은 정말 작고 작았다. 가녀린 그의 몸을 잔뜩 웅크리고 들어가 간신히 화살을 피할 만큼 작았다. 화살은 쉬지 않고 그를 향해 날아왔다. 다행히 작은 동굴이 그를 화살로부터 막아주고 있었지만 언제 다시 방향을 틀어 날아올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주변의 낙엽으로, 그의 낡은 옷으로 붉은 것을 애써 지웠다. 찢어지고 파인 그 상처를 닦아내면서도 그는 주위를 경계해야만 했다.

그는 궁금했다. 자신이 왜 정체를 알 수 없는 다수의 것에게 쫓기고 있는지 말이다. 그는 웅크린 몸을 더 작게 말고는 생각했다. 내가 다수의 눈 밖에 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이다. 생각나는 이유는 없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났다. 그렇게 자라난 생각은 점점 그를 자책의 벼랑 끝에 몰아넣었다. 이윽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자책은 그의 욕심까지 앗아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하며 자책했고, 삶에 대한 욕심까지도 버렸다.

그 순간에도 익명의 화살촉은 여전히 그를 향해 날아왔다. 방향을 조금만 더 튼다면, 혹은 그가 몸을 조금만 더 내민다면 다시 붉음이 그를 뒤덮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는 무섭지 않았다. 그는 홀린 듯 그 동굴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리고 날아오는 화살들을 바라보았다. 푹. 푹. 푹. 날카로운 화살촉이 그의 심장에 박힌다. 붉은 것이 힘없이 흘러내린다. 딱. 딱. 딱.

그는 평화로워 보였다. 삶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때보다 그 욕심을 버린 그 순간이 지금껏 그의 모습 중에 가장 평화로워 보였다. 결국, 신은 없었다. 그의 간절함에 응답해줄 수 있는 신은 없었다. 그러니 더는 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됐다. 그는 그를 위한 안식을 택했다.

이제 그 익명의 화살들은 또 다른 동굴 속의 그를 찾아 날아가겠지.

박재은

『여름의 체온』

여름의 체온

체육시간이었다.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와 이름 모를 풀벌레들이 합심해 시끄럽게 울어대고, 따가운 햇살이 끈덕지게 나를 괴롭히는 날. 유난히도 여름 냄새가 강하게 느껴지는 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나는 그늘진 계단에 쭈그려 앉아 다른 녀석들이 신나게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운동장에선 축구공이 발과 발 사이로 정신없이 굴러다니고, 운동장 바깥에선 11살의 시험 치고 제법 살벌하게 피구공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일은 껍이나 지루했다.

“나도 여기 앉아도 돼?”

감흥 없는 표정으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던 중, 들려온 목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 아이가 내 앞에서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아이는 피부가 살짝 익어있었고, 자주 넘어지기라도 한 건지 다리 군데군데 자잘한 흠터가 있었다. 우리 반 반장이었던가? 갑작스러운 부름에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눈길을 주었지만 그것 뿐이었다. 딱히 대꾸를 하고싶은 마음도, 기력도 없었던 나는 다시 정면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렇게 하면 얄전히 돌아갈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아이는 내 옆에 털썩 주저앉아 녀석 좋은 웃음을 지었다.

“넌 피구가 좋아, 축구가 좋아?”

“...둘 다 싫은데.”

“아, 그러고 보니까 넌 체육시간마다 쉬고 있었지? 깜빡하고 있었네.”

관심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지나친 관심은 부담스러울 뿐이었다. 나는 엉덩이를 움직여 그 아이와 살짝 거리를 두었다. 마치 고양이가 처음 본 사람을 경계하는 것처럼, 이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듯이. 나는 그 아이를 무시할 것이라 제멋대로 다짐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느껴지는 시선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그 아이는 나를 뻔히 바라보더니 내가 했던 것처럼 엉덩이를 움직여 다시 나와 가까이 붙어 종알종알 말을 걸어댔다. 가까이 맞붙은 피부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넌 친구 안 만들어?”

“...“

“맨날 혼자 있는 것 같던데... 안 심심해?”

“...“

“나랑 친구 할래?”

“더우니까 좀 떨어져.”

나는 그 아이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고 한 마디를 툭 던졌다. 그 아이는 꽤나 당황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깜빡이기를 반복하다 나와 살짝 거리를 두었다.

“하하... 미안, 너무 나 혼자 떠들었지?”

“꼭 그런 건 아니고.”

“어, 그럼 계속 이야기해도 돼?”

“너 좀 이상한 것 같아.”

앞 뒤 맥락 없이 나온 말에 그 아이는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살짝 갸우뚱 거렸다. 나는 그 아이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대화를 이어나왔다.

“내 소문 못 들었어? 가까이 다가가면 병 옮는다고.”

“응? 그거 다 헛소문 아니야? 옮는 병이면 학교에 못 나오잖아.”

“...“

눈앞의 아이는 생각보다 똑똑했다. 11살이라면 소문에 쉽게 휘둘릴 나이이지 않던가.

“선생님께서도 그러셨어. 넌 몸이 약하니까 내가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부탁하셔서 나한테 말 건 거야?”

“어? 아, 아니... 예전부터 친해져보고 싶기는 했는데 넌 조금... 말을 걸기 어려운 인상이라서...”

일부러 정색하고 짓궂은 말을 하자 당황하며 말을 더듬는 모습이 꽤나 우스워 참지 못하고 킥킥 웃음을 터트리며 말았다. 그 아이는 수치스러운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지, 지금 놀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너 진짜 단순하구나.”

“으음... 정말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온 건데...”

나는 가만히 그 아이를 응시했다.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 없지만 그래도 어쨌면, 이 아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랑 친구 해도 하나도 재미없을 텐데.”

“어? 친구 해주는 거야? 괜찮아, 내가 재밌게 해줄게.”

내 말을 듣고서는 혼자 신나 다시 나와 거리를 좁혀온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아이를 피하지 않았다. 나도 그 아이와 친해지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으니까.

“병원 가느라 학교도 자주 빠지고.”

“전화로 연락하면 되지!”

물러나지 않고 내 말에 꼬박꼬박 대꾸하는 아이를 마주보았다. 그치고 너와 친구를 하겠다는 의미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내 행동의 의미를 알아챈 듯 환하게 웃어 보이더니 ‘그럼 이따가 같이 하교하자’라며 후다닥 운동장을 향해 달려 나갔다.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으니 운동이라도 하려는 거겠지. 맞닿아서 땀이 맺힌 팔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유난히 그 부분만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 기분이 들었다. 너는 살아있다고 말하는 듯이. 여전히 매미와 풀벌레들은 시끄럽게 울어대고, 발밑에서는 낮익은 벌레들이 기어 다니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여름의 풍경이었다.

시간이 흘러 수업이 모두 끝나고 집에 갈 시간이 되었다. 그래봤자 초등학생이니 학교에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아이와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는 같이 학교를 나섰다.

“아, 그러고 보니까 넌 어디 살아? 같이 하교하기로 해놓고 이걸 안 물어봤었네.”

“...저 앞 골목길 지나서 쪽 걸어가면 우리 집이야.”

“어, 정말? 나도 그 근처 사는데! 근데 왜 한 번도 못 봤었지?”

못 보는 게 당연했다. 그야 성실한 탓에 일찍 학교에 가는 반장과는 다르게 나는 아슬아슬하게 지각을 면할 정도의 시간에 등교를 하니까. 그리고 일단 집에 가면 밖으로 안 나오기도 하고...

“넌 몸도 약하고 친구도 없으면... 뭐 하고 놀아?”

“안 놀아.”

“그럼 집에서 뭐해?”

“그냥... 자. 잠이 안 오면 책을 읽기도 하고. 넌?”

“나? 나는 집 앞 놀이터에서 자주 노는데. 친구들이랑 축구도 하고!”

놀이터... 역시 이 아이는 나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단 한 번도 놀이터에 가본 적이 없는걸. 모래가 날려 호흡기에 잘못 들어가면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내 몸은 약했다. 엄마도, 아빠도, 날 데리고 놀이터는커녕 외출도 잘 안 하니까... 기분이 썩해졌다. 난 왜 이렇게 태어난 거지? 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것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남들과는 다른, 시한폭탄 같은 내 몸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 입술을 비죽 내밀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갑자기 빨라진 발걸음에 그 아이는 당황한 듯 후다닥 내 옆으로 다가와 발걸음을 맞춰 걷기 시작했다.

“왜 그래? 혹시 화났어?”

“아니.”

“갑자기 발걸음이 빨라졌길래...”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나는 심술궂게 말을 툭 잘라버렸다. 그리고 우리 집 대문 앞에 멈춰서고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입을 벌리고 우리 집을 뚫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왜 그러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아이의 행동에 나는 고개를 갇웃거렸다.

“...왜 그래? 우리 집이 이상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 집 진짜 크다.”

“그런가... 한 번도 그런 생각해본 적 없는데.”

나는 괜히 고개를 숙이고 발밑에 굴러다니는 돌을 발로 툭 차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에게 내 집을 보여준 것도 처음이었고...

“...놀러 와도 되는데.”

“앗, 정말? 오늘은 숙제해야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다음에 꼭 놀러갈게! 아, 그리고 앞으로 등교할 때 네 집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일찍 나와!”

“응, 알았어. 그럼 수업 30분 전에 나올게.”

“아, 그리고...”

그 아이가 나에게 핸드폰을 내밀었다. 영문을 몰랐던 나는 고개를 기울이고 핸드폰을 뻗히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 아이가 멧쩍은 웃음을 보이더니,

“핸드폰 번호 알려달라는 뜻이었어! 우리 이제 친구니까!”

“아... 그렇구나.”

그제야 그 속뜻을 알아챈 나는 핸드폰에 내 번호를 쓰고 그 아이에게 돌려 주었다. 핸드폰 화면을 몇 차례 두드리던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장 했어!” 라고 말해왔다. 내 마음도 같이 들뜬 것도 같고... 나는 괜히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며 내일 보자, 라는 생소한 작별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들어갔다.

“친구... 처음 생겼어...”

나는 중얼거리며 내 방 안으로 들어가 책가방을 한쪽에 던져두고 쓰러지듯 침대 위에 몸을 누였다. 생각치도 못하게 신경 쓸 일이 생긴 탓인지 평소보다 더 피곤한데다가, 몸이 무거웠다. 그리고 곧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마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별 일 아니겠지. 나는 차마 옷을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렸다. 내일이 오면 그 아이와...

...몸이 무거웠다. 이 찻찻하고 불쾌하지만 익숙한 감각은 분명 식은땀으로 몸이 폭 젖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힘겹게 눈을 뜨자 침대 옆 선반 위에는 죽

과 함께 짧은 쪽지가 쓰여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머리 위에 손을 올리자 물수건이 잡혔다. 꽤 시간이 지난건지 미적지근해진 물수건을 선반 한쪽에 치워두고 쪽지를 먼저 확인했다.

-엄마 일 하고 올 테니 오늘 병원 한 번 가자. 학교에는 말 해놨으니 꼭 쉬어.

무언가를 먹을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입맛이 없었기에 죽과 쪽지를 한쪽에 밀어내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썼다. 그보다도 무언가 잊은 기분인데... 눈을 감고 멍하니 생각하던 중,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 들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약속.”

황급히 침대 위에 놓인 핸드폰을 확인하자 역시 메시지가 쌓여있었다. 말없이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허무함이 밀려왔다. 나는 한참동안 핸드폰을 쥐고 망설였다. 날 타하면 어떡하지? 절교라고 하면? 처음 생긴 친구인데... 하지만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으니, 나는 마음을 다잡고 문자함을 확인했다.

-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준비 끝나면 나와 줘!

-한참 기다리는데 안 나오네... 혹시 좀 늦어?

-지각할 것 같아서 먼저 가볼게. 아픈 거면 꼭 쉬어.

착한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정말 내 탓은 하나도 안 했네. 순간적으로 긴장이 확 풀린 탓에 쓰러지듯 침대에 몸을 누였다. 무어라 답장을 보내야 좋을지 몰라 핸드폰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던 나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보냈다.

-미안해. 내일 보자.

사람을 대하는 것이 서툴렀던 나는 이 이상의 말을 덧붙이지 못했다.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인 것 같았는데, 막상 그것을 문자로 옮기려니 생각처럼 잘 되지를 않았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꺼두고 다시 눈을 감았다. 태어 난지 열

마 안 된 아기라도 된 것처럼 자꾸만 몸이 무거워지고, 잠이 몰려왔다. 오늘 저녁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병원도 가야하니까 차라리 푹 쉬는 편이 좋겠지. 사소한 건 전부 잊고 지금은 잠이나 자자. 내일 잘 말해보면 분명 그 애도 이해해줄거야.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 찾아왔어야만 했었다. 나는 멍하니 하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기분 나쁜 소독약 냄새, 싸구려 재질의 환자복, 내 팔에 달랑거리며 꽂혀있는 정체모를 수액. 부모님과 함께 병원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머리가 땡땡 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어제 저녁의 기억은 희미했다. 병세가 악화됐다고 한 것 같긴 했는데. 나밖에 없는 1인 병실에는 적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지독하리만치 익숙한 광경이 내 목을 옥죄어왔다. 외로워. 누군가 있어줬으면 좋겠어. 한참을 생각했다. 부모님은 6시에 퇴근하시니 최소한 4시간 동안은 나 혼자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책이라도 읽을까...”

옆의 선반 위에는 평소에 자주 읽고 있었던 소설책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시간 여행을 하며 미래를 바꾸려 하는... 식상하지만 재미있는 내용의 소설책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소설책에 손을 뻗었고, 책갈피가 꽂혀있던 부분을 시작으로 차분하게 글귀를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병원 안에서 가장 시간을 보내기 좋은 취미는 독서였으니까. 주인공이 과거로 시간을 되돌려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는 장면이 한창 몰입해 독서에 빠져들었을 무렵이었다.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1인 병실의 문이 누군가에 의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의사 선생님인가? 나는 시선을 병실 문 쪽으로 돌렸다.

“어... 안녕. 선생님이 말씀해주셨거든. 내가 아파서 당분간 학교에 못 온다고... 선생님께 여쭙봐서 병문안 왔어. ...많이 아파?”

...익숙한 얼굴. 내가 처음으로 사귀 친구인 그 애가 찾아와 주었다. 다만 저렇게 걱정하고 있는 표정을 처음 봤을 뿐. 나는 망설임 없이 소설책에 새로 책갈피를 끼우고 다시 선반 위에 가지런히 책을 놓아두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입가에 띠우고 그 아이를 맞이했다.

“이리 와서 앉아. 나 계속 심심했거든.“

그 아이는 순순히 내 곁으로 다가와 근처의 간이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1인실은 처음인 건지 신기한 듯 주변을 바라보더니, 여전히 나를 걱정하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물음을 던졌다.

“몸은 좀 괜찮은 거야...?”

“음... 잘 모르겠어. 상태가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았을걸.“

있는 그대로를 말했을 뿐인데 그 아이는 급격하게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럴 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하는 걸까. 순서가 조금 이상해진 것 같기는 했지만 나는 목을 가다듬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당장 죽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

아. 역효과인 것 같다. 그 애의 큰 눈망울에 눈물이 맺혀버리고야 말았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잘 몰랐던 나는 결국 그 아이에게서 시선을 떨어트리고 고개를 푹 숙여버렸다.

“그, 그럼... 언제까지 살아있는 건데...?”

더듬거리며 물음을 던져오는 목소리에 슬쩍 고개를 돌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내 대답에 또 상처받고 울어버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리고 난 티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법 따위는 알지 못했다. 나는 그저 눈앞의 아이에게 있는 그대로만을 말하겠다는 생각으로 입을 열었다.

“그건 나도 잘 몰라. 내일 당장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고, 몇 년 더 버틸 수도 있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당분간은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

“내가 매일 찾아올게!“

그 아이는 눈물을 꼭 참고 있었다.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나에게 매일 찾아오겠다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슨 심정으로 저런 말을 한 건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11살의 나이에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 나도 지금까지 내 주변에서 죽은 사람을 본 적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내 팔에 연결되어 있는 수액마저도 무섭게 보이는 걸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아마도 매일 찾아 올 테니 빨리 기운을 차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거, 내가 좋아하는 책이야.”

생똥맞게 책 이야기를 꺼내니 그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손을 뻗어 선반 위에 올려둔 책 표지를 손가락으로 톡 건드렸다.

“이 책 알아? 유명한 책인데.”

“아니... 몰라. 근데 엄청 두껍다. 난 이렇게 두꺼운 책은 안 읽어봤는데...”

“난 집이나 병원에 혼자 있는 일이 많아서 책을 자주 읽어. 그것보다도,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거든. 내가 정말 이 책을 좋아해서. 들어줄래?”

다행히 그 아이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뻗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내 말을 경청하겠다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나는 작게 헛기침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아가던 이 책의 주인공은 어느 순간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돼.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현실을, 앞으로 닥칠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과거로 떠나기 시작했지. 그는 과거로 돌아가 실패했던 시험을 다시 보기도 했었고, 한 순간의 실수를 바로잡기도 해. 그렇게 천천히 자신의 미래를 바꿔나가. 이 책은 주인공의 삶이 행복하게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어. 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생각해. 내가 만약 주인공처럼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내 삶도 행복하게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넌 어떨 것 같아?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야 당연히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나는 단호하게 그 아이의 말을 단칼에 잘라냈다. 그것은 과거로 돌아간다 하

더라도 내 삶을 뒤바꿀 수는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난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팠어. 과거를 어떻게 뒤바꾸든 내 미래는 행복하게 변하지 않아. 내가 죽는다는 결말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니까. 하지만 어제와 오늘은 조금 다른 생각을 했어.”

나는 책을 소중하게 품 안에 끌어안고 대답을 이어나갔다.

“조금 더 빨리 너를 만나서 친구가 됐더라면 좀 더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 추억은 미래를 바꿀 수 없지만 최소한 내 삶에 대한 불만과 불안은 떨쳐낼 수 있게 해주니까. 하지만 현실은 소설과 달라.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난 남은 미래를 살아가야만 해. 그런 의미에서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뭐든지 말만 해줘.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들어줄게.”

나는 그 아이에게 소설책을 주었다. 아이는 내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멀뚱히 책을 바라만 보더니, 곧 조심스럽게 책을 받아 표지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나는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의 아이를 두고 작게 숨을 내쉬다 입을 열었다.

“앞으로 나랑 만날 때는 그런 걱정스러운 표정은 금지야. 처음에 만났을 때처럼 웃어줘. 기껏 만나러 와줬는데 그렇게 죽상으로 있으면 분위기만 나빠지잖아.”

“응...? 아, 이렇게?”

말은 또 왜 이렇게 잘 듣는 건지, 굳어진 표정을 풀고 환히 웃어 보이는 모습에 나도 웃음을 터트리려고야 말았다.

“응, 그렇게. 그리고... 내 마지막 순간도 지켜봐주면 좋겠어. 가급적 웃는 얼굴로.”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 아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의 대답을 해주었다. 그 대답을 듣고 나서야 나도 안정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베개에 등을 받치고 편한 자세를 취했다.

“고마워. 약속이다?”

새끼손가락을 내밀자 그 아이가 새끼손가락을 마주 걸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맞대 손도장까지 꼭 찍고 나니 우리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웃음을 터트렸다. 평소와는 다른 일상이었지만 그렇기에 나는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아,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겠구나. 잠에 들기 전까지는 눈앞의 유일한 친구와 함께 웃을 수 있겠구나. 노을빛에 비쳐 오렌지색으로 물들어가는 병실 안에서, 나는 그 아이와 여름을 보냈다.

박연순

『민들레 홀씨』

민들레 홀씨

오색 단풍이 자태를 뽐내며 가을의 끝자락을 알리고 있다. 그런데 어제 면접을 본 후배에게 전화가 왔다. “선배님! 면접이 끝나서 시원하네요?” 순간 어떤 말로 수고했다고 해야 할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울 학교 만학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장벽을 후배와 나는 대화를 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지난해 이맘때 나도 면접을 보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마저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 공부가 더 하고 싶으면 전문대 다녀보라는 가족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주대에 입학원서를 냈다. 면접을 기다리며 길고 긴 시간을 자소서며, 면접관이 질문할 만한 대답을 글로 만들어, 거울 앞에서 말해보고, 휴대전화에 녹음도 해보며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지냈다.

당시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 전주대에 여섯 명이 면접을 보았다. 면접을 마치고, 봄이면 벚꽃이 활짝 피어있는 전주대 벚꽃길 내려오는데 내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 눈물을 보이기 싫어 ‘대학교 면접은 아무나 보는 것은 아니지’ 라며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삼년 밥을 같이 먹은 동기들은 면접 기념으로 사진관에서 사진도 찍고 점심도 먹었던 기억이 벌써 지나간 가을에 있었던 일이다.

다시 수시입학원서가 시작되는 계절이 오고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소식이 날아왔다. 전주대학교 홍보팀이 홍보를 나온다면, 지금 학교생활을 소감문으로 간략하게 재학생들에게 전달해주라는 내용이었다. 입학식도 없이 동영상으로 강의로 수업을 듣는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보았다. 오랜만에 서보는 강단에서 나는 자신 있게 말했다. ‘나이에 집착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대학을 가도 후회하고 안가도 후회할 것이면 가보고 후회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보라며, 그리고 세상을 살아온 연륜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진학의 꿈을 포기하냐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동안 배움에 목말랐던 후배들에게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꼭 전주대학교에도 문을 두드려서 더 길게 우리 선배와 후배 인연을 맺어보자는 소감문으로 마치고 인사를 했더니 선생님들과 후배들의 박수 소리가 짹짹 들렸다.

2022년에는 고른기회전형도 한 명이 아닌 두 명을 뽑는다는 학교 이야기를 들으니 같은 또래로 둘이 같은 학과에 들어와 함께 공부할 인연이 있다는 생각만 해도 흐뭇하다. 다른 사람보다 늦게 시작한 학업이지만, 4년 후 어떤 제목으로 성장해있을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민들레 홀씨처럼 어디로 가든 내 씨앗을 심고 가꾸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후배를 생각하며 지난해

동기들과 면접을 보며 웃고 울었던 그 소중한 꿈들을 떠올려 보았다.

정들었던 학교 곱게 물이든 단풍나무 아래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며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들도 이제는 조금씩 멀어지고 알뜰하게 보살펴주던 선생님들의 목소리도 멀어져 가지만, 이제 그 빈자리는 또 다른 친구들 생각으로 기억 속에 채워지고 다정한 교수님들의 넓은 사랑으로 내 삶과 인격은 성장하고 있다.

대면 수업입니다. 새내기들도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즐거움에 벌써 강의실에는 반갑게 맞이해주시는 키다리 교수님과 우리는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얼마 후 한국어 문학과에 합격했다는 후배의 전화가 오길 기다리며 문집에 보낼 글을 쓰고 있다.

정민선

『과거의 기억』

과거의 기억

가끔씩 책상 앞에 앉아 노트에 글을 적을 때가 있다. 글의 내용들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찾아오고 있다. 과거에 대해 생각나서 노트에 적을 때는 짧게 쓸려던 글도 어느덧 적다 보면 긴 글이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한다. 예전에는 과거에 대해 떠올려봐도 과거에 머물러 살고 있는 기분 같은 것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과거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문득 ‘어째서 나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기분일까?’ 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다. 사실 어째서 인지 아직 잘 모른다. 과거의 기억을 이것저것 꺼내다 보면 그 시기에 털어버리지 못해서 후회되기도 하고 괴로워져서 기억을 지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기억을 버리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과거에 나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한 이유도, 내가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털어버리지 못한 채로 가지고 있는 이유도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의 과거를 소중하게 간직해 주고 싶다.

송세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

최근 뇌 과학이 발달하면서 오늘 날 자유의지의 존재 유무는 인간에게 궁금증을 유발한다. 자유의지란 외부적 요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을 뜻한다. 그렇다면 자유의지가 실제로 존재할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저녁메뉴를 고르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피자를 먹을지 혹은 치킨을 먹을지에 대해 잠시 고민해보자. 메뉴를 선택했다면 흔히들 본인의 순수 의지로 인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각자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의 존재여부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 쉽게 말하면, 오로지 본인의 의사결정인 것인지 혹은 외부적인 영향으로 선택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피자를 택했다면 선택한 이유가 존재한다. 방금 전 피자를 먹는 방송을 봐서 그럴 수 있고, 전날 치킨을 먹어서 피자를 택할 수도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아 선택한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은 사회를 생각해보자. 대체적으로 규율과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한다. 복면을 쓴 채 은행을 털다던지 또는 만취 상태에서 불특정 대상에게 칼을 휘둘러 살인 행위를 저지르는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때 범죄자들에게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형벌을 내리는데 있어서 심오한 문제를 야기한다. 여기서 재판관은 범죄자들의 악한 마음으로 저지른 의지가 아닌 범죄를 저지를 만한 경험을 헤아려 가볍게 줄 수밖에 없다. 예컨대 범죄자가 그의 어린 시절에 폭행을 경험했던 뇌가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회 속의 범죄 행위들은 작든 크든 본인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상황에 맞는 형벌이 제대로 주어지기가 힘들다. 위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좋은 상황이다. 때문에 범죄자들의 악용 문제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본인들의 범죄행위 자체를 그들 자체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유전적 등 외부영향의 탓으로 돌리기에 유리하기에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 속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신경과학 실험 중 ‘리벳 실험’은 1980년대에 뇌 활동을 측정한 실험이다. 벤저민 리벳은 사건 관련 전위 (ERPs)를 사용해 피실험자의 뇌 활동을 측정하였다. 방법은 간단하다. 피실험자 앞에 버튼을 두고, 누르고 싶을 때 그 버튼을 누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누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뇌에 신호를

보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할 것인데, 리벳실험에서의 결과는 다르다. 실험에서 피 실험자는 손가락을 움직이려는 생각 이전인 500~1000밀리초 전 뇌 활동의 신호인 준비전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피 실험자가 손가락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기 전에 뇌가 이미 활동한다는 말이다. 위 실험에서 자유의지는 실재가 아닌 허상임을 보여준다. 리벳의 실험결과는 자유의지 논쟁으로 번져 나갔다. 실제로 우리의 의지는 존재하면 누군가가 그 움직임을 유발하는 것일까? 다른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선행하여 움직임을 결정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의 두뇌에서 나타나는 의식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행동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란 무의미한 존재일까? 리벳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을 했다. 운동을 유발하는 두뇌의 신호가 의식적인 의지 시점보다 선행하지만, 실제 근육의 움직임 시점 보다는 앞선다. 우리는 이미 발생한 움직임을 중간 시점에서 중단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는 것이다. 곧 의식적인 의지는 이미 진행 중인 움직임을 감지 후, 근육이 계속 움직이게 할 것인지 혹은 이를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리벳의 의식적 의지는 반쪽만의 자유를 갖는다는 의미로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이다.

결정론이란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나 선택의 자유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과 관계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자유의지는 결정론과의 성립 유무에 따라 크게 양립가능론과 양립불가능론으로 구분된다. 먼저 양립가능론은 자유의지와 모든 일에는 결정된다는 결정론이 공존하는 것이다. 본인의 의지와 전에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결정되었다는 결정론은 모순 관계가 아닐뿐더러 서로 양립 가능하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 오른손을 든다고 가정하자. 이때 오른손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가는대로 행동할 수 있다. 어떤 것에 대해 선택할 자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때문에 개인의 의지가 들어가서 도덕적인 책임이 필수적으로 따른다. 양립불가능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양립 불가능으로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내일 점심 메뉴를 미리 정해두면, 그 당일 날 메뉴 선택할 자유는 없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일 메뉴를 지금 정해두지 않고 당일 날 정한다고 하면,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자유의지와 결정론은 서로 양립이 불가능하다. 결정론의 입장에서 양립불가능은 본인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따르지 않는다.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는 것과 같다. 최근 1

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혼밥(혼자 밥 먹기), 혼영(혼자 영화보기), 혼술(혼자 술 마시기)등 혼자 즐기는 삶을 추구해 더불어 살아가는 예전의 삶과의 거리가 멀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인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며, 여럿이 있는 단체보다 혼자 누리는 것이 편하다고 느껴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사회가 변화했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일에는 같이 웃고, 공감을 통해 서로의 슬픔을 위로해주는 친구가 있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 사랑의 나누는 관계인 연인 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찢줄로 맺어진 관계로 가족은 서로 의지하며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여기서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친구와의 우정, 연인 관계에서의 사랑, 같이 살아가는 가족의 정과 같은 감정들은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이다.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삶을 포기할 수 없다. 인간의 삶 속에서 자유의지는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다. 인생의 의지나 목표, 살아가는 목적,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이지 않을까싶다.

김서영

『1℃』

1℃

나에게는 꿀을 좋아하지만, 꿀꺽질 까기가 귀찮아 꿀을 잘 먹지 않는 동생이 있다. 꿀을 좋아한다면서 귀찮다는 이유로 꿀을 눈앞에 두고도 잘 먹지 않는 동생이 나는 때면 괜히 안쓰럽게 보였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매년 가을, 집에 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난 비닐장갑을 끼고 동생에게 꿀을 까 주곤 했다. 사실 나 역시 비닐장갑을 끼고 꿀을 까는 것이 귀찮은 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막상 한 번 까기 시작하면 잡생각이 사라지기도 하고 나를 까는 맛도 있어 바구니에 한가득 담겨있는 꿀을 한 번에 다 까버리곤 한다.

사실 매년 내가 동생을 위해 꿀을 까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꿀을 하나 하나 깎 때마다 쟁쟁하게 집어가 주는 동생의 손이 고맙기도 하고,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오물오물 야무지게 먹는 입이 귀여웠기 때문이다. 꿀을 예쁘게 잘 먹는 동생을 위해 나는 항상 단단한 꿀꺽질을 손의 온기와 약간의 힘으로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꿀을 반으로 갈라 꿀꺽질을 한겹 한겹 벗겨내곤 동생에게 모양이 모나지 않은 꿀만 주려고 최대한 노력한다.

그런데 내 노력이 우습게 까다가 손의 힘을 못 이기고 터져버리는 꿀이 있다. 그런 꿀을 지금 생각해보면 유난히 꿀꺽질이 얇고 주무르기 전부터 물렸던 것 같다. 하는 수 없이 터져버린 꿀을 조금 미안한 마음으로 동생에게 주는데 거의 매번 들려오는 말이 있다. 터진 꿀이 더 맛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예쁘게 잘 까진 꿀을 먹을 때면 동생은 얼굴을 찌푸리며 시다고 말했다. 그래서 터진 꿀이 더 달고, 모양새가 예쁜 꿀은 오히려 더 시고 맛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는 꿀이 터질 때마다 은근히 그 꿀이 반갑기도 했다.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기만 한 이번 해에도 어김없이 가을과 함께 우리 집에 꿀이 찾아왔다. 꿀이 찾아온 것을 보니 순조로운 일이 하나도 없었던 2020년이 그래도 끝나고는 있나 보다. 코로나로 인해 내가 계절마다 하던 많은 것이 변했지만 가을이 되면 동생에게 비닐장갑을 끼고 동생에게 꿀을 까주는 것 하나는 변하지 않았다. 꿀을 깎 때 가지는 마음가짐까지도 말이다. 뭔가 하나 매번 변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나이일 것이다.

교복을 입고 등하교를 하던 고등학생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나를 자유인

이 된 것 같은 기분이다. 위에서 짧게 말했던 것처럼 꿀을 짜증스럽게 까지 않을 것, 반가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꿀을 까서 줄 것이라는 마음가짐 하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이번 주말 동생에게 꿀을 까주면서 매번 꿀을 깔 때마다 한 번씩은 꼭 만나는 터진 꿀을 보았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꿀이 더 달았다고 생각하며 동생에게 꿀을 줬었는데 이번에 터진 꿀을 보니 갑자기 문득 어디선가 들었던 명언이 떠올랐다.

“물 온도를 99도까지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그 물은 절대 끓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힘들다고 절대 멈추지 말아라, 마지막 1도가 부족한 순간일 수도 있으니.” 라는 명언이다. 이게 왜 생각이 났느냐 하면 내 손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린 꿀이 마치 마지막 1도를 건디지 못하고 무기력 해져버린 사람들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흔히 그런 사람들을 우린 번 아웃이 왔다고 말한다.

이처럼 내가 까다 터져버린 꿀도 번 아웃이 온 것이다. 꿀도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꿀이 되어 먹음직스러운 상태로 맛있게 먹히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 당도가 99도까지 올라 1도만 있으면 됐던 꿀은 그만 외부의 압력에 의해 터져버렸다. 그리고 번 아웃이 왔다. 아마 그 꿀은 1도를 올리지 못한 것이 자신의 탓이 아님을 모를 것이다. 그러니 번 아웃이 온 것이다.

꿀이 번 아웃이 온 건 그동안 당도를 열심히 높여왔다는 증거이다. 이 말은 곧 “번 아웃이 왔다는 건 성공이 코앞이라는 안내판을 보았다는 거야.” 라는 증표로 해석되기도 한다. 꿀이 터져버린 것은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지만 자신의 탓이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번 아웃이 왔다는 것은 자신이 그간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안아주고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터져버린 그 꿀이 흔히 번 아웃이 와서 자신이 하던 일을 놓아버린 사람들처럼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달아지기 위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꿀이 그만 터져버린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 번 아웃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다. 물 온도가 99도까지 오른 줄 모르고 달려오다가 직장 동료나 동기 혹은 선배, 혹은 자기 자신 등등과 같은 압력에 그만 과부하가 와 터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은 1도만 있으면 끓는다, 곧 해낸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드물다. 그러니 그 순간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로 생각한다. 어느 영화에서처럼 꿈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은 꿈을 끝까지 믿지 못해 자신이 포기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그러니 이 글을 읽을 사람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가 놓아버리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 한순간 공든 탑이 무너져 버린다는 느낌을 받아 무기력해졌을 때,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지금까지 세워놓은 것들이 결코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마지막 1도를 높이기 위한 재정비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머리를 식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이 글을 수정하겠다고 또 한 번 읽을 미래의 나도 내가 쓴 이 글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과거 나는 항상 위로의 말들이 간절했고 위안이 필요했다. 뭐가 그렇게 힘든 건지 항상 위안이 될 것들을 주변에서 찾았다. 홀로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은 말이 없다. 그래서 그것들은 항상 내 곁에 머물렀고 난 그것들로부터 위안을 찾았다. 난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인생을 투영한다. 그리고 곧 그것들은 어느샌가 나의 지팡이가 되어 하루를 살아내는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내가 쓰는 모든 글은 곧 세상을 향한 나의 선언이다. 한 없이 우울해지는 현실을 빠져나오려는 발버둥이다. 내 의미부여들이 나에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

권미경

『인생 친구』

인생 친구

1970년 8월 8일생. 혈액형은 O형, 키는 172cm정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화물차 운전.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을 한다고 해도 모자르다.

반주를 밤 낮 할 거 없이 즐겨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활동을 참 좋아한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이상은 꼭 모임을 간다.

요즘엔 역사에 빠졌다. 혼자 밥 먹을 때나 심심할 때 유튜브에서 역사 영상들을 찾아본다.

언제나 부지런하다. 매일 새벽 5시경에 깨서 출근을 하고,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다.

매일 힘없이 놀리는 도어락 소리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은 참 가슴 아프게 만든다.

꼬질꼬질한 작업복, 반나절 이상이 되도록 씻지 않은 몸, 어깨에 큰 바위가 내려 앉은 만큼 축 쳐진 어깨.

밖에서 만원씩 써가면서 저녁 밥 먹기는 싫다고 꼭 집에 와서 밥을 먹겠다는 배의 꼬르륵 소리.

나이에 비해 훨씬 젊게 살려고 노력한다.

요즘 사람들이 입는 옷도 한 번 입어보고, 어색하게 다루는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해보이려 애를 쓰기도 한다.

이 분은 나를 과하게 아끼신다.

집착, 속박의 아낀다는 뜻이 아니다.

정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주고, 남들이 듣게 되면 “정말? 그게 돼?”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의 아낌이다.

우리는 항상 자기 전에 굿나잇 인사를 한다,

굿나잇 인사를 안 하면 혼자 토라진다. 나는 그 모습이 참 귀엽다.

우리에게 굿나잇 인사는 단순히 언어적인 면만 아니라 뽀뽀도 필수다.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서로에게 진한 뽀뽀를 한다.

일반적으로, 부녀의 사이는 가깝지 않기가 십상이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인지 아무렇지도 않다.
그냥 나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렸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대화를 하고 나서 ‘사랑해’ 라는 말을 빼먹지 않는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 내가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한다.
누구에게는 당연할 수도 있다. 비판적으로 바라보아도 괜찮다.
하지만 사람은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 너무 짓궂은 비판은 하지마라.

아무튼 나는 설거지를 하면, 내 옆에 와서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덕분에 오늘도 밥 잘 먹었어.”, “설거지하니까 너무 착하다.” 라며 뽀뽀
를 해주신다.
누구에게는 당연한 일이, 나에게는 특별하게 좋은 기억들로 진행된다.

우리는 부자가 아니지만 나는 자주 택시를 타고 다닌다.
친구들과 놀고 나서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올 때, 대학교에서 집이 너무 멀
어 버스타기 지루할 때든 언제나.
어떻게 보면 나에게 쓰는 돈이 아닌데도 돈 걱정 하지 말라며 타고 오라고
하신다.
돈이 다가 아닌 이 분의 가치관이 확실히 보였다.
나를 얼마나 아껴주고 사랑해주는지 말이다.

나를 아끼는 만큼 나의 친구들 또한 아끼신다.
우리 집에 나의 친구를 데려오는 것을 마치 자기 일처럼 나보다 더 좋아하
신다.
가끔 언제 친구 데리고 오라며 물어볼 때도 있고, 내가 친구 만나러 밖을 나
간다고 하면 집에서 만나면 안 되냐며 나를 끌어당기신다.

친구가 우리 집으로 오기로 한 날, 비가 추적추적 내렸었다.
친구는 우산이 없었고, 이미 버스에서 내린 상태였다.
집에 같이 있던 우리는 같이 친구를 데리러 나갔다.
사소해 보일수도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같이 치킨에 술을 먹고, 인생 얘기도 나눴다.
친구가 소주병 뚜껑을 가지고 하트를 만들어서 이 분에게 주었다.

이 분은 입이 귀에 걸린 상태로 엄청 좋아하셨다.
여운이 남은 이 분의 모습을 보니 왜인지 모르게 조금 울컥했다.
이렇게 사소한 거에도 감동을 받는 사람이라니.

이 분과 단 둘이 술을 먹으면, 울컥해질 때가 많다.
하루는 나에게

“네가 성인이 되니 너무 좋다. 예전에는 못 했던 말들을 이제는 터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서로의 감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나는 우리 가족 행복만 하면 돼. 건강하기만 하면 되고, 솔직히 엄마 돈 안 벌어도 돼. 계속 허리 아프고 어깨 아파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 정말.”

이 말을 하는 이 분의 몸 상태도 엄마와 별 다를 것이 없다.
몇 년간 무릎으로 인해 고생하는 왼쪽 발,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해 굳어있는 허리, 어깨.

가장이라는 타이틀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제 넘는 소리일 수도, 버릇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냥 나는 단지 같이 힘듦을 나누자는 얘기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라는 게 없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의 이야기는 권종대의 이야기다.
나의 자랑스러운 아빠, 아버지다.

김수현

『무제』

무제

살다 보면 가끔, 모든 걸 내려두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온다.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감정일 테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그게 제일 심했다.

광양에 온 지는 연수로 따지자면 고작 4년이다. 그 전엔 한적한(버스가 2시간당 한 대 있을 만큼) 곳에서 살았다. 오자마자 모든 게 무서웠다. 낯선 학교, 새로운 사람들. 공단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 툭툭 막히는 숨이 고통스러웠다. 목 끝까지 차오르는 먼지를 삼켜낸 채 그렇게 살았다.

솔직하게 말하면 왜 이사를 온 건지 스무 살이 되는 지금도 알지 못한다.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이사를 빨리했다. 평소처럼 학교에서 걸어서 돌아오니 엄마가 집을 싸고 있었다. 몇 년간 만나온 친구들끼리 짧게 인사를 하고, 트럭에 몸을 기대어 광양으로 왔다. 덜컥거리는 트럭 안에서 느꼈던 공포는 지금과 견줄 수도 없을 것이다. 사람은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면 설렘부터 느껴진다고 했는데, 나는 정반대였나 보다. 발에서부터 섬칫대며 올라오는 불안감이 나를 짓눌렀다.

도착하고 나선 짧게 집 구경을 했다. 창문이 내 몸만큼 넓다는 것 말고는 예전 집과 닮은 게 하나도 없었다. 생소한 감각에 하루종일 ‘내 방’에 있었다. 원목이 아닌 이상한 나무 바닥, 이제는 꽃무늬가 그려지지 않은 단순한 벽지. 온통 내 것이 없었다. 정말... 조금 과장을 덧붙여 말하면 낯선 땅에 푹 떨어진 것 같았다. 그런데도 그냥 살았다. 그때 나는 어렸고, 부모님은 지쳤고, 직감적으로 예전에 살던 곳엔 돌아가지 않으리란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여름을 보냈다. 고작 8월이었다.

방학이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등교를 하러 가야 했다. 낯선 교복을 맞추고, 새롭게 안경도 켜다. 길게 기르던 머리카락도 잘랐다. ‘나’에서 ‘나’로 변하는 과정을 직접 겪으니 미묘했다. 엄마가 다 잘 될 거라고 했던 것도, 아빠의 위로도 닿지 않았다. 교복을 팽개친 채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니 잠도 안 왔다. 그렇게 시간을 뜬눈으로 보냈다.

잠을 못 자니 비몽사몽 하여 바깥으로 나왔다. 엄마는 밤늦게까지 짐 정리를 했는지 거실에 미처 못 푼 짐이 널려 있었다. 발에 채는 게 원망스러워 괜히 세게 걸어차기도 했다. 집 안은 생각보다 어둡지 않았다. 내 방이 햇빛이 닿지 않는 곳이라 그런지, 더 밝아 보이기도 했다. 거실에 앉아 있으니 유일하게 익숙한 창문 너머로 아침이 오고 있었다.

이름 모를 식물들이 널려 있는 베란다에, 해가 떠올랐다. 저절로 보고 괜히

멍해졌다.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보단 그냥 멍하게 보기만 했다. 예전 집에서 보던 석양과 똑 닮아있었다. 미묘하게 붉은 태양, 기르던 식물들 사이로 부서지는 그림자들. 여름인데도 여름 같지 않았던 아침.

저걸 보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졌다.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다. 왜 그랬을까? 단순히 익숙한 환경을 또 볼 수 있어서? 나에게 큰 기여가 되어줬기 때문에? 둘 다 아니다. 저걸 보고 평범하게 등교를 했고, 그 이후에도 조금씩 무서워하긴 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점은, 더는 ‘내 집’ 과 ‘내가 살 곳’ 에서 불안해하지 않게 됐다. 참 신기하다. 고작 하늘 한 번 봤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바뀔 걸까.

시간이 흘러 흘러 열여섯에서 나는 스무 살이 되었다. 지금까지도 여기에 처음 와서 본 석양 사진을 지우지 못한다. 힘들 때마다 꺼내놓고 보곤 하는데, 처음 봤을 때의 그 벅차오름은 다시는 느낄 수가 없다.

사람에겐 누구든 처음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 시작이 나처럼 두려움이 될지, 불안감으로 가득한 것이 될진 아무도 모른다. 이겨내는 방법 또한 제각각일 것이다. 그래도 정말 만약에, 나와 비슷한 이유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을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특히 새벽녘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편안해진다. 포근한 하늘을 보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현경

『비록 불량품이지만』

비록 불량품이지만

나의 학창 시절은 평화롭고 조용했다. 나는 교실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아주 내성적인 아이였다. 그렇다고 학창 시절이 재미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재미있었던 일은 손에 꼽을 정도다. 나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같이 놀고 대화를 하면 많은 에너지 소비가 된다. 그리고 쉽게 지치곤 한다.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인간관계에 싫증이 나며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느껴졌다. 그래서 난 혼자서 편하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 오래 머물기보다는 서둘러 집을 와 혼자서 집에 있는 것을 택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느는 만큼 나는 꿈을 쫓았다.

나는 꿈꾸기를 좋아했다. 잠잘 때의 꿈이 아닌 내 의지대로 마음 가는 대로 상상하고 공상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렇지만 상상력이 풍부한 편은 아닌 것 같다. 그저 좋아할 뿐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영화에 빠지기 시작했다. 영화를 제법 보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때부터이다. 그 전까지 난 영화에 별 관심이 없었다. 영화관은 일 년에 세, 네 번꼴로 갔으며 TV에서 해주는 무료영화도 끝까지 보는 일이 드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도 끝내주게 재미있는 작품을 본 뒤 나는 영화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 영화가 끝났음에도 몇 날 며칠은 한없이 벅차올랐던 것 같다. 영화를 사랑하는 마지막 단계는 영화를 만드는 것, 그 이상은 없다는 말처럼 나도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그저 막연한 생각이었다.

그렇게 나는 20살이 되고 전주대학교에 입학했다. 현 시국이 시국인 만큼 나의 예상과는 많이 다른 대학 생활이 되었다. 하고 싶고, 경험해 보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되어 있었다. 빠르게 1학기가 지나가고 지금 2학기마저 종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학과 동기들과 제대로 된 추억 하나 없는 것이 매우 아쉽다. 나의 학과는 국문학과 인만큼 글쓰기 과제가 많았다. 과제를 하며 글을 쓰다 보니 나는 글 쓰는 것에 재능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다 쓴 글을 보며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했다. 물론 내가 살면서 내 생각을 글로 쓴 일은 별로 없었다. 글은 쓸수록 실력이 는다고 했는데 나는 그저 막연하게 상상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나는 글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정말이지 나는 잘하는 것은 없고 좋아하는 것은 많다. 재능은 없고 흥미만 가득할 뿐이다. 죽을 만큼 공부하지도 노력하지도 않는다. 가끔은 정말 내가 이 전공을 잘 선택한 것인지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내가 정말 끝까지 성실하게 학교에 다니고 졸업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모든 학생이라면 하는 걱정처럼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나의 미래가 벌써 막막하다. 앞으로 남은 3년간 내가 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성장할까. 아니 성장은 할 수 있을까? 매번 생각의 미로에 빠진다. 그냥 번뜩 든 생각으로는 나 자신이 불량품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비록 이런 불량품 같은 나지만 아직 시도해 보지 않은 것도 경험해 보지 않는 것도 수두룩하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말을 낳는다. 앞으로 나는 덜 비관적이며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사고방식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대학 생활을 하고 다양한 경험과 수많은 상황을 만나며 조금씩 성장할 나를 기대해 본다.

정지현

『제조 공정』

제조 공정

이번 역은 서대전, 서대전역입니다. 두고 내리시는 물건…… 깜박 졸아버렸다. 여수EXPO역까지 운행하는 용산발 무궁화호 열차를 탄 지 2시간 즈음 지난 시간이었다. 기차는 몇 개의 역을 지나쳐 막 서대전역에 도착했고, 나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 저녁 일곱 시 언저리.

내 몸은 잠깐 졸았던 것도 잠으로 치는 건지 별안간 목이 말라왔다. 진짜 답도 없다, 나는. 목이 자신을 무엇으로든 축여 달라며 아우성을 보냈다. 그와 동시에 무궁화호 입석에 앉았던 나는 자리 오른쪽으로 위치한 자판기에 눈길이 가기 시작했다. 음, 생수와 탄산수, 과자, 초콜릿… 뭐 참신한 건 없나? 아, 있다. 자판기 진열대의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아이스티가 있었다. 생수와 탄산수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는 딱 맞는 맞춤 상품이다.

기차 안 자판기의 가장 큰 매력은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건데—학교에 있는 자판기는 현금만 된다—평소에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나에게는 정말 고마운 녀석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결제가 완료된 아이스티를 자판기 하부에서 꺼내고 자리로 돌아왔다. 평소라면 절대 밖에서 무언가를 먹지 않지만 이것마저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말라 죽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기에 주변의 눈치를 살피고, 재빨리 마스크 밑으로 음료를 마셨다. 이제야 조금 살겠다는 느낌이 든다.

나에게는 조금 특이한 습관이 있었는데, 페트병에 든 음료는 한 입을 마시고 비닐에 새겨진 성분표를 본다. 그것도 아주 꼼꼼하게, 놓치는 글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말이다. 나도 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영양소를 간간하게 따지거나 그럴 인물이 아니다. 그것은 온전히 무의식의 완성체이며, 인간의, 나만의 쓸모없는 궁금증이라 생각한다. 이런 집중력과 궁금증을 공부에 썼으면 외국 명문대 유학은 따 놓은 당상이었을 텐데 말이다. 웃기게도 나는 아직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며, 오늘도 또 바깥 풍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지 않고 음료 성분표만 죽어라 읽어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까부터 눈에 밝히는 게 있다. 제조 공장의 소재지. 경기 안성시였다. 나도 경기 사람인데… 물론 시도 다르고 내가 사는 곳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 아이스티는 또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 내게 온 걸까? 나와 비슷하겠지. 이런 비생물체에게 동질감을 느끼다니, 묘하게 진 기분이다. 하지만 굳이 다른 점을 찾는다면, 이 아이스티는 자신의 할 일을 모두 끝마치고 나에게로 왔다. …그럼 나는? 이렇게 수많은 지역을 지

나치는 날에는 이런 과정들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평소보다 더욱 심각하게 고민해 본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태양은 이미 자신의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러 하늘에서 떠났다. 대신에 먹물보다 더 짙은 밤하늘에는 밝은 달만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렇게 창밖만 바라본 지도 수십 분, 곧 전주역에 도착한다는 차내 방송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은 아직도 어두웠지만, 역사의 인공적인 불빛으로 많이 밝아진 상태였다. 역을 벗어나면 이제 어둠과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것이니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그래도 언젠가 난 내가 들고 있는 이 음료처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겠지. 그렇기에 이 어둠이 나는 두렵지가 않다.

송혜경

『사랑이 피어나길 바라는
오늘, 내일 그리고 매일』

사랑이 피어나길 바라는 오늘, 내일 그리고 매일

모두가 본인이 생각하는 단 하나의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의 인생 사진이 있을 것이다. 만약, 그 인생 사진이 자신의 내면 속 마음가짐을 변화시켰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모두가 믿을지 안 믿을지 혹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너만큼은 저 말을 믿었으면 좋겠다.

본인이 생각하는 인생 사진의 기준은 다 다를 것이고, 다 각자의 기준에 맞아야 그것이 인생 사진이라고들 한다.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 사진의 기준은 세 가지다. 첫 번째, 내가 봤을 때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들기. 두 번째, 사진을 보고 감정이 떠오르기. 마지막으로, 내 눈에는 신기해 보이는 사진이 내가 생각하는 인생 사진의 기준이다. 나는 저 기준에 부합하는 사진을 갖고 있고, 내 인생 사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에서 나무, 꽃, 산 그리고 하늘을 볼 수 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딜 가든 하늘은 꼭 마주친다. 하늘은 푸르른 하늘, 어두운 하늘, 구름이 있는 하늘, 밤하늘 등 많은 하늘을 보고 마주한다. 최근에, 집 앞에서 산책을 했다. 밤에 하는 산책은 고요하고 온전히 나만 있는 공간이어서 주로 밤에 산책을 하곤 한다. 음악과 함께 걷다가 하늘을 우연히 하늘을 바라봤다. 그 하늘을 보고 너는 놀랐다. 너는 밤하늘에 하트 모양의 구름이 자리 잡은 것을 보고 있었다. 이 순간만큼은 놓칠 수 없어서 당장 사진기에 남겼다. 앞서 하트 모양의 구름을 처음 봐서 놀란 것도 있었지만, 구름을 보고 떠올린 너의 생각 때문이었다.

하트 모양의 구름을 보면 너는 제일 먼저 ‘사랑’을 떠올렸다. 저 모양의 구름을 잠시 바라보다가 문득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네가 생각하는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등 다양한 사랑이 존재한다. 다양한 사랑 중 가장 기본인 사랑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데, 너는 기본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서투른 아이였다. 평소에 사랑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던 네가 저 사진을 찍은 후 부터는 서툴더라도 사랑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너는 사랑에 서툴렀다. 기본적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서툰 너여서, 누군가를 사랑해주는 방법도 모르고, 사랑을 받아본 느낌도 든 적이 없다. 너의 내면이 긍정으로 가득 차지 않고 부정으로 가득 찬 너여선지 어느 순간부터 사랑에 대해 생각한 적도 없고, 나 자신이 사랑 받을 만한 사랑처럼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 같다. 내가 하는 일은 되는 일도 없고, 일을 하더라도 만족에 가깝지 않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긍정의 기운보

다는 부정의 기운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렇게 네 마음 속에는 부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부정이 가득 차서 나 자신을 사랑할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 불만으로 인해 너는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우울한 생각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걸 보는 나는 정말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한없이 미안함이 가득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기분 좋은 일은 바람이 불어 멀리 가는 것처럼 한 순간이었고, 안 좋은 일은 내 주변에서 맴도는 것 즉 평생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네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어려운 생각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사진을 바라보면서 여러 생각과 감정이 교차했던 너는, 돌이켜보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단지 풍경사진을 좋아해서 찍은 네가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보면 그저 ‘예쁘네’, ‘슬프네’ 이런 간단한 감정만 했었다. 그랬던 네가 하트 모양의 구름은 너희 동네에서 보기 드문 하나의 풍경이었고, 모양으로 만들어진 수간을 보기는 힘들어서 인생 사진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사랑을 떠올려보니 과거에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너에게는 사랑이 너무 낯설어서 더욱이 여러 감정과 생각이 교차했던 것 같다. 이번에 찍은 사진 덕분에 잠시나마 사랑에 대해 생각할 수 있던 네가 다행이었다. 부정으로 가득 찬 너의 내면 속 마음이 긍정으로 자리 잡기에는 오래 걸릴 것 같다. 하지만, 네가 생각을 달리하면 너도 너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 같았다. 부정이 가득 찬 너의 마음에 긍정이 자라난다면, 그때를 기점으로 내가 나를 사랑 할 줄 알 것 같은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싶다. 나를 사랑할 줄 안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줄도 안다는 것이고, 누군가에 사랑받고 있다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라는 나의 작은 바람이다. 네 마음에 사랑이 핀다면, 아마도 그건 너의 내면 속 마음가짐이 변화했다는 증거라고 볼게. 마음 속 사랑이 피고 퍼서 하나의 긍정이라는 꽃이 피는 날을 위해 나도 너처럼 조금씩 내 마음 속에 사랑을 피워볼까 한다. 너의 마음 속 사랑이 피어나길 바라는 오늘, 내일 그리고 매일을 위해.

양수빈

『무채색의 아이』

무채색의 아이

태초에 신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던 무의 공간에 성스러운 빛이 쏟아져내리고, 그 자리에 더럽혀지지않은 새하얀 도화지가 생겨났다. 신의 손 끝에서 빛들이 피어올라 도화지 위로 흩뿌려지고 그것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던 중, 유독 호기심이 짙었던 두 가지의 색깔이 신의 영역에 들어와 그의 과일을 따먹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 두 색깔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신은 이 사실에 분노하여 벌을 내렸는데, 바로 세상의 색을 보지못하는 벌이었다.

1.

[...에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 20대 학생이 숨지는...]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아침뉴스 소리와 함께 눈이 뜨였다. 그 날은 웬지 위화감이 들었다. 라온은 평소와 다르게 번쩍 뜨인 눈도, 눈곱없이 깨끗한 눈꺼풀 까지도 이상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니다, 오히려 낯설지않은 아침이 이상한걸지도 모르겠다. 이 기분에 사로잡혀 잠은 다 깨버렸는데도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시간이 돼서도 일어나지 않는 라온이 답답했는지 엄마의 우렁찬 고함이 들렸다.

“은라온! 안 일어나!”

“알았어, 지금 일어났어...”

축 쳐져 물에 젖은 솜 같은 몸을 이끌고 침대에서 내려오자 묘한 느낌은 익숙한 음식냄새에 모두 흡수되었다. 그래, 지금은 그런 기분 따위에 신경 쓸 때가 아니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떨쳐낸 라온은 분주하게 학교 갈 준비를 시작했다.

하아아.

허연 입김이 창문에 달라붙었다. 뜨거운 히터와 사람들의 온기에 몸은 금방 노곤노곤해졌다. 학교가 끝나고 집 가는 길에 바라본 창문 너머는 이미 설원이었다. 새하얗게 뒤덮인 땅을 계속 바라보고있자니 점점 풍경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느려졌다. 눈도 감겨왔다. 억지로 졸음을 쫓아내려 두어 번 정도 눈가를 비볐을 때였다. 흐릿한 눈꺼풀 사이로 무언가 반짝였다. 골목길 사이

로 희미하게 무언가 보였던 것 같기도했다. 꺼져감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이게도 강렬한 그 빛은 라은을 잠에 깨우기에 충분했다. 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무슨 생각인거야. 스스로를 비웃으면서도 라은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저것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야겠다.

귀신에라도 홀린 듯 손가락이 버스 벨에 향했다. 뻑-곧 버스가 멈췄다. 버스에서 내린 난 아까 그 곳을 향해 걸었다. 버스 안에서 받은 온기의 흔적이 사라져가고 살갓이 베일듯한 한기가 돌았다. 라은은 걸음을 더욱 여매고 움추린 채 걸었다.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다. 정말로 뒤에 홀린 것이 틀림없다. 추위 때문에 온 몸의 신경이 일어나는 듯해도 머리는 점점 꿈을 꾸는 것처럼 이지를 잃었다. 그럼에도 눈은 흔들림 없이 앞을 향했고, 마침내 아까 그 빛을 본 골목길이 드러났다. 골목길 안은 아직 아무도 밟지않은 새하얀 눈덩이만이 가득했다. 빛은 보이지않았지만,왜인지 실망하는 마음이 들지않았다. 오히려 아까부터 계속 심장박동이 거세게 울렸다. 쿵쿵쿵쿵 뛰는 소리가 라은에게 안쪽으로 들어갈 용기를 주었다. 뾰드득뾰드득,한 발자국씩 조심스레 다가가자 좁고 더러운 골목길 사이로 쓰러진 아이가 보였다. 앙상 마른 나뭇가지같은 아이는 얼핏 보기에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얼굴은 새하얘다 못해 창백해서 눈더미와 다를 바 없었고,길고 풍부한 속눈썹은 파르르 떨렸다. 심지어 더 다가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을 땐,너무 차가워서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다.

“저기요....”

아무래도 작은 흔들림만으론 깰 생각이 없는 듯했다. 덜컥 겁이 났다.

“저기요!”

좀 더 강하게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자,으음하는 작은 신음과 함께 눈을 떴다. 아직 정신을 못차린건지 라은의 얼굴만 뻘히 바라보았다. 정신이 들어요?라은의 입술이 움직이고나서야 아이는 몸을 일으켰다. 그제야 라은은 아이를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다. 아이는 계절과 맞지않는 반팔티를 입고있었는데,그 끝에 보이는 마른 팔은 정말로 가지같아서 그는 앞이 다 떨어져나간 겨울의 나무 같았다. 그의 몸 곳곳에 다 털어내지못한 눈덩이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더욱 그랬다. 그 비현실적인 모습을 보고있으니 마치 환상같아서 라은은 좀처럼 눈을 떼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는 조금 이상했다. 아니 물론이 상황 모두가 이상했지만,그에게서 느껴지는 위화감은 무언가 달랐다, 그 출처를 찾기 위해 눈을 이리저리 돌리던 중,그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라은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치다 뒤로 넘어졌다. 아이는 놀란 듯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은 허공에 멈추었다.

그 눈은 텅 비어있었다. 눈동자가 없었다거나, 흰자가 없었다거나하는 오컬트적인 얘기가 아니었다. 텅 비어있다는 말 말고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눈이었다. 위화감은 그 곳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에겐 색깔이 없었다. 아이는 라온을 보고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라온과 눈높이를 맞추려 쭈그려앉았다. 그 모든 행동안에 배려가 느껴져서 다행히 라온은 금새 정신을 되찾을 수 있었다.

“저기....안추워?”

조심스레 말을 건네오자 아이는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다.

“여기서 뭐하는거야?어디 아프니?”

줄 곧 말이 없던 아이는 우물쭈물하다 입을 열었다.

“잃어서 그래. 제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거든.”

“그게 뭔데?”

“색깔. 나는 색깔을 잃어버렸어.”

텅 비어버린 눈이 우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이는 바닥의 눈을 그러모았다가, 손을 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눈들이 으스러져 훑날렸다. 그 모습에 이끌려 라온은 충동적으로 그 손을 맞잡았다.

“어디있는데?내가 찾아줄게.”

“이 세상 곳곳에 있어. 나는 많은 것이 있었거든.”

곳곳에 있다고?라온은 잠시 멈칫했다. 하나가 아니라니!이건 너무 무모하다. 빨간 경고등이 머릿 속에 켜진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눈 앞의 아이가 안쓰러웠기에 라온은 일단 아이를 안심시키기로 했다.

“알았어. 일단 이것 좀 입자. 집은 어디니?”

라온은 자신이 입고있던 겹옷을 벗어 아이 위에 덮어주었다. 체구가 작은 아이는 옷에 잡아먹힌 듯한 꼴이 되었다. 라온은 그런 아이를 귀엽다는 듯 웃으며 옷을 여매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아이는 그 손을 잡았다.

“정말?정말로 찾아줄 수 있어?”

“응?응,그럼.”

라온은 잠시 당황했지만,곧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럼 잘 가져갈게.”

아이는 싱긋 예쁘게 미소지어보이더니 뜻모를 소리를 했다. 라온은 어리둥절해져서 손을 뻗내려했지만,양상한 팔에서 무슨 힘이 나는건지 아이의 힘에 의해 제지되었다. 왜 그래,라고 물으려던 그 순간 라온은 가슴이 점점 뜨거워지는게 느껴졌다. 라온은 반대 손으로 심장부근을 움켜쥐었다. 그럼에도 뜨거움은 멈추지않았다. 무슨 짓이야!소리를 지르고싶어도 입이 움썅달썅 움

직이지 않았다. 이윽고 그의 심장에서 붉은 빛이 흘러나왔다. 빛은 방황하다가 아이의 손에 붙잡혔다. 아이는 그대로 그 빛을 받아마셨다. 그의 눈동자 속에 그 빛이 깃드는 광경을 마지막 기억으로,라온은 결국 기절했다.

2.

우리는 모두 색깔로 태어났다. 가장 많은건 빨강과 파랑으로,태초부터 있던 색깔로 알려져있다. 두 색으로 인해 인간이라는 형태를 갖추게되었다고 우리는 배워왔다. 신이 세상을 만들 때 부여한 빛깔은 모두 심장에 잠들어있다. 누군가의 색을 알고싶다면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그 빛깔이 눈동자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동화같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세계를 살고있는 우리에게 전혀 그렇지않았다. 앞서 말했듯 이 세상엔 빨강과 파랑이 보편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빨강과 파랑은 그 색이라는 이유로 사회에 환대받았다. 빨강과 파랑이 태어나면 그것은 곧 그 집의 경사였으며 집안의 기둥이 되었고 곧 사회에서는 사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로 보았다. 사람들은 말했다,그들에겐 그런 힘이 있노라고. 태초부터 신의 영역에 들어갈 정도로 비범하다는 생각이 대부분이었다.

그 중에서도 그 빛깔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우대했다. 그것은 흉내만 내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라고 칭했다. 이렇듯 이 세상은 그들의 숨결대로 흘러간다.

그렇다면 아예 색깔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 빨강과 파랑이 보편적이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엔 다른 많은 색이 살아간다. 노랑,보라,주황,초록,검정 등.... 이 많은 색들은 모두 어디로 흘러갔을까?

그들은 그저 살았다. 살기위해 살았다. 누군가는 빨강과 파랑이 아니라는 이유로 존재가 지워졌다. 누군가는 취업을 할 수가 없어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다. 누군가는 소외되어 자신의 색을 부정한 채 살았다. 누군가는 혹여나 폭행당할까봐 어두운 길거리는 지나다닐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모두는 일상에 크고 작은 불편을 느껴야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각 자의 방식대로 이 세상에 스며들기 위해 노력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색깔들은 죽어갔다. 묻지마 살인을 빙자한 혐오 살인 기사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이제 이 모든 상황에 무더져 더는 관심조차 가지지않았다. 심지어 본인들조차도. 그저 그 당사자가 아니길 빌 뿐이었다. 그렇게 세상은 또 소리없이 물처럼 흘러간다.

라온 또한 빨강이었다. 강렬하게 타오르는 빨강까진 아니었어도 그는 자신의 색에 만족하며 살았다. 빨강과 빨강 사이에서 태어난 빨강인 라온은 유복하게 자라났다. 라온은 큰 갈등없고 평범한 이 일상에 심심함을 느끼기도하였다. 세상에 다른 색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따위는 그의 관심하에 있지않았다.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 그것은 그의 이야기가 아니므로. 그렇게 라온은 자신의 이야기만을 향해 달려가던 중 아이를 만났다. 그 어떤 색도 가지지않은 무채색의 아이를.

3.

두통이 깨질 듯이 아파왔다. 몸을 일으키려니 머리가 쏟아져내릴 것만 같았다. 눈을 뜨니 앞이 보이지않았다. 눈 앞이 빙글빙글 돌았다. 진정될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니 점점 앞이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와 같은 자신의 방이었다. 서서히 정신이 들었다. 그 아이는 뭐였을까? 기절하고 기억이 뚝 끊겨 어떻게 자신이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감이 잡히지않았다. 혹시 그게 다 꿈이었던걸까. 그게 제일 일리있는 생각이다. 그 모든 비현실적인 상황은 꿈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말이다. 라온은 머리를 싸매고 방에서 나왔다. 다시 흘러가는 평범한 일상이다. 그는 또 준비를 해서 학교를 가고,친구들도 만났다가,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분명히 무언가 달라져있음을 라온은 직감했다.

문을 열고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뺨을 타고 미끄러졌다. 어제는 그렇게 살벌하더니 그 새 기온이 조금 떨어진 듯했다. 웬지 기분이 조금 이상했다. 정류장까지 조금 걸어가니 한적하던 길가에 조금씩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라온은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믿을 수가 없어 눈가를 아무리 비벼도 눈 앞의 광경은 달라지지않았다. 길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의 심장 쪽에서 강한 빛깔이 마치 타오르듯 빛나고있었다. 놀라운건 그 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에겐 타오르는 그들의 색 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게 많은 색들을 품고있었다. 타오르는 빛깔의 기세에 눌린 것같이 보여도 그것들은 틀림

없이 공존해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라온은 다시 걸음을 떼면서도 이 광경에 넋이 나가버렸다. 한 두사람이 아니었다. 정류장에 도착하고, 버스에 올라타면서 지나친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다.

“거 빨리빨리 좀 타쇼!”

기사의 외침에 누군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작게 대답하곤 서둘러 버스에 올라탔다. 기사는 그를 힐끗 결눈질하더니 채수가 없다고 중얼거렸다. 올라탄 사람의 가슴은 초록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초록색의 사람이라 사람들은 그를 흘끗 쳐다보곤 다시 제각각 시선을 돌렸다. 그에게 면박을 준 기사는 파랑색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다만 그 빛깔에 눌린 그의 아래쪽 부근은 옅은 초록빛이 빼꼼하고 고개를 들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생생히 본 라온은 웬지모를 허탈감에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 기이한 상황은 학교를 가서도 계속 되었다. 유독 강한 빨강색의 선생님은 평소 다른 색들을 혐오하시곤했다. 본인은 티를 잘 안낸다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글세. 당사자들도 그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어제 죽은 보라색 인간 말이야. 선생님은 뜬금없이 뉴스 얘기를 꺼내셨다.

“평소에 자신은 빨강과 파랑을 모두 가진 사람이라느니 하는 헛소리해서 그렇게 된거야. 못배워서 그런 소리 하는거지,그니까 너넨 잘 배워서 어디가서 헛소리 하지말아라. 나 같은 선생 밑이니 그럴 일은 없겠다만. 보라색들 짹 다 정신교육 다시 해야해.”

거침없이 말을 내뱉는 선생님이 아이들은 대충 네네,대답하곤 하던 일을 마저했다. 그럼에도 선생님의 말은 멈추지않았다.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학생들 가슴에 있던 오묘한 보랏빛들은 점점 그 색을 잃어갔다. 원래 타오르던 빨강과 파랑빛만 더 거칠어졌다. 라온은 점점 이 상황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당장이라도 이 공간에서 벗어나고싶었다. 가슴 속에서 자꾸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튀어날 것 같았다. 아침부터 강렬한 빛들을 눈으로 담아내서인지 뻑뻑한 눈이 시려왔다. 아픈 건지,울고싶은건지 알 수가 없었다. 간신히 고개를 돌려 라

은은 애써 책만 바라보았다. 할 수만 있다면 귀까지 틀어
막고싶었지만 절망스럽게도 그것까진 불가했다. 겨우겨우
다사다난했던 수업이 끝나고서야 라은은 튀어오르듯 자리
에서 일어났다.

“조퇴하고싶다고?”

“네,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집에 가서 약 먹고 쉬려고요..”

“뭘...그래. 라은이 네가 그렇다면 그런거겠지. 집에 가서 푹 쉬고 내일 보
자.”

절차는 모두 순조로웠다. 담임선생님은 별 다른 말 없이 묵묵히 라은에게
조퇴증을 건네주었고,그는 어디가 아프냐는 친구들의 말에
제대로 대답할 틈도 없이 도망치듯 학교에서 나왔다. 이
모든게 그 아이 때문이다. 그 아이를 어서 만나야겠단 생
각만이 머릿속에 가득찼다.

4.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차가운 공기를 쉴 새없이 들이마셨더니 어느순간
메마른 목에선 자꾸 마른 기침이 나왔다. 그럼에도 걸음을
멈출 순 없었다. 거친 심장소리가 뛰어서인지 앞으로 일어
날 일 때문인지 분간이 가질 않았다.

“하아.....”

숨을 고르고나자 그 때 그 골목길이 드러났다. 적막이 내려앉은 골목길엔 아
무도 없는듯했다. 라은은 골목길안으로 들어섰다. 얼마가지
않아,벽에 기대 서있는 아이가 보였다. 아이는 어느새 키가
큰 듯 보였다. 자세히보니 앙상했던 팔도 조금은 살이 붙
은 듯 했다. 제일 큰 변화는 눈이었다. 텅 비어있던 아이의
눈엔 어느새 형형색색의 빛이 가득했다.

“너.....”

라은은 입을 열었다가,무슨 말을 꺼내야할지 몰라 망설였다. 이 곳까지 오기
전엔 분명 할 말이 정말 많았는데 정작 얼굴을 마주하니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았다.

“너 뭐야?”

“안녕. 저번엔 미안했어.”

“아니.....”

라은은 아이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갔다. 그러다가 두려움이 연습했다. 무엇

에 대한 두려움인지는 알 수 없었다. 저번에 대한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일까?

“색을 되찾아줘서 고마워. 덕분에 다른 색들도 찾을 수 있게 되었어.”

“그래, 뭐 알겠는데.....내가 아침부터 본 건 뭐야?무슨 짓을 한거야?너 대체 뭔데 나한테 이런 이상한 짓을.....”

“난 너한테 이상한 짓 같은건하지않았어. 너스스로 보게 된 것뿐이야.”

“이게 뭔데?”

“네가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던 빛들이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바로 보였을 것들. 네가 나를 발견한 것처럼.”

아이의 말은 이랬다. 태초에 두 색깔이 별을 받은 후론 다른 색을 보지못하게 되었다. 별을 받았단 사실이 싫었던 두 색이 한 선택은 그 별을 외면하고 다른 색을 소외시키는 것이었다.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혐오하는 것을 택한 두 색에 의해 세상은 그렇게 굳어갔다. 그러나 태초에 내린 별은 이미 그 때에 끝이 났음에도 굳어진 세상은 변화할 기미가 보이지않았다. 흘러가는 줄알았던 물이 알고보니 고인 웅덩이였던 셈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눈을 가린 천을 벗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려는 사람들이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바로 풀어질 끈을 붙들지만 앓는다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빛들이다. 사람들이다.

“난 이제 떠나야해. 넌 이제 세상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을거야. 그런 너에게 선물을 줄게.”

아이는 꼬물꼬물 손을 피더니 자신의 심장 속에서 무언가 꺼냈다. 그건 씨앗이었다. 아주 작은 씨앗. 아이는 그 씨앗을 조심스레 라운의 손에 쥐어주었다. 라운이 손을 꼭 쥐고 심장에 대자 씨앗은 곧 그의 심장에 스며들었다. 씨앗을 건넨 아이는 곧 허물어지더니 아스란히 사라졌다. 그 자리엔 살짝 녹은 눈덩이만 남아있었다. 아이가 사라진 공간엔 고요함만이 가득해서 마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꿈 같이 느껴졌지만, 심장에 채워진 작은 씨앗의 이물감이 꿈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5.

심장 속 씨앗이 꿈틀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그것은 살아움직이는 생물의

그것이였다. 그럼에도 소름이 돋거나 혐오감이 느껴지지않았다. 오히려 아주 오래전부터 잊고있던 무언갈 되찾은 기분이 들었다. 라온은 곰곰이 생각했다. 생각해보니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빛깔을 봤으면서 정작 자신의 빛은 보지 못했다. 항상 붉기만 했던 빛깔. 웬지 이번에는 다를 것같은 예감이 들었다. 라온은 골목길에서 벗어났다. 평소와 같은 거리 속,라온은 상가 유리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보았다. 그 속에 있는 소녀의 심장은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있었다. 다만 그 아래에 지금까지 깨지못했던 작은 불빛들이 잠에서 깨고있었다. 그 광경은 장관이였다. 이윽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색들의 빛들이 소녀의 심장에서 헤엄쳤다.

두근,두근.

심장이 요동쳤다. 그에 따라 씨앗이 발아했다. 라온은 이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제 더 이상 눈을 감고 도망치고싶지않았다. 라온은 이제 타오르는 빛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젠 알 것도 같았다. 코가 시큼해졌다. 라온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새하얗기만 했던 겨울의 풍경이 서서히 녹고 그 자리에 색이 채워지는 것이 보였다.

최소영

『고민없는 발걸음』

고민없는 발걸음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걷는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러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는 가고 싶었던 식당에 가기 위해 등 우리는 가려는 곳을 정해두고 걷는다. 나 또한 여행을 가든, 집 앞을 나가든, 어딜 가든 도착지를 정하고 지도를 보며, 혹은 기억을 되새기며 그곳을 향해 걷는다. 하지만 처음으로 지도 없이, 목적지 없이 걷는 날이 있었다. 올해, 전주에서 살게 된 지 반 년이 되지 않았을 때쯤이었다.

우선 나의 고향은 익산이고, 익산과 전주는 매우 가까워 중고등학생 때도 전주로 가서 자주 놀아 전주는 옆 동네 느낌이었다. 자주 드나들던 전주에서 대학에 다니게 되고 자취를 시작하게 되어 전주에 살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전주에서 혼자 살게 되니 전주에 정(情)이 붙지 않아 어딜 가든 낯설고 두세 번 오던 길도 쉽게 까먹었다. 집 밖을 나오게 되면 길들이 항상 어색하고 그 어색함을 느끼기 싫어 전주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자주 오던 곳인데도 말이다. 그렇게 전주에 일부러 정을 붙일 생각도 없이 집과 가까운 곳만 다니고, 본가를 왔다 갔다 하며 반 년이란 시간을 전주 아닌 전주에서 보냈다. 전주와 어색하게 지내던 와중에 자주 연락하던 언니가 시내에 맛집이 있다며 같이 가자는 말에 평소답지 않게 덜컥 약속을 잡게 되었다. 약속 날은 9월 5일, 날씨는 흐렸지만 공기는 시원했던 날이었다.

약속 당일,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짧은 시간 안에 준비를 하고 약속 시간까지 한참이 남아 약속 장소까지 걸어가 볼까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다섯 번이나 읽은 책인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 덕분이다. 주인공 진솔은 서울로 취업을 한 후, 한동안 서울에 정이 들지 않아 정을 붙이기 위해 무작정 동대문부터 종로를 지나 광화문까지 걸었다는 글이 갑자기 생각났다. 서울에서 정이 들지 않는 진솔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겹쳐 보여나 또한 진솔을 따라 약속 장소까지 무작정 걸어보기로 했다. 집에서 약속 장소까지 지도로 검색해보니 1시간이 조금 넘는 거리였다. 시간도 충분하여 긴 고민 없이 집을 나와 지도를 끄고 길을 짐작하며 걷기 시작했다.

자취방 근처인 농소 전원 마을의 도로변 길을 따라 쪽 걸어 효자 다리를 건너고 좀 더 걷다 보면 상점들이 즐비해 있는 동네를 지나 작은 공원인 인정공원, 더 가다 보면 시립도서관이 보이고, 15분을 더 걸으면 나오는 선충사를 지나쳐 다가교가 있는 곳으로 걸어 약속 장소까지 걷게 되었다.

1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걸어가는 길에 익숙한 장면들로 인해 낯설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강아지가 주인과 산책하는 모습,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 다리 밑에서 강가 길을 따라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며 전주와 서먹한 기분은 느껴지지 않았다. 전주와 한층 더 친해진 거 같다는 느낌에 한몫해준 건 길을 걸으며 들은 좋아하는 노래와 시원한 날씨였다. 이때 들었던 노래 중 무한 반복을 했던 노래는 성시경의 희재.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는 반주가 다가오는 가을과 쌀쌀한 날씨에 꽤 잘 어울리는 노래였다.

이날 1시간이 앞으로 전주에서 살아가게 될 많은 날보다 더욱 의미 있고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이 걸음이 전주를 바라보는 이전의 나의 시선을 바꿔주었다. 이 이후로 목적지를 향해 길을 걸을 때 익숙한 길보다 새로운 길을 찾아 발걸음이 닿는 대로 걷게 되었고 새로운 곳을 알게 되면 소소한 기쁨도 느끼는 작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김수민

『만개』

만개

무슨 계절인지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곳을 보니 꽃이 많이도 피었길래 봄이라고 그저 유추할 뿐. 하지만 이곳은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 봄은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을과 겨울도 아닌. 이곳은 몇 년간 자그마한 꽃 하나 피어나지 않았다. 비가 무수히 내렸고 너무나도 뜨거웠다. 어떤 날은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고, 나조차도 얼어붙게 만들었다. 심지어 따스한 햇살조차 고역이었다.

분명, 몇 걸음만 걸으면 꽃이 가득한 저곳에 닿을 수 있었지만, 발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걸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일 수도. 그래서 저곳에 만개한 꽃이 얼른 낙화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렇다면, 이곳이 삭막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다고 한참 뒤에 깨달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나아지게 할 수 없었다. 이후,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저곳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다. 물론, 몇 걸음 안 되는 그 길이 꽃길은 아니었다.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비가 내렸고 더웠으며 바람이 불어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들었고, 발가락이 얼 정도로 추웠다. 하지만 그전에 이미 다 경험해본 터라 그런 역경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리.

마침내, 그곳에 다다랐다. 이곳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했고 뿌듯했다. 그러나 힘들게 온 이곳이 언제까지나 따스한 봄날로 지속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훗날, 비인지 눈물인지 알 수도 없는 것이 눈앞을 막을 것이고 뜨거운 태양이 따라다닐 것이다. 또한, 낙엽이 스산한 바람에紛紛히 날리며 눈송이가紛紛히 떨어져 내리는 날을 맞닥뜨릴 것이다. 하지만 꽃꽂이 나아간다면 또다시 만개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니.

이제 언제나 꽃을 피울 준비가 됐다.

마경진

『나만의 길을 걷자!!』

나만의 길을 걷자!!

어느 날 백진우 교수님께서 수업 도중 자기 주관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그렇다고 이것을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로 오해하게 된다면 실수이다. 이 둘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도대체 자기 주관성이 무엇이고 왜 이것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필자에게 직접 생각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래야지만 더욱 올바르게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고 동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다른 사람이 쓴 의견을 보다보면 나도 모르게 동조하게 되고 별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다보니 언젠가부터 나의 의견은 점점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만 따라다니게 되는 마치 꼭두각시 인형인 나의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항상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많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만나서 놀 때 하고 싶은 것을 정할 때나 밥 메뉴를 정할 때 나의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사회의 현상들을 살펴보면 나이, 성별 불문하고 아직까지 자기 주관성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느낀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SNS 등에 글을 적곤 한다. 특히 댓글을 작성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론 물이 등도 사람들의 자기 주관성이 부족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자신의 생각을 적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건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만 의해 비슷한 글을 적는 사람들도 대부분이다. 요즘 기사들을 보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려다 보니 사실 확인을 건너뛰고 다른 관련 기사들을 인용하여 틀린 내용을 기사화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럴 경우 잘못된 정보가 진실을 묻어버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또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모두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마다 각자 다른 주변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서는 완벽히 자신을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아무런 노력 없이 나를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아마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일 가능성이 아닐까? 자기 주관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를 알아야한다. 그래야지만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

을 얻을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주변의 유혹으로부터 뿌리치고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한 타인의 글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항상 비교하면서 글을 읽기 바란다. 그래서 최근 제일 안타까웠던 사건인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받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기길 않길 희망한다. 다른 사람이 안 좋은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아무생각 없이 나도 동참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게 된다는 사실이 매우 슬프게 느껴진다. 다행히 아직 사회 초년생인 우리들에게는 대학 생활동안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나에 대해 알아가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들은 자신을 더욱 성장시켜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고 생각한다.

노은정

『Choi』

Choi

사실 힘을 뺀 담백한 글이든 간이 세 정신 사나운 글이든 우리는 안다. 이 글을 쓰기까지의 마음을. 좋은 문장만을 쓰고 싶은 마음을. 그 마음을 알고 있음에도 더 잘 쓰고 싶은 마음을. 어색한 문장에 괜히 속상하고 미안한 마음까지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좋다는 걸 안다. 그 마음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

지금까지 나의 결의 남아준 사람들의 존재를 이제는 안다. 어릴 적부터 헤어짐이 싫어 눈물을 흘리던 어린아이는 안다. 그 아이 앞에선 괜스레 멋있는 어른인 척도 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를 어리광도 피울 수 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행복에 가까운 내 모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없다.

그 아이는 정이 많다. 그러니까 나랑 지금까지 친구고, 금방 사랑에 빠진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한다. 무조건 용원을 해줄 수 없는 내 결론으로는 그냥 놓아주라는데도, 개는 그래도 하고 싶어 하는 눈치다. 그러면 이제 난 속으로 애가 상처 안 받기를 바란다. 더러운 모습은 지금도 충분하니까 더 안 보고 살아도 된다. 우리를 위해서라도 세상에 협조를 부탁한다.

매년 꼬박 밥을 같이 먹던 우리가 날이 갈수록 얼굴 보기가 힘들다.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올해는 정말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봤다. 올해는 순전히 내가 게으른 탓이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 어색한가 싶다가도, 헤어질 시간이 되어 각자의 버스정류장으로 돌아갈 땐 아쉬움이 밀려온다. 그런 사이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솔직히 할 말이 없는데 헤어지니까 아쉬운 사이. 아직 우린 해야 할 일이 많은 사이.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 가자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그 말은 빈말이 아닌 언젠가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 밥 한번 먹자 같은 식상한 안부 인사가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 사실이 안도감을 준다. 그 말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수많은 우리의 대화와 만남을 돌아보게 하고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다. 지금 내가 글을 쓰게 만든다.

머플러의 따듯함을 빌려 나의 서툰 마음을 전하고 싶은 계절이 온다. 추위를 많이 타는 그 아이의 두 번째 타지에서서의 겨울이다. 칭칭 둘러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

이 글의 주인공이 되어 준 그 아이한테 고맙다. 이럴 때만 자기를 써먹는 나를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제3부

<하랑>

〈인사말〉

하랑 회장 김병훈

안녕하세요, 하랑 회장 김병훈 인사 드립니다. 올해 초 시작된 COVID-19 유행으로 인해 많은 학우 분들에게서 크고 작은 불편과 피해를 겪고 마음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처음보다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으나,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기에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학우 분들과 학교 관계자 분들이 계신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분들을 위해 하루 빨리 유행 자체가 끝나, 모두가 전과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랑 또한 모여 앉아 창작을 하던 기존 활동 방식에서 변화해야만 했고, 저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원래 방식보다 회원 분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여 작년과 같은 분량으로 문집을 엮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곤란해하던 와중, 학회장님께서 과 문집에 따로 공간을 할애해줄 테니 같이 엮어내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재작년이나 작년보다는 한참 모자란 분량이지만 하랑 회원 분들의 글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랑 회원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학회장님과 문집 제작을 위해 고생하신 학생회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큰 변화의 물결이 세상을 겹잡을 수 없는 곳으로 휘몰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휩쓸리면서도 적응하려 애쓰고 계십니다. 이 정도로 커다란 변화가 지나간 후엔 전과 같지 않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알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빈 자리가 엄청나게 쓰라리거나 허전할지도 모릅니다. 바뀌어버린 것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몇 배는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NASA에서 명일 지구에 소행성이 충돌할 확률이 100%라고 공표하거나 하는 일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희망과 동의어인 내일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살면 좋겠습니다. 오지랖에 불과한 말일지라도 내일은 있고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왕 살 거면 잘 살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견디고 있으니까 나도 견뎌야 해 같은 이유도 좋지만, 자기 자신에게서 힘듦을 이겨낼 삶에 대한 애착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럭저럭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서 없는 말이 길었습니다. 학우 여러분, 몇 점 되지 않는 작품이지만 부디 잘 봐주시고 날이 갈수록 추워지니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우

『사월의 하늘은 바람 한 점 없다』

사월의 하늘은 바람 한 점 없다

아이에게 노란 색종이 한 장을 쥐어주며
조용히 바라봅니다.

사색에 잠겨버린 아이는
이내 조그마한 손에서 뚫단배를 끄집어냅니다.

조그마한 손을 떠난 뚫단배는
아이하고, 새하고, 별빛하고, 바람하고,
저 멀리 어딘가로 향해하는데

애석하게도 사월의 하늘은 바람 한 점 없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온기 없는 바다에 정착합니다.

노랗게 물들어진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아이의 어깨를 어루만져주고
아이여 울지 마라, 추락한 게 아니라
아이여 슬퍼마라, 잠시 쉬고 있는 것이니라.

노란 뚫단배는 땅 속으로 스며들어
멈추지 않고 항해를 이어 나가다가
어느 끝자락에 도착한다면
다음 이 맘 때쯤 꽃 한 송이 피어낼 것이다.
아이여, 꽃을 어루만져 가슴에 품어라.

김소망

『낙엽의 불씨는 타오르겠지만』

낙엽의 불씨는 타오르겠지만

하늘로는 푸르디 푸르른 시원함이 불고
땅으로는 붉디붉은 매움이 타오릅니다.
낙엽의 불씨가 타닥타닥 피어오르다
지나는 이의 발에 밟혀 바스라지는,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도 타닥타닥 타오르다
스쳐가는 이의 발에 밟혀 바스라지는
가을이라는 계절이 내 발 앞에 서있습니다.
파랑을 띠는 하늘에도 파랑(波浪)이 일렁이는
그 계절, 가을을 마주하며 나는 서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고대한 계절이었지만,
나에겐 한 인연의 실을 잘라버린 계절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용기도 믿지 못하였고,
당신에게서 온 답장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 글자들은 뿔뿔히 흩어져 허공에서 회오리되어 흩날리더니
곧이어 그 모습을 칼날로 바꾸어 내보였고,
내 가슴에 깊고 슬프게 꽃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문자를 주고 받았던 날의
잠자기 전 서로 나눈 마지막 인사가
오늘에 와서 우리 사이에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인사가 되어 돌아와버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봄의 인사는 귀뚜라미 우는 가을날의
물웅덩이에 난반사되어 비쳐보였습니다.
그날의 인사와 같아보이지만 분명 일그러진 난반사가 되어.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에 빠져드는 시간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번의 가을은
여전히 낙엽이 붉게 타오르겠지만
그 속에서 내 마음은 차분하지만 서글픈 파랑을 띠며
어쩌면 그보다 더 어둡고 찬기를 내뿜으며
공허히 서려있을 뿐일겁니다.

조희주

『바다와 꽃』

바다와 꽃

작은 섬, 생선가게. 너는 그 집 귀하디 귀한 외동딸이었다.

그런 너에게선 항상 오묘한 향기가 났다.

시원한 바다냄새, 그 속에 숨어있는 너의 향수일지 샴푸일지 모를

달달한 꽃 향기. 나는 그게 참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우린 이렇다 할 특별한 관계도 아니였고, 나는 단지 너에게
동네 아이, 학급 친구, 생선가게 단골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너와 내가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걸, 태초부터 깨달았고.

난 그저 그 점에 대해 아쉬워 할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가 아무런 인사도, 미련도 없이 헤어진 뒤.

나는 바다를 찾을 때면 품에 꽃을 한아름 품고서 찾아갔다.

이렇게 하면 그 시절 너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고, 나는 그게 참 마음에
들었다. 별다른 아쉬움은 없었다. 그냥, 단지. 다음 번엔 이 품 안 가득
들어있는 꽃들이 너이기를, 같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네가 ‘숙희야-’
하고 나지막히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하는 작은 바램만 있을 뿐이었다.

김병훈

『더는 전과 같지 않음을』

『코끝으로 추억하기』

더는 전과 같지 않음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가까워져 오는 걸 알아차리기는 쉬웠다. 여름이 한창 일 땀, 자고 일어나면 몸이 미지근한 물과 함께 비닐에 담겨 있는 것 같은 푹푹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얼굴을 때리는 선풍기 바람과 함께 매일 잠에서 깨어나다 일순간 비닐은 온데간데없고 선풍기 바람이 차가워 재채기 기운이 코끝을 간질인다. 그럴 때면, 올여름이 지나갔다는 것을 깨닫는다.

곧장 마주하게 될 가을을 마주할 준비를 한다. 창밖에 보이는 풍경. 들이마실 때 군더더기 없이 서늘하기만 한 바깥공기. 올해도 작년 가을과 비슷하길 바라며 여름을 함께 보냈던 비닐 조각을 침대에서 걷어내어 접고선 쓰레기통에 버렸다. 베란다에 나가 슬리퍼를 대충 발끝에 끼우고 몇 발짝 걸었다. 기지개를 켜고 기대를 가득 안고서 숨을 들이쉬어 보았다. 비슷했다. 비구름이 오고 있던지, 아니면 한창 쏟아내고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물러가고 있던지. 그런 낮에는 태양이 가려져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한 새벽 초입과 한낮이 비스무리하게 밝았다.

그것까지는 작년 가을이 시작할 때와 똑같았다. 하지만 조금 더 추웠다. 아무것도 살갗에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오직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만이 느껴지는 날씨와는 달랐다. 조금 추웠다. 가을이 마치 묶어두지 않아 바람이 새는 풍선처럼 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먼 하늘을 내다보았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던 가을은 조만간 숨 쉬어보고 만나볼 수 없게 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계속, 베란다에 우두커니 서서 하늘 대신 넓고 얇게 펼쳐져 자리를 차지해 버린 구름을 바라보았다. 하얀색에 조금 푸른 물감과 기름을 섞어 물 위에 띄워둔 것 같았다. 아직 한 번에 잃어버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 안도했지만. 가슴 한 구석에 머금고 있던 가을. 그중 며칠이 사라져버린 빈자리는 숨이 들락거릴 때마다 그 윤곽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완전하게 결정지어진 일은 아닐 것이다. 내년이 되면 지금 내가 낫설어하는 겨울로 향한 성급한 이행이 아니라. 전과같이 같은 속도로 서서히 추워지는 그런 가을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저 올가을만 조금 눈에 띄게 이상할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가을은 항상 그렇게 며칠씩 값아 먹혔다. 맨 처음으로 책가방이란 것을 메고서 그때 느끼기엔 멀고도 먼 오르막을 올라 학교에

가던 때엔 가을 그리고 봄 또한 이보다 더 길었던 것을 알고 있다. 완전하게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아마 내년에 다시금 마주쳐 확인해보면 잃어버린 것이 맞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가 의도치 않게 더는 가지고 있게 되지 않은 상태. 또는 어딘가 변화가 일어나 더는 전과 같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말일 것이다. 뜻을 어슴푸레하게 알고 있을 뿐 사전을 떠들러 본 것은 아니라 그 어슴푸레함을 뭉쳐 가정해보았다. 조금 고개를 돌려 내가 잃어버린 나만의 가을보다 조금 더 넓은 곳을 보았다. 잃어버린 건 조각난 가을이 흩어진 파편 하나만이 아니었다. 내가 사는 곳뿐만 아니라 오만 곳에서 계절과 날이 깨져 흩날렸다. 커다란 접시를 손에서 놓쳐 깨트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작은 것부터 큰 덩어리까지, 모든 조각이 마치 쓰레받기에 빗질하여 담겨선 뒤섞이고 있는 것 같았다. 봄과 여름에 부는 바람이 어떤 꽃이 품은 가루를 향기와 함께 실어 오는지 앞으론 알기 힘들 수도 있다. 날것 그대로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게 되었다. 얼굴을 덮은 사람도, 또한 덮지 않았던 사람도. 가슴을 펴고서 바람을 마주한 그대로 들이마시고 그 기분 좋은 비린내와 나뭇잎 냄새를 맡을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입술이 움직여 땀글어지는 상형문자가 가진 뜻을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몇 년을 눈썹이 으쓱이는 것과 목소리로만 사람과 사람을 마주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놀이터는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에 그네가 휘둘러 기름칠 되지 않은 부분이 부닥치는 쇠소리를 내기만 한다. 여태껏 우리에게 가까운 시간 속에서 이런 적이 있었을까? 묻는다면 없었을 것이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가을이 달라졌다는, 어쩌면 사소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빈자리가 씩씩히 저미는데. 들려오는 모든 소식이. 세상 많은 것들이 더는 전과 같지 않을 거란 말뿐인데.

나 자신이 마음 안에 갖고 있던 소중함에 대한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디 그것이 원래 엄청나게 커다랗길 바란다. 크고 작은 것들이 사라져 생긴 빈 자리는 앞으로 켜켜이 쌓여갈 테니까. 내일이 오늘과 같지 않은 날이 앞으로든 수 없이 있을 텐데. 날마다 잘 버텨낼 수 있으려면, 기왕이면 커다란 마음이 좋을 것 같으니까.

코끝으로 추억하기

몸체보다 몇 배는 가느다란 이음매 하나만으로 가지에 붙어 있던 나뭇잎이 결국 초록을 잃고 바람에 휘둘리다 떨어진다. 푸르렀던 피부는 회갈색 빛이 돌아 으스러지며 잘게 부수어져 바람에 섞이었다. 겨울이 가까워져 옴에 따라 나무가 껍질을 더더욱 두껍게 여미려 성장하는 상처에서 나는 냄새까지 더해져, 바람에는. 생과 사가 섞인 냄새가 났다. 겨울을 맞기 위해 누구는 스러지고 누구는 생에 대한 의지를 더 해가는 계절. 굴에 잔뜩 먹을 것들을 그러모아 추려두고 몸을 가득 웅크릴 준비를 하는. 짝을 찾으려 멍들어지게 형형색색 다듬어두었던 것이 모두 빠지고 눈보라가 살갓에 스미지 않을 만한 두꺼움을 입는.

태양이 하늘에 머무르며 빛으로 하늘을 드높고 푸르게 물들이는 시간은 날이 갈수록 짧아진다. 점점 늦잠을 자고, 점점 일찍 잠자리에 든다. 햇빛에 구름이 눈부셔하는 때가 줄어들며 따라, 이따금 구름은 세를 이루어 아예 해를 가려버리기까지 한다. 회색이 감도는 공기에 회색 잎이 떨어져 쌓인다. 빗자루로 쓸어 모아놓은 낙엽은 서로 켜켜이 모여 쌓여서 삭아간다. 칙칙하지만 탁하지는 않은 가을바람이 이따금 그 낙엽 모인 곳을 휘저어 구성원을 추려간다. 잘 썩어 없어진 낙엽의 재를 바람에 실어 머무르는 땅마다 흩뿌린다. 그렇게 먹이를 머금은 땅은 눈 이불을 덮고 한두 계절이 지난 뒤 그와 같은 짝을 길러낼 테지.

베란다를 열고 방충망을 한 겹 사이에 둔 채로 바라보는 가을은 그렇다. 한 해를 두고 살아가는 기관이 나고 스러짐을 볼 수 있었다. 여러 해를 두고 살아가는 생명이 다음 해를 무사히 나길 바라는 소망을 볼 수 있었다. 문득 상념에 빠져 고개를 들어 우뚝 솟은 콘크리트 구조물 넘어 하늘을 보았다. 내 평생에 남은 가을은 이제 원 번 남짓이라는 사실을. 내년 가을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았다. 변하기가 힘든 것에 대한 상상은 항상 알고 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여전히 이파리는 떨어져 땅바닥을 구르다가 밟히고 썩어 삭아 없어질지. 바람은 또 어느 때처럼 우체부가 되어 이것저것을 나르고 내려놓기 바쁠지. 오후 다섯 시 반쯤 되면 해는 크게 하품을 하고서 산골짜기 뒤로 몸을 숨겨 이불을 덮고 눈을 감을 준비를 할지.

그것들은 전부 내년 가을을 내 온몸으로 직접 받아들여 봐야만 알 수 있겠

지. 당장 알 수 없는 것이다. 내게는 그저 바람이 얼마나 더 차고 시원할지, 바깥이 언제 어둑어둑해지고 언제 햇볕을 머리 위로 받아내면서도 땀이 나지 않아 상쾌할지. 생과 사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것 같은. 사소한 문제일 뿐이겠지만 나는 그래도 내년 가을이 올해와 같았으면 좋겠다. 내년에 어디선가 먼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올해와 전혀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년에 나는 지금보다 못 살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조금은 더 행복하게 가슴 깊이 바람을 들이마시며, 사라져가고 일으켜질 생이 남긴 부스러기 냄새를 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생이 겨울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조차 마주하는 가을바람 냄새는 이전 것들을 추억할 수 있게 비슷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예슬

『영혼』

『모래성』

영혼

나의 태초이자 영혼이 시작되는 곳. 그러나 차갑고 동적인 곳. 마음 속에서 사장된 곳. 나의 고향이여.

고향의 여름은 서늘했다. 저 멀리 북쪽에서 넘어온 바람은 한여름에도 이마를 간질였고 넉넉한 옷자락을 펄럭였다. 지평선 바깥까지 질푸르게 늘어져 사시사철 겨울을 연상시키는 산맥과. 그 산을 넘어 흘러들어온 희미한 소금기 섞인 공기. 모든 것이 발뒷꿈치에 끈덕지에 달라붙어 나를 괴롭혔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나를 끌어내 고통속에 몰아넣을 것만 같은 그 장소에 나는 추억이라는 단어를 차마 붙일 수 없었다. 대신 몇번이고 간청한다. 나의 고향. 나의 악몽이여. 지치고 병든 나를 떠나 산맥으로 돌아가주소서. 심해로 돌아가주소서. 그러나 심장에서 머무는 소리. 나는 너의 영혼이요 마음이니라. 영혼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고 마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듯이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으리라. 그러나 나의 영혼이여. 나는 차라리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등지겠습니다.

태초이자 영혼이 멈췄던 곳. 그러나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곳. 마음 바깥부터 살아 숨쉬는 곳. 나의 터전이여.

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는 이곳은 온몸을 포근한 공기로 감쌌다. 발밑으로 흐르는 고운 백색의 모래와 소금기 머금은 물은 끝없는 여름을 안겨주었으며 지평선 너머 태평양에서 올라온 바람은 투명한 종을 씩없이 올렸다. 모든 것은 나를 살아가게 하는 영혼이요, 마음이다. 그러나 나는 이따금 스스로 악몽 속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터전을 뒤로하고 꾸준히 고향으로 떠나보는 것은 아마도 향수라는 이름의 저주 때문일 것이요, 나 역시도 악몽 같은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의 태초이자 영혼이 숨쉬는 곳. 그리하여 종래에 내가 머무는 곳. 나의 악몽이자 마음이여, 나의 영혼이여.

모래성

모래성을 만들었다. 주홍빛으로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에서 열게 반짝이는 바닷물을 접착제로 하여 금색 모래를 쌓아 올렸다. 저녁 어스름의 포근하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을 가볍게 스쳤고 파도가 발끝을 스치며 파열하는 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렸다. 그야말로 찬란한 순간이었다.

완성된 모래성은 펍 마음에 들었으며 나는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언제 다시 찾아와도 볼 수 있도록. 그러나 순간 거대한 파도가 해변을 덮쳤다. 금빛 모래알들은 휘날리듯 파도에 섞여 들어갔고 내가 만든 모래성 또한 한 움큼이 깎여나갔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을 멍하니 응시했다. 봉긋하게 솟은 모래 위를 파도가 천천히 끌어안을 때마다 조각나는 모래 덩어리. 모래와 바닷물로 이루어진 것이 다시 원래의 모양새를 찾아가는 그 순간 속에 있으니 나 또한 태초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발끝부터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누군가 그랬던가.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라고.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다. 우리는 잃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작게는 필기구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까지. 빈손으로 태어난 존재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 그렇게 얻은 만큼 잃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잃으며 다다른 종착점에서는 끝내 나머지도 잃어버리게 될지. 조금씩, 저 모래성이 바닷물에 잠식되듯이. 그리하여 종래에 잃는 것은 기억들. 머릿속을 구성하던 조각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갈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기억도. 이윽고 태고의 기억마저도 놓아버리면 무(無)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지. 상실의 끝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기에.

어느새 모래성은 완전히 형체를 잃었다. 감색으로 물든 하늘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별빛을 담은 검은색 바다가 고요히 요동한다. 서늘한 바람이 불을 날카롭게 스치고 파도가 무겁게 젖은 모래를 스치며 파열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그야말로 아득한 순간이다.

제4부

<닫는 글>

나무를 사랑한다면

박노해

3월의 하늘 아래
어린 나무를 심는다

물을 주고 거름 주고 흙을 돌아주고
나무야 나무야 어린 나무야
너에게는 모진 비바람도 피해 가고
타는 가뭄도 병충해도 꼬이지 말고
예쁘게 무럭무럭 자라나거라

마음 모아 기원해 주다가
지금 내가 이 어린 나무를
저주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런 마음도 없다면 무정한 사람이겠지만
그런 말들은 이 나무에겐 저주가 아닌가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서
어찌 나무가 클 수 있겠는가
불별과 병충해를 이겨내지 않고서
어찌 강건하고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나는 다시 마음을 모아 기원드렸다
나무야 나무야 어린 나무야
네 안에는 그 모든 걸 이겨낼 힘이 있으니

너의 고난으로 더 기품있게 자라나기를
너만의 고유한 길에서 맘껏 푸르르기를
부디 나보다 먼저 죽지만 말기를
나는 그저 뜨거운 믿음으로 애타는 사랑으로
이 지상을 잠시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하기를

‘우리’ 학생회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글 한국어문학과 · 그림 이다연

발간일: 2020년 11월 25일

펴낸 곳: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2020년도 ‘우리’ 학생회

**여태까지 잘 해왔어
앞으로도 잘 해낼 거야**

